한국전력공사 공인협의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목욕탕,숙박업소,식당,병원, 관공서,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쓸/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지엉강정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최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12월 23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03 호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욕쟁이 할머니'. 종로구 예지동 시계골목 한켠에서 7평짜리 간판도 없는 밥집을 40여년간 꾸려온 이경숙(75세)할머니의 별명이다. 골목 사람들은 매일듣는 할머니의 욕이 즐겁기만 하다. "밥이라도 많이 처먹어야지 몸이 허하면 아무것도 필요없는 것이여 이놈들아" 할머니의 욕은 사람과 정이 듬뿍담긴 마음의 표현임을 잘 알기 때문.

"욕쟁이 할머니가 그렇게 욕을 퍼 부으며 밥집을 해서 번 돈을 어려운 이웃에게 아낌없이 보시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는 밥값조차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할머니의 욕은 음악소리 처럼 들립니다" 주변에서 할머니의 밥을 시켜 먹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서울 홍문사 신도인 욕쟁이 할머니는 40년째 식당을 하면서도 한번도 밥값을 따져서 받은 적이 없다. 시계골목에서 배달을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한끼에 1천원도 받고 2천원도 받는다. 더러 공

욕쟁이 할머니



짜밥이 미안해 배달일을 돕는 청년들도 있다.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는 예누리 없이 4천원을 받는다. 청소부 아저씨나 시장 경비원들에게는 '내고 싶은만큼'만 받고 어쩌다 한번씩 들르는 교통경찰들에게는 아예 밥값이 얼마냐는 질문도 못하게 한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망연해 하던 중, 아들의 학비가 없어 고통 당하는 친구에게 품고 있던 재산의 절반을 선뜻 떼어주고 시작한 이 밥집은 욕쟁이 할머니가 평생 남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보살행을 해 온 도량인 셈이다. 할머니에게 공짜밥을 얻어먹고 자수성가한 사람도 10여명이 넘고 할머니의 도움으로 공부를 해 사회의 지도층이 된 사람도 여럿있다.

올 겨울 욕쟁이 할머니는 심란하다. 자꾸 아파오는 허리와 결려 오는 어깨 때문이다. 이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밥집을 꾸려가기에 힘이 부치는 것이다. 그래서 점포를 넘겨주기로 했다.

"누군가 밥의 공덕을 아는 사람이 와서 내 뜻을 이어 주었으면 좋겠지만 요즘세상에 그런 멍청한 조자가 있을까 몰라."

김정은 기자(jekm@buddhapia.com)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http://news.buddhapia.com
부다피아갤러리 http://gallery.buddhapia.com
부다피아쇼핑몰 http://mall.buddhapia.co.kr

'가처분' 불구 대결구도 안풀어

조계종 총무원이 신청한 '퇴거단행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11일 총무원측 승소 판결을 내린 이후 총무원측과 정화회의측의 맞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에 상당한 힘을 받은 총무원측은 퇴거 단행의 법적 집행에 힘을 쏟으며 총무원장 선거 일정을 공고하는 등 바쁜 움직임이다. 정화회의측도 사법부의 판결이 종교 내부의 문제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 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별도로 총무원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정화회의측이 일부 지역 사찰주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해 지방 사찰 집수 가능성을 두고 긴장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총무원-선관위, '29일 선거' 일정 확정

11일 '퇴거단행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의 승소 판결로 법적, 여론적으로 상당한 힘을 받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과 종회측은 제29대 총무원장 선거 일정을 공고하고 정화회의측에 가담된 종회의원을 제명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 종단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원장 선거로 이번 사태를 풀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9일 오후 1시 조계사에서 제29대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덕문)는 14일 제40차 회의를 갖고 29일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관련 선관위는 "14일 중앙종회와 15일 종단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교구본사주지회의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선거를 통한 새 집행부의 구성이 종단사태 해결의 첩경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었다"며 "29일 오후1시부터 5시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확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장소와 관련 종단 사태를 지켜 본후 제2의 장소에서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7일 열린 제136회 임시종회에서 개정한 선거법에 따라 29일선거를 치르기 위해 14일자로 선거 실시 공고를 냈으며 21일과 22일 이틀간 후보자를 추가등록 받을 계획이다.

29일 선거는 전체 314명의 투표인단에 의해 실시된다. 7일 임시종회에서 종회의원 명상스님(17교구)이 의원직을 사퇴했고 14일 임시종회에서는 정우, 원하, 현근, 현소, 법일, 성문 스님 등 6명의 의원스님이 11일 30일 승려대회 결의에 따라 제명 결의됐기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정화회의, 주지임명등 독자행보 모색

정화회의는 29일 이전에 총무원장을 뽑는 한편 교구본사를 비롯 주요사찰의 주지 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정화회의는 1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총무부장 현소스님은 "지금 법체위에서 총무원장선거법을 만들고 있다. 법이 완성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총무원장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선출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내'라고 밝혀 29일 이전 가능성이 높다.

총무원장 선출 방법과 관련 정화회의는 '원로회의 만장일치 선출-종정의 인준-종정 명의의 임명장 수여' 방식 등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기는 5년 단임으로 못박고, 권한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주지 인사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9일 24교구본사 선운사에 대우스님을 새 주지로 발령했다.

정화회의 부위원장 현근스님은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봉선사 주지 월운스님은 종정스님의 말씀을 왜곡한 사람"이라고 말해 봉선사도 인사대상 사찰에 포함할 것임을 시사했다. 제17교구본사 금산사와 영화사에 대한 인사 방침도 밝혔다.

정화회의는 1년 분담금이 30억원에 이르는 선본사(갓바위)도 직영사찰에서 해제했다. 선본사는 은해사 말사로 편입돼 은해사에서 주지를 발령할 계획이다.

정화회의는 또 △수행·포교 중심의 종단 운영 △종정 및 원로회의 권한 강화 △본사중심제 확립 △비구니 특별교구, 군승단 특별교구, 해외 특별교구 신설 △재가불자 교단운영 참여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청사 퇴거' 18일 집행 무산

정화회의 불응…공권력 투입 수순 밟을듯

11일 서울지법의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른 법원의 집행이 18일 오전 8시 시도됐으나 조계사 신도등의 강경한 저지와 정화회의측의 불응으로 무산됐다.

이날 아침 조계사 정문앞에 도착한 강석영 집행관외 2인과 총무원측 이현 변호사는 미리 대기중인 조계사 신도와 장애인들의 저지로 경내에 들어가지 못했다. 집행관측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공무를 수행하러 왔다"며 길을 비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조계사 신도와 장애인등 60여명은 "대웅전 방화 책임자가 밝혀지지 않았고 총정스님의 교시가 사법부에 의해 무시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강경 저지했다.

집행관측은 이날 정화회의측에 11일의 판결문을 전하고 퇴거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조계사 경내 진입이 어려워지자 집행관측은 전화를 통해 정화회의측 대표자 스님이 나와서 판결문 등을 받아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화회의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조계사 신도대표 3인이 집행관을 만나기 위해 나왔으나 집행관측은 "제3자인 조계사 신도대표는 만날 수 없다"며 정화회의측 대표자 스님이 나올 것을 계속 요구했다.

집행관측은 오전 8시와 9시 30분 두차례 조계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무산되자 "이는 분명한 공무집행 방해"라 규정하고 "추후 다른 방법을 통해 집행을 계속 하겠다"고 밝히고 법원으로 돌아갔다. 18일 법원의 법집행이 무위로 끝난 것과 관련 총무원 청사 공권력 투입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총무원측은 공권력의 개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불자들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공권력과 정화회의 측의 충돌로 사회적인 물의를 다시 일으키는 것보다는 종단 자체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임연태 기자



◇ 18일 오전8시 조계사 정문에 도착한 강석영 집행관이 길을 막고 있는 조계사 신도와 장애인들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내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고영배 기자

18일 법집행 현장

조계사 신도-장애인등 진입 저지

18일 조계사 앞길에는 이른 시간부터 경찰병력이 추가 배치되고 취재진이 몰려들어 긴장감이 감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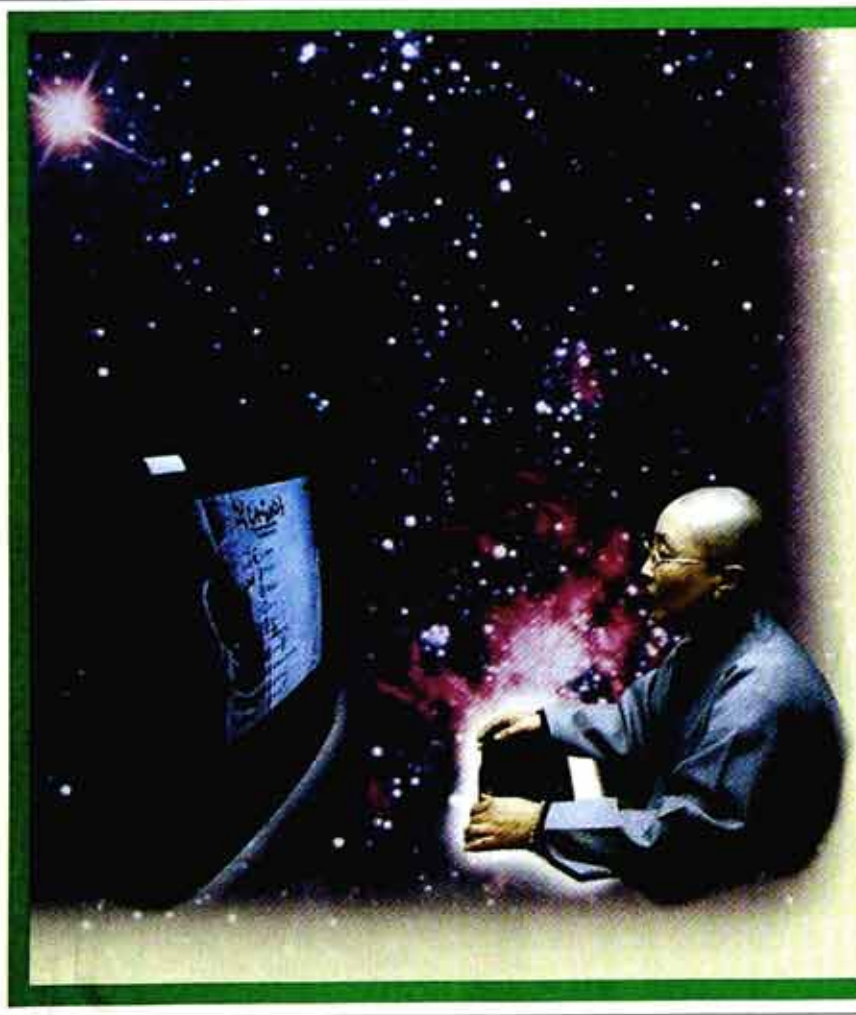
조계사 출입구는 신도와 장애인들로 봉쇄됐다. 오전 8시 집행관 일행이 도착하자 조계사 경내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장애인과 조계사 신도들은 집행관의 진입을 막았다. 조계사 안쪽에서는 스피커 차량을 통해 집행관이 물아갈 것과 총무원측을 비난하는 방송이 계속됐다. 방송은 조계사 대웅전의 방화사건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법원과 경찰의 종단문제 개입을 성토했다.

조계사 건너편 길에는 중앙종무원과 금강호법단 소속 스님 1백여명이 지켜보고 있었다.

집행관과 조계사 신도들이 9시30분께지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조계사 인근의 불구점들은 문을 열지못해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또 출근길의 시민들도 우정국로를 지나며 차선을 무단으로 넘나드는 스님과 경찰병력, 취재진들을 향해 "집안싸움으로 시민만 불편하게 한다"며 볼멘 목소리를 내 뱉았다.

이날 법집행 현장에는 2백여명의 경찰병력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배치됐으며 내외신 취재진도 60여명이 나와 조계종 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했다.

임연태 기자



현대불교신문사와 홈TV인터넷이 함께하는
불교정보화의 새로운 출발

TV INTERNET으로 만드는 사찰전산화
- 기존TV에 단말기 연결
- 컴퓨터를 몰라도 간단한 리모콘 동작으로 인터넷 가능
- 불교계 뉴스를 현재시간으로 확인
- 국내외 인터넷 정보 사용 및 불교정보 검색 가능
- 사찰에서 TV를 통한 인터넷 접속 및 전자우편 확인
- TV 인터넷을 통한 설법 듣기 가능
- 신행상담/불법공부/신도와의 대화가능
- 뉴스,홈쇼핑,경제,문화등의 다방면의 실용 정보 제공
- 화면 칼라 프린팅 지원
- 불교신자들 간의 대화 공간 제공을 통한 네트워 형성



TV INTERNET의 강력한 기능
- 비디오와 같은 손쉬운 연결
- 전화선을 이용한 PC통신보다 20배 이상 빠른 고속 인터넷 접속
- 마우스가 내장된 무선키보드를 기본 제공하여 사용의 편리성
- 인터넷망을 이용한 운영체제(CS)자동 업그레이드
- 지루한 부팅 시간없이 5초내 단시간 인터넷 접속
- 고장의 염려없이 뛰어난 안전성
- 기존의 TV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성 및 뛰어난 공간활용성

◎ 전국지사 및 대리점 모집합니다

◎ HOME TV INTERNET 구성 : 기존 TV + 수신기 + 무선키보드,마우스 (수신기 가격 : 395,000원, 부가세 별도)
◎ 인터넷망 : 케이블 TV, ADSL, ISDN, LAN, 전화선

▪ 사찰정보화 협력업체
(주)현대불교신문사 : 02)737-8881(대표)
부다피아 직통 : 02)732-1520

HOME 홈TV인터넷(주) · 주소 :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91-6 상경빌딩 3층 · 문의전화 : 02-295-6660

사 설

판결을 화합의 계기로

"정화개혁회의는 총무원 청사에서 퇴거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선 이 판결이 나오는 순간 우리 불자들의 가슴에 깊은 멍이 들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일부 종권지향적 스님들 때문에 한국불교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판결문 속에 나타나 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집안 싸움이 내부적인 일로 끝나지 않고, 사회질서를 파괴했으니 당연히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본래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갈등은 교리에 따라 초국가적인 출세간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번 법원 판결문에서도 이점을 첫머리에 강조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도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이다. 조계종단에도 종헌, 종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간법의 관단에 맡기지 말아야 했었다.

부처님의 출세간법은 비폭력과 자비정신을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총무원장 3선여부는 종헌종법에 따라 종단의 법규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원로회의가 관단할 문제였다.

결국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를 온통 세상이 시끄럽게 사회문제화 했기 때문에 법원의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된 것이다. 부처님의 법을 믿는 우리 불제자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 종교단체의 활동도 종교의 교리 사상등 내재적인 한계를 벗어나면 세간법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넘어 국법질서를 깨트리는 범법행위는 엄중히 다스리는 것이 대다수 국민을 위하는 길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법치국가이고 민주주의 사회임을 다시한번 되새기게 한다.

또 법치국가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한 집단적 이해관계보다는 국법의 준엄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도 다시 새겨주었다. 준법정신은 민주시민의 기본이다.

부처님법을 앞세워 국가의 세속법을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해서도 안된다. 더 이상 한국불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으려면 정화개혁회의는 판결대로 자진퇴거 하거나 종도 대중이 모두 환영할 화합의 묘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만약에 국법집행을 방해하여 공권력에 의한 강제퇴거를 자초한다면 또한번 우리 불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된다. 많은 불자들과 국민들이 조계종에서 등을 돌릴 것이다.

최근에 다행히도 양심있는 원로, 중진스님들이 사부대중과 국민들을 향해 부끄러움을 표시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종단의 원로스님을 비롯한 어른들이 중심을 잡고 보다 적극적인 화합의 분위기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월하 종정스님도 정화회의와 총무원측이 손을 잡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한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총무원장선거가 원만히 치뤄 지도록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

최근 조계사에서의 분규 뿐 아니라 지역본사나 말사 주지를 두고 분규조짐이 보인다는 소식에 큰 우려를 표한다. 절대 조계종 분규가 지방까지 확대돼어서는 안된다. 상처가 큰 이 상태에서 지방 사찰까지 주지자리를 놓고 분규가 난다면 한국불교의 장래는 다시는 추스릴 수 없이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다. 조계종의 상처는 한국불교의 상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처를 치유하는데 우리 모든 사부대중이 지혜와 힘을 모아 단결하고 화합하자.

조계종 사태 지원금 중단

승가교육마저 비틀

강사료도 못줘 수업 불가능…승가대 김포학사 공사 애로

조계종 기본교육기관들이 종단사태로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중앙승가대학교, 승가대학원, 화엄학림, 백상원, 혜광사, 금련사 등 교육기관들은 11월 11일 정화개혁회의의 조계종총무원 청사 접수이후 조계사 신협의 인출거부 등으로, 월 경상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일체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교육기관은 교육원에서 매달 지원하는 경상비외에는 별다른 지원창구가 없어 월동비, 부식비, 교수수업비 등 운영전반에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것.

조계사 신용협동조합은 11월 18일 "조계종 총무원의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 조계종과 관련된 기존의 예금주들은 예탁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고, 정화개혁회의측에서는 이와관련된 예탁금의 지급중지를 요청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상반되어 어느 한측의 입장만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의 상황이 끝날때까지 조계종과 관련된 모든 계좌의 예탁금을 일시 지불 중지하오니 양해 바란다"는 공문을 종무기관에 보냈다.

이같은 조계사 신협의 인출거부에 따라 총무원측 교육원은 11일 제주은행 9층 임시 사무실에서 예금인출거부에 따른 교육기관 대책협의를 가졌으나,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승가대학원의 용학스님은 "11월부터 종단 지원금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월동비는 차치하고서, 아직 학기중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강사 수급 등 수업 불가능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교육기관의 지원금 중단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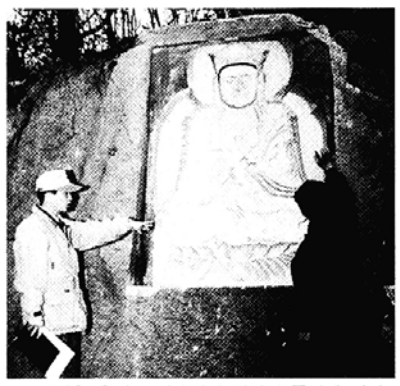
중앙승가대학교 법인사무처장 해관스님은 "승가대의 경우는 김포학사 이전공사중이라 지원금 지급이 하루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엄청난 파장의 우려가 있다"면서 "교육문제 만큼은 풀어가면서 해야지, 이 상태로는 승가교육체계가 10년 후퇴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밖에 동국대에 재학중인 학인스님들의 기숙사 백상원과 혜광사 등은 엄동설한에 월동비조차 없어 학인스님들이 자체적으로 긴급재원을 마련하며 어렵게 살림을 운영해 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은지 기자 (ejlee@buddhapia.com)

북한산 관음보살상에 망치질

공원공단 수유분소 자연보호명목 인부동원 훼불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관음보살상을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파괴하는 훼불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우이동 화계사와 삼성암 중간에 위치한 관음보살상의 파손과 관련,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 동부관리사무소 수유분소(분소장 이인형)가 인부를 동원해 15일 오후 3시경 우이동 화계사와 삼성암 중간에 위치한 관세음보살상을 파괴하는 훼불행위가 발생했다.

이날 훼불사건은 동부관리사무소 수유분소측이 '무속행위터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2개조로 정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근로요원 이모씨가 정과 망치로 관세음보살상의 코, 눈, 어깨부분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이인형 수유분소장은 "무속에 관계된 불상이기 때문에 훼손해도 관계 없지 않겠냐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파괴한 것 같다"며 실무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시인했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실은 18일 동부관리사무소와 현장을 방문 사건경위 등 감사를 실시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영기 운영부장은 "훼불행위는 과잉철거행위로서 관련직원들을 중징계할 방침이다"며 "직원교육과 단속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훼손된 관음보살상은 79년전 한 개인이 제작했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태고종 종정 덕암스님 추대



태고종 제16세 종정에 덕암스님(84세)이 추대됐다. 태고종은 15일 순천 선암사에서 중앙종회를 열고 덕암스님을 제16세 종정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덕암스님은 1914년 태어나 1930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벽산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35년 일본 대성중학교, 유점사 불교전문강원을 졸업한 덕암스님은 불교신문 총무국장,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조계종 종정 사서, 태고종 총무원장, 월간불교 사장, 태고종 불교전문교육원장, 한중불교협의회 회장, 법륜사 주지, 불교통신교육대학장 등을 거쳐 86년부터 93년까지 제13세 태고종 종정을 역임했다. 현재 법륜사 조실이면서 선암사 방장, 태고종 승정,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을 겸하고 있다.

한편, 덕암스님은 박한영스님, 방한암스님, 송만암스님, 국묵담스님, 박대륜스님, 정보성스님에 이어 태고종으로서는 7번째 종정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범불교연대회의 출범식에는 승가단체, 사찰신도회, 재가단체 등 4백여명이 참석했다.

범불교연대회의 16일 출범

종단안정 토론회 열려

종단안정과 개혁을 위한 범불교연대회의가 16일 오후 2시 동국대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스님과 불자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다.

종회의장 법등스님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범불교연대회의는 중단없는 종단의 개혁을 통해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국불교를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종단안정과 개혁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현진스님(조계종 교육부장)은 "지속적인 종단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을 범불교연대회의의 강화를 통해 구체화 시켜, 사부대중 공의의 개혁세력 결집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최연씨(대불련총동문회 사무총장)는 "종단의 진정한 개혁과 안정을 위해 이제 재가불자들이 일어서야 할때"라고 주장했다.

주제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지명스님(청계사 주지), 지광스님(능인선원 주지), 공종원씨(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백남석법사(조계종 포교사단 대표)등 토론자들은 "스님과 재가자 모두가 주체의식을 갖고, 이번 종단사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자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지방까지…

알림 TV 인터넷 불교정보사업 시작합니다

컴퓨터의 '컴'자도 모르는 '컴맹'도 인터넷을 할 수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집에서 보는 TV에 인터넷TV 수신기만 설치하면 간편하게 인터넷 검색에서 PC통신 전자우편까지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TV리모콘으로 작동하는 '인터넷 안방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불교정보화에 앞장서온 본사는 홈TV인터넷과 함께 '인터넷TV'에 불교정보를 독점 제공합니다. 또, 인터넷 TV를 통해 종단 종무행정 네트워크와 포교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을 개시합니다. 인터넷TV에 가입하시면, 종단이나 사찰의 각종 공문, 법문자료 등을 인터넷TV로 송·수신할 수있으며 불교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종단과 사찰, 불자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가입 문의: 현대불교신문 전략정보실 (02)732-1520 · 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제26차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회

이럴 때일수록 어린이 포교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노력하자. 준비하자. 드높은 세계로"

■언 제 : 불기 2543(1999)년 1월 1일(금) 오후 1시~ 3일(일) 12시

■장 소 : 속리산 유스타운 (법주사 입구)

■동 참 금 : 5만원 (군종병, 도서벽지 지도자 3만원) (2박 6식, 연수회 자료집, 기념품 지급)

■참가대상 : 어린이 지도법사 및 교사, 어린이 포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

■신청방법 : 미리 접수 (실명인 관계로 송금하신 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 송금 영수증 지참)

미리 접수하시면 · 접수시 훨씬 편리합니다. · 강의 「찬불가」 내용 수록 테이프 증정

■신청기간 : 12월 7일~23일까지

■보내실곳 : 우체국 601310-0037877-11 예금주 대불어(조중환)

■접수담당 : 정 희 순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구

■문 의 : 본회 사무국 ☎(051)808-4569, 4570 (FAX) 808-4571 PC천리안 GO BOSAL(운영자 수신편지 이용)

모시는 글

귀의 삼보하옵고

이 땅 곳곳에서 미래의 불국토를 이끌어갈 어린이 불자들에게 불심의 씨앗을 심으시는 지도자님들의 묵묵한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13년을 한결같이 어린이지도자의 연수회를 마련해 온 우리 회에서는 드높은 세계로 노력하는 지도자, 준비하는 지도자를 위한 제26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엽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처음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 지도자들에게 불자로서의 수행하는 삶을 일깨우고, 함께 하는 도반으로서의 단합을 다질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어린이 포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모여 새해 새날의 아침을 열어 가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2년 11월 푸르른 날

주 요 연 수 내 용	강 사	비 고
현대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 - 21세기 새 시대를 여는 불교		
우리는 저마다 존귀한 주인 - 지도자들을 위한 부처님 말씀	장 휘 옥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너도 나도 하나되어!	윤 재 심	한국여가협회대구인구소장 안동과학대 가정복지학과 전임교수
깨어있는 삶을 위한 수행의 길	혜담스님	각화사 주지
이야기가 있는 노래마당	김 정 민	국악인, 영화「휘모리」주연 국악예고, 국회, 각 대학강연
불교의식에 대한 바른 이해	심산스님 덕진스님	본회 이사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	지욱스님	불국사 강주
부처님 당신을 찬탄합니다.	정 유 탁	풍경소리
신나는 모닥불 놀이	박 철 수	도레미이벤트 대표
부처님 가르침속에서 찾는 새 세기의 어린이 포교	철오스님	본회 회장

각 지역 문의처

서 울 (02)433-1506~7 선재마을 지선 사무국장
부 산 (051)853-5486~7 부산지구(보현선원) 이유경
광 주 (062)365-0367 덕명사 무등스님(본회 이사)
대전·충남 (042)633-114 법동복지관 류재희 사무장
경 남 (0551)282-7201 경남지구 사무국 박영희
대 구 (016)505-3143 김형중
제 주 (064)702-1345 죽림정사 인성스님(본회 이사)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사단법인 불국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총 재 정관 ■부총재 해총 ■회 장 철오 ■상임부회장 운성
■이 사 영조 덕진 설봉 해관 원정 심산 무등 성형 지광 인성 일동

■가처분 판결 이후 맞대결 구도

정화측 주지인사 분규확대

총무원 새 집행부 구상…정화측 '교시봉행' 맞서

11일 서울지법이 "정화개혁회의는 청사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총무원측과 정화회의측의 대립이 맞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다.

승소한 총무원측은 조속한 시간내에 청사를 반환 받고 29일 총무원장 선거를 치뤄 연내에 사태해결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화회의측은 11일 판결을 거부한채 "제2 정화불사 이념을 실현할 수 있을 때까지 정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총무원과 종단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중앙종회, 교구본사주지회의가 14일 중앙선관위가 결의한 29일 총무원장 선거 실시 입장에 의견을 같이 함으로 조계종 사태는 또다른 노정을 밟게 됐다. 총무원등은 15일 종정비대위를 통해 최종적으로 "총무원장 선거를 통해 새 집행부를 구성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원칙속에 청사반환 노력과 선거체제 지속이라는 두 길을 동시에 간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총무원측이 선거일정을 전격적으로 세운데는 15일 교구본사주지회의에 19개 본사가 참여해 사법부의 판결 존중과 선거일정에 협조한다는 결의를 한 것과 7일 제136회 임시종회가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 한데서 상당한 힘을 얻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대해 정화회의측도 16일 상임위원회의를 통해 29일 이전에 총무원장을 선출하고 교구본사급 사찰과 주요말사에 대한 주지 인사도 단행한다는 입장을 세웠다. 정화회의측은 원로회의가 총무원장을 선출 또는 본사주지 추천-원로회의 인준 등의 내용으로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화회의측의 교구본사 주지 임명과 선본사등 직영사찰 해제 조치는 '세불리기'와 '재정확보'라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란게 주변의 분석이다.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빠르게 행동화 함으로써 조계종 사태는 더욱 가파른 길로 치닫고 있다. 이미 정화회의측은 9일자로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혜산스님을 해임하고 대우스님을 신임주지로 임명, 대우스님측이 선운사 접수설을 퍼뜨리는 가운데 긴장이 유지되고 있다. 정화회의측의 선본사의 직영사찰 해제도 적잖은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17일 월하스님이 다시 '담화문'을 발표해 "제2의 정화라는 신념으로 개혁불사를 중단없이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정화회의측이 그간 품어 온 '종정 교시 봉행'이란 명분에 더욱 힘을 실어 주기도 했다.

때문에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조계종 분규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화회의측이 각 본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할 경우 지역별로 사찰접수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총무원측은 금강호법단을 창단시켜 맞서고 있다.

18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집행이 무산된 이후 총무원측은 공권력의 개입을 공식요청할 계획이다. 때문에 21일에서 23일 사이에 공권력을 앞세운 법집행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공권력의 개입이 맞대결 구도를 풀 수 있는 묘약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한종단 두총무원장은 있을 수 없다"며 대화를 통한 화합을 바라는 종도들이 많다는 것과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불교 내부에서 문제를 푸는 지혜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아직 식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연태 · 정성윤 기자
(ytlim@buddhapia.com)



◇범불교도연대회의는 14일부터 매일 낮 12시 30분조계사 정문 앞 보도에서 종단질서회복을 위한 참회정진 법회를 갖고 있다.


◇조계사 신도회는 15일부터 매일 오전10시 30분 총무원 임시 사무실이 있는 천마빌딩 앞에서 대웅전 방화 규탄법회를 갖고 있다.

연내해결 '동상이몽' 인가

11일 판결은 종도의지 반영(12일)

●…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도법스님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11일 사법부의 판결은 엄격한 법 적용의 선례이자 종도대중과 국민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반영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밝혔다.

종단 중진회의 열기로(14일)

●…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회장 법장)는 14일 저녁 타워호텔에서 법장, 법타, 종걸, 보선스님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종단 중진회의를 열어 종단사태의 해결점을 모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종정교시가 사법보다 우선"(14일)

●… 정화회의 홍보실장 남현스님은 서울지법의 가처분결정에 대해 14일 "종정예하의 교시가 사법적 판단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정화회의는 11일과 12일 94년 관결을 예로 들며 "조계종단의 위계질서와 종교 고유의 전통을 파괴할 수 있는 판결로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근스님등 6명 의원직 제명(14일)

●… 조계종 중앙종회는 14일 오후 2시 봉은사에서 제137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11월 30일 승려대회 결의에 따라 55명 의원스님들의 발의와 만장일치로 정화회의측 중앙종회 의원 6명을 제명했다. 종회가 이날 제명한 스님은 현근, 정우, 성문, 법일, 현소, 원학스님 등이다. 한편 종회는 7일 봉은사에서 속개된 제136회 임시종회에서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 제29대 총무원장선거에서 기존의 선거인단을 인정하고 후보등록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진법회, 규탄법회 '공방'(14일)

●… 범불교연대회의는 14일부터 매일 낮12시 30분 종단질서 회복을 위한 참회발원 정진법회를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계사 입구 보도변에서 봉행 하고 있다.

정화개혁회의 스님과 조계사 신도 60여명도 15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30분 총무원측 임시사무실이 있는 천마빌딩 앞에서 대웅전 방화규탄법회를 열고 있다.

금강호법단 창단(15일)

●…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로 종단이 안정될 때까지 호법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금강호법단이 15일 오후2시 송현클럽에서 창단됐다. 18개 본사의 160여 스님들이 참가한 창단식에서 금강 호법단은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총단장에 신륵사주지 세영스님을 선임했다.

가처분 판결이후
조계종 사태

청사반환 법집행 요구(15일)

●… 조계종 종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총무원청사 반환을 위해 사법부에 대해 조속한 법집행을 요구하며 자구책 모색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8일 34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29일 실시될 총무원장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를 중심으로 협력하며 새 종정의 추대 문제도 풀어 나가기로 했다.

19본사 "사법부 판결 존중"(15일)

●… 조계종 총무원은 15일 정오 서울 하림각에서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열고 종단 현안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19개(대리및 위임포함) 본사주지 스님들은 △11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 △제29대 총무원장 선거 일정의 차질없는 진행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범불교도 연대회의 출범(16일)

●… 종단안정과 개혁을 위한 범불교도연대회의(공동대표 도법, 박광서 등 7명)가 16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4백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출범했다. 출범식에 이어 참가자들은 '종단 안정과 개혁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관련기사 2면>

정화회의, 선본사 직영해지(16일)

●… 정화회의는 16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상임위원 78명 중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화회의는 △선본사 직영사찰 해지 △호법분과위원장 법일스님 선임 △정화회의 기구표 및 운영내규 개정 등을 결의했다.

정화회의 '개혁 방향' 배포(16일)

●… 정화회의 기획실은 16일 '정화개혁회의 종단개혁 방향'을 배포했다. 기획실은 △수행 · 포교 중심의 종단운영 · 종정 및 원로회의 권한 강화 △본사중심제 확립 등을 제도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화회의는 '종단개혁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23일 연다.

13개 재가단체 성명발표(16일)

●… 법무부전국교화연합회등 13개 교계 재가단체는 16일 성명을 통해 "스님들은 더 이상 분쟁을 확산시켜서는 안되며, 대화로써 사태를 해결하고 화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승가대 동문회장 효종스님 기자회견(16일)

●… 중앙승가대학교 동문회장 효종스님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29대 총무원장 선거는 종헌종법에 의거해 치뤄져 하루빨리 종단 안정을 이뤄야 한다"며 "조속한 종단안정으로 중앙승가대 이전불사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월하종정 담화문 발표(17일)

●… 월하종정은 17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제2의 정화라는 신념으로 개혁불사를 중단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하스님은 "다시는 탐욕승이 종단에서 활개치는 일이 없도록 일심동체가 되어 이들을 정화하자"고 밝혔다.

서울지법 '청사 퇴거' 집행(18일)

●… 서울지법의 11일 가처분 판결에 대한 집행이 18일 시도됐으나 정화회의측과 조계사 신도와 장애인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관련기사 1면>

종단대표 "교시봉행 촉구"(18일)

●… 정화회의는 18일 종단협의회와 종정연합회 소속 종단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법상종 12개 군소종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계종 종정의 교시 봉행 촉구 등 5개항을 결의했다.

"종정 · 원로 화합안 따르겠다"(18일)

●… 정화회의는 18일 성명을 통해 "종단사태 수습을 위해 종정스님과 원로스님들이 화합안을 제시할 경우 그에 따라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며, 청사 철수문제 역시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ytlim@buddhapia.com)

조계종 사태 관련기사는 인터넷 부다피아(www.buddhapia.com)를 통해 신속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목어 종정스님께

감히 종정스님께 진언드립니다.

스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조계종의 망신살이 극에 달했습니다. 어디 한군데 가릴래야 가릴수도 없는 정도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알려져 국제적으로 망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스님의 심기가 편하시겠습니까. 여러 차례 교시도 내리시고 담화문도 발표 하셨지만 조계종 사태는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스님, 조계사는 지금 절이 아닙니다. 도량을 폐허로 만들면서까지 잘잘못을 따질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종단의 웃 어른이신 스님께서 이 싸움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루속히 승자도 패자도 없는 본래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잘잘못을 가려 경책하시기 보다 모두를 품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칼을 들이댄 앙굴리말라를 제자로 삼으셨듯이, 스님 특유의 그 온화하신 미소로 종단의 불화를 물거품 되게 해주십시오. 자식에게 매를 든 부모가 잠자는 자식의 이마를 짚으며 안스러워 하듯, 상처입은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스님의 한 말씀에 종단이 정상화 될 수 있다면 그 처방을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정화의 안건으로 거론되고 있는 총무원장선거, 사면복권등의 문제는 무지몽매한 이 다툼부터 가라앉힌 후에 풀어도 늦지 않습니다.

고무신을 손수 닦아 신으시는 스님의 꽃꽂하신 성품이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따뜻하게 대중을 제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스님께서는 화합차원에서 멸빈 또는 제적승의 사면복권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번 사태로 징계받을 스님들이 생기면 또 사면복권이 거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예 그런일 없이 종도들이 화합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십시오. 세속법이고 종헌종법이고 초법이고 따질 것 없이 스님의 한 말씀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스님, 법력을 보여 주십시오.

이제 곧 새해가 됩니다.

이 수치스런 싸움판을 내년으로 이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조계사도 더 이상 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가 가기 전에 사부대중이 도량을 정비하고 참회 대법회를 열어 국민에게 백배 사죄하고 제자리를 찾아 더욱 정진토록 해주십시오.

스님의 한말씀에 조계종의 내일이 달려 있습니다. 세속법에의 의존여부도 스님의 그 한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스님, 간곡히 청하옵니다. 사부대중의 가슴을 적실 감로법우를 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새해아침 화합대중의 세배를 받으시옵소서.

공 고

종헌 제53조 및 총무원장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 다 음 ●

1.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일:** 불기2542(98). 12. 29. (화요일) (음. 11월 10일) 오후1시-4시까지
2. **선 거 장 소:** 조계사 대웅전
3. **총무원장 자격:** 승랍30년이상. 연령 50세이상. 법계2급이상의 비구로서 총무원장 선거법 제9조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입후보자등록기간:** 불기2542(98). 12. 21-22. (2일간)
5. **입후보자등록서류:** 1) 등록신청서 1부.(선관위 양식)
   2) 호적등본 2부(원적이 표시된 등본)
   3) 이력서 1부
   4) 사진(반명함판) 5매
6. **입후보자등록장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종회 사무처)
7. **선거권 자격(선거권자):** 중앙종회의원 및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된 선거인단
8. **문 의 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02-735-5860)

불기 2542(98). 12. 14.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덕 운

교차로 출가



정토사 청담불교재단에 기탁

설산 정토사 주지는 종로구 평창동 소재 정토사와 부속재산 일체를 청담스님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청담불교문화재단에 기탁했다.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 캠페인

현성 청소년교화연합회장은 19일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청소년불자와 관련단체장들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 개최

월파 통도사 주지는 19일 오전 10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불법중흥을 위한 화엄산림대법회를 5백여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자원봉사자·후원인 송년의 밤

도후 구로종합사회복지관장은 18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해인강원 동문회 정기총회

태원 해인강원 제12회 동문회장은 17일 해인사 길상암에서 98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동남아 노동자 송년의 밤

심산 통도사부산포교원 주지는 20일 오후 5시 동남아 불자 노동자들을 위한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능인선원 개원 14돌 기념법회

지광 능인선원 주지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대웅전에서 개원 1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통일염원 '제야의 종' 타종

장산 부산 동명불원 주지는 1999년 새해아침 민족통일 국토통일을 염원하는 제야의 종소리를 31일 밤 11시부터 거행, 자정에 타종식을 한다.



생보자등 무료법률상담

진흥 중리종합사회복지관장은 21일 오후 2시 복지관 2층 상담실에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서울 녹번동에 달마선원 개원

도각 한국불교청년회 마음의 전화 회장은 서울 녹번동 24-10번지에 달마선원을 개원, 26일 오후 2시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달마선원은 청소년들의 선 심리 지도와 명상 수련도량으로 활용된다. (02)382-4787



"북녘산하서 느낀 통일염원 詩로"

'고은 시의 밤' 성황

16, 17 이틀간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공연된 '고은 시의 밤-산하여, 하나의 산하여'는 분단의 아픔과 민족통일의 염원을 노래한 민족시인 고은의 절절한 '사랑'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이번 행사는 두 달간 북한을 기행하면서 쓴 시를 발표하는 자리. 고은 시인은 시작(詩作) 40년의 회한을 담은 '나의 시'를 비롯해 통일의 염원을 담은 '금강산'과 '묘향산' '만월대' '왼산 송도원' 등 우리 산하와 보통 사람들에 대한 애정어린 눈길을 담은 10편의 시를 낭송했다. 고은 시인의 시낭송 중간중간에 국악과 가요공연이 함께 했으며, 고은시인과 함께 금강산을 다녀온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교수의 설명으로 금강산의 모습을 담은 슬라이드 상영도 이어졌다. 또 시인 안도현과 도종환이 특별출연해 무대를 빛냈다. 시낭송이 이렇게 종합예술적으로 공연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고은 시인은 "자리를 가득메운 관객들 앞에서 통일의 벅차 오르는 감정을 또다시 느꼈다"며 "놀라운 통일이 아닌 익숙한 통일을 염원하고 그 통일의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었다"고 이번 공연의 의미를 밝혔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장애인 도울 식량·의류·학용품 절실"

'캄'서 구호활동 경일스님



캄보디아 문화종교부 인가 자선구호단체인 한·캄 불교센터 대표 경일스님(제천 청해사 전 주지). 지난 5년 동안 매주 한번씩 캄보디아 프놈펜 시 장애자 1천여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해 오고 있는 경일스님은 구호물자 마련을 위해 지난달 일시귀국했다가 15일 출국했다.

스님은 "캄보디아에는 1970년 킬링필드 사건과 당시 UN군이 설치한 지뢰 등으로 인해 생겨난 고아와 장애인들이 80만명에 이른다"며 한국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원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을 보고는 그냥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는 스님은 양수기와 펌프를 사 당장 급한 식수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지난 5년 동안 무료급식을 실시해 오고 있다.

스님은 "캄보디아에는 식량과 의류외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학용품과 가방, 신발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뜻있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018-611-4278, 캄보디아 001 또는 002)855-18-820-008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인터넷 화상법회 추진"

加 대각선원 양일스님



캐나다 대각선원 주지인 양일스님이 지난 5일 자료수집차 일시 귀국했다.

"내년 3월부터 캐나다 대각선원, 뉴욕 원각사, 필리핀 대각선원, 영국 마하보리소사이어티 등을 연결해 인터넷 동시 화상법회 열 계획"이라는 스님은 "이미 인터넷 사이트(www.ninemountainszengate.on.ca)를 개설해 대각선원에 대한 소개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현재 스님은 미국 뉴욕 맨허탄에 불교회관 건립 불사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봄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16일 출국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남을 위한 삶 살아 보세요"

'자원봉사' 서울시장상 김규순 보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남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와 자원봉사는 저의 수행방편이죠."

19일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가 19일 숭실대에서 개최한 자원봉사자대회에서 서울시장상을 수상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간병봉사단원 김규순(60·법명 원덕화) 보살. 김보살은 사회복지재단 간병봉사교육 7기 수료자로서, 지난 95년 2월부터 현재까지 국립재활원에서 매주 화요일 환자 목욕시키기, 시트교환 및 빨래, 운동보조 등의 자원봉사를 변함없이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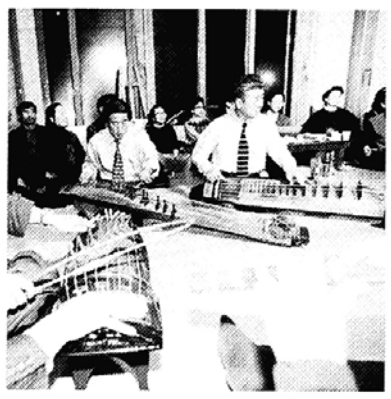
김보살은 환갑이 지난 나이에도 4년간 조계사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1천배 이상의 절을 해온 원력보살. 지난 94년 병석에서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를 한번도 목욕시켜 드리지 못한 것이 한이 돼 기도와 자원봉사에 몸과 마음을 바치기로 했다.

타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국립재활원에서 온갖 마음고생을 겪으면서도 타종교인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헌신적으로 자원봉사를 했다. 자원봉사의 전문화를 위해 수효사에서 '성훈따주기(침술)'를 배우고, 미용기술도 익혔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 내내 쉴 틈이 없다. 김보살의 원찰인 서울 상계동 보문사 주지 스님이 "나이를 생각해 이젠 쉬라"고 권하지만 4~50대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며 즐겁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을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자신의 변화되는 모습을 느낄 거예요."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피아노와 국악기가 만나면…



서양악기 피아노와 한국악기인 대금 거문고 등이 만나면 어떤 색깔의 화음을 빚어낼까?

15일 경기도 안성 풍곡마을에 위치한 불자 음악인 임동창씨의 집에는 국내 유명국악인들이 총출동했다. EBS FM(104.5MHz) '우리가락 노랫가락'(PD 신장식)이 27일 오후 2시 송년특집으로 방송할 피아노연주와 우리가락을 접목시킨 '임동창의 피아노 풍류방' 녹음을 위해 마련한 자리.

이날 녹음현장에는 대금의 명인 이생강씨와 아쟁의 달인 백인영씨 등이 임씨의 피아노반주에 맞춰 샹송 '눈이 나리네'와 영화 '러브스토리'의 테마곡 등을 연주해 자리를 가득 메운 관람객들 마음을 사로잡았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中불교협 신재부씨 별세



중국불교협회 신재부 부비서장이 11일 6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중국 문화혁명 당시에 조선족 민족운동을 하다가 투옥되기도 했던 신씨는 한국과 중국간의 불교교류를 위해 가교역할을 해왔다.

교차로 재가

국악원서 구순축하공연



김천흥옹(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은 16일 오후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구순 축하 공연을 가졌다.

법사회 사무실 이전 개원



목정배 대한불교법사회 이사장(동국대 교수)은 법사회 중앙법당을 서울 성동구 성수1가 2동 656-1238로 이전, 20일 이전개원 대법회를 봉행했다.(02)499-1671

종교협 창립 33돌 기념식



이재석 한국종교협의회장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종교협의회의 역사와 전망 을 주제로 창립 3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김생 서예대전' 심사위원에



조기동 용곡서예원장(광주 금강사 신도회장)은 최근 김생추모 전국서예대전 심사위원장에 추대됐다.

우리는선우 송년 법회



박광서 우리는선우 대표는 17일 우리는선우 사무실을 장충동 1가 34-7번지 오양빌딩 2층으로 이전하고, 29일 오후 5시 이전 기념 겸 송년법회를 봉행한다. (02)278-8672

통일문제 주제 문화강연



이배영 남북문화교류협회 중앙회장(은평구청장)은 15일 서울 은평구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적 시각에서 본 통일문제를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저시력인 능력개발따 개소



미영순 정치학박사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 쇼핑타운 3동 3층 35호에 '저시력인 능력 개발연구회' 사무실을 개설, 99년 1월 5일 개원식을 갖는다. (02)265-3303.

부산불교교육원 동문의 밤



성재도 부산불교교육원장은 19일 코리아나 뷔페에서 동문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대불청 부산지구 회장에 유임



김수현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은 17일 부페시티에서 가진 제23대 임원 추대식과 송년의 밤 행사에서 차기 회장으로 유임됐다.

현대문학상 수상자에 선정



장석남 시인은 14일 월간 〈현대문학〉이 주관하는 제44회 현대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9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4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 반야사상·법화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남수영(동국대교수) ·계환스님(동국대교수) ·김상현(동국대교수) ·묘주스님(동국대교수) ·장휘옥(동국대교수) ·박 종(불성개발연구원장) ·권탄준(동국대교수) ·보각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 불교상담론	·암도스님(교육원장) ·권기종(동국대교수) ·혜원스님(동국대교수) ·윤열수(동국대교수) ·종석스님(승가대교수)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최봉수(동국대교수) ·주명철(동국대교수) ·정병조(동국대교수) ·오국근(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98년 12월 15일~99년 2월 5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회관 및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 학 일 시 1999년 2월 6일(토) 오후 6시 (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 서 보 급 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042)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1999년 청암사 승가대학 입학시험 공고

청암사 승가대학에서는 1999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 사미니과 OO명
■ 시험과목 : 면접,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사미니율의
■ 구비서류 :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승려증 사본 은사스님 추천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증 양면복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본인(법명) 도장 및 사진(3×4cm) 4매
■ 준 비 일 : 가사(오조), 장삼, 필기도구
■ 도 착 일 : 1999년 1월 26일 화요일(음력 12월 9일) 오후 5시
■ 시험일시 : 1999년 1월 27일 수요일(음력 12월 10일) 오전 9시
■ 연 락 처 : 경북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688번지 청암사 승가대학 ☎ (0547)437-0038
■ 교 통 편 : 김천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오전 (7시 35분, 8시 40분, 10시 10분, 11시 50분), 오후 (2시 20분, 3시 20분)

※ 자세한 문의는 전화요망

불기 2542년 12월 23일

청 암 사 승 가 대 학 장 지 형

직장직능단체

세밑 자비행 '훈훈'

장애인 휠체어 보시 · 고아원 성금 전달
군부대 위문 · 복지시설 난방비 후원도

'얇아진 월급봉투 자비행은 듬뿍.'

세밑한파를 녹여주는 직장 · 직능단체들의 자비행이 활발하다. 이들 단체는 부산불교운전기사회 수원교도소불심회 하이텔 · 천리안 불교동호회 보현가족 심우회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 서울은행 불자회 한일은행 불자회 등이다.

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백봉도)는 27일 장애인들에게 이불등 겨울나기 물품 전달식을 갖는다. 이에앞서 부산운전기사회는 택시에서 팔아온 껌판매수입금 3백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KBS에 기탁했다.

수원교도소 불심회(회장 심재환)도 7일 경제난으로 벌금을 못내 수용된 재소자에게 벌금을 변제해줘 출소케 했고 연말연시에는 회원들이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어내 모아온 기금을 평택고아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심재환회장은 "조계종사태로 인해 회원감소등 애로가 있지만 바깥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생각으로 봉사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하이텔불교동호회 칠연회(회장ID 홍혜경)는 연말을 맞아 장애인들의 휠체어교환 행사를 준비중이다. 칠연회는 현재 기금마련을 위해 황토찜질방석을 판매중인데 이 방석은 최승호씨가 무상으로 칠연회에 내놓은 것으로 1개당 1만원 전액이 칠연회 기금으로 사용된다.

천리안불교동호회 보은회(회장ID 푸른하늘)는 장애인을 위한 점자경전 입력작업을 마무리한뒤 불교장애인모임인 원심회에 전달할 예정. 이번 입력되는 점자경전은 민족사의 〈유마경〉으로 20여명의 회원이 참가하고 있다.

고양시 보현가족(지도법사 한연수)은 27일 9사단 늘푸른법당에서 올해 마지막 신병위문법회를 갖는다. 보현가족은 이날 신병들에게 위문품도 전달할 계획이다.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13일 강원도 2사단 21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위문법회를 개최했다. 심우회는 이날 난로, 보온물통등 난방물품을 보시했다.

한편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장 하용이)은 11월 29일 연꽃마을을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과 겨울난방비를 전달했으며 산하 한일은행과 서울은행도 각각 불우시설을 방문해 성금을 보시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청와대불자회는 11일 길상사 대웅전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마음 수련으로 경제난 극복하자"

청와대불자회 송년모임

청와대불자회(회장 김태동 정책기획수석) 송년모임이 회원들과 교계 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길상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지관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은 법어에서 "경제환란이 와서 어려운 것은 아니다. 국민소득이 낮아도 귀한줄 알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면 어려움은 극복된다"며 "진정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마음을 바꾸고 정신력을 키워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태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송년법회를 계기로 모든 회원이 신심이 고취되기를 희망한다"며 "내년부터는 길상사를 근본도량으로 교리강좌와 시민선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기관의 불자회와 유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은 동광스님(도선사주지)의 축사와 세민스님(삼성암주지)의 의식집전으로 청와대불자회의 발전을 기원하고 정진수행을 다짐하는 촛불의식을 가졌다.

위영란 기자(yryui@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석불문화硏 송년회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는 12일 이화-삼성문화회관에서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근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작스럽게 닥친 한파는 우리가 우리를 알지 못하고 방만한 생활태도에서 기인했다"며 "지금부터라도 온고지신의 심정으로 옛것을 배워 새생활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 행사는 정경숙 교수의 '세계사람들이 사랑하는 돌이야기' 강연과 세미나 활동 및 답사보고에 이어 2부에서는 고전무용 태평무, 시나위춤, 크로마하프 합주단, 판소리, 현악4중주단, 남도창을 감상했다.

금강산악회장 윤부윤씨

서울 금강메아리산악회는 6일 포천 백운산에서 신 · 구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사진).



최혜명법사의 집전으로 열린 이날 이 · 취임법회에는 손현수총재, 윤부윤 새 회장을 비롯한 회원 1백여명이 참가했다. 한편 김대원 前회장은 전국불교산악인련 중앙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부산연등회 소식지 창간

국민회의 부산 · 경남연등회(회장 사상호)는 10일 소식지 '새연등'을 창간했다.

타블로이드 8면으로 발행된 '새연등'에는 혜암스님(조계종 원로의장)의 법문과 연등회 소식, 불자수상 등의 내용이 실려있다.

동불라이온스 회장 취임식

동불라이온스는 19일 김성호가이딩(불교미술관원장)을 비롯한 1백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윤천수회장(前 동국대 불교대학원 1기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부산교사불자회 수련회

부산교사불자회(회장 양원식)는 5일부터 6일까지 부산 해운정사에서 제2회 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련회에서 참가회원들은 108배 기도정진, 참선, 강연 및 토론회 등에 참가했다.

대구산악회 임시총회

대구불교산악회(회장 장병국)는 23일 대구 동인동 대지식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대구불교산악회는 20일 울진 백암산에서 산행법회를 가졌다.

탐방 자민련불자회

"동체대비 실천 나라발전 기여"

95년 창립…회원 52명
매달 법회…가족중심 포교
출판 · 문화사업도 추진

"화합과 용서에 바탕한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기대하며 이타의 수행이 참으로 절실한 때입니다. 문명적 병폐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불교의 화쟁사상을 펴나가겠습니다."

자유민주연합불자회 송년법회에서 박철언회장(자민련 부총재)은 불교정신에 바탕하여 경제난을 극복하고 21세기 선진조국 건설에 매진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인곡(태고종 총무원장) 성초(진각종 통리원장) 명도(법왕종 종정) 국성(천태종 총무부장) 덕수(삼광사 주지) 초격(광명선원 주지)스님, 김용채 정상국 자민련고문, 현경자전의원, 불교방송 성낙승사장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가했다.

자민련불자회는 95년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동체대비로 정혜결사하여 불국정토를 성취하자"는 취지로 주양자 부총재 등 3백5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갖고 여법하게 출범했다.

그런만큼 자민련불자회는 착실하게 법회를 개최한다. 이는 수행공덕을 베풀어 국가와 당의 발전을 이루는데 앞장서자는 창립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현재 자민민불자회는 중앙회에 14명의 의원과 38명의 중앙사무처 직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달 1회 권주홍, 조정길법사의 주도로 자민련 강당에서 법회를 갖고 있는 자민련불자회는 사무처 직원, 지구당 당원과 가족을 중심으로 포교전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의한 불사의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자민련불자회는 11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송년법회를 개최했다.

자민련불자회는 제 2차 사업으로 수련회등 연수활동을 강화하고 출판 문화사업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최성식(자민련 직능부장)총무는 "정당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치지 못했다"며 "앞으로 회원간 단합을 강화하여 국민과 당에 보탬되는 불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새불교승가회 실직자돕기 '쌀모으기'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공동의장 진관 석담)는 13일 능인선원에서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 실직가정의 겨울나기를 위한 쌀모으기 법회'를 봉행했다. 의장 진관스님을 비롯한 선재 도관 종진 혜도스님 등 회원스님들이 직접 수거법회에 나선 이날 행사에서는 40kg짜리 80가마가 모아졌다.



동국대총동창회 '동국인의 밤'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황명수)는 17일 소피텔 앰버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27회 동국인의 밤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태근 북미주총동창회장에게 감사패가, 지부지회 활성화 및 등문단합에 기여한 공로로 김상도 (주)협성철강 대표이사 외 41명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또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영화배우 박신양씨에게는 축하패가 수여됐다.



불자성악인 '찬불가의 밤' 개최

대구경북불교음악인협회(회장 이달철) 소속 성악가 8명은 12월13일 오후 6시 대구 대덕문화전당에서 결식아동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찬불가 성악인의 밤'을 개최했다. 불국사합창단홍순지씨, 천태종 풍락합창단 정무시씨, 진각종금강합창단 임익선씨, 한마음선원 송언합창단 김해경씨 등 참여 지휘자들은 '청산은 나를 보고', '산사의 아침', '우리도 부처님같이' 등 찬불가와 가곡 20여곡을 선보였다.



불기협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14일 등산교육관에서 제2회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을 가졌다. 임연태기자(현대불교)가 대상인 선원빈기자상을, 기획보도부문에는 조병활기자(불교신문), 사진보도부문에는 홍은미기자(주간불교신문), 공로상에는 법보신문 노동조합이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곤 조계종중앙신도회장 직무대행 공종원(前 조선일보논설위원) 윤청광(작가)씨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공 고

본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에서는 전국에 계시는 전 종도, 주지스님 및 사승 법사님께 알립니다.
본 종에서는 종헌 제3장 종법 제1호 승려법 제 18조 종법 제2호 신도법에 의거 소지하고 계신 승려증 및 법사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분들은 해당교구 종무원 및 총무원에 금년 12월 31일까지 필히 재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경과후 누락되면 재적의 불이익이 있으니 한분 빠짐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2(1998)년 11월 27일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

신고처 총무원 (02)394-9468~9 FAX. 395-9468

서울교구 (02)523-2566 FAX. 584-3905
인천교구 (032)885-0677 FAX. 888-0677
경기북부 (0351)876-6123
경기남부 (0343)73-5015 FAX. 73-5015
강원교구 (0361)241-2075
충북교구 (0431)50-5806
충남교구 (0458)37-1206 FAX. 37-5746
대전교구 (042)282-0731
경북교구 (0572)33-1138
대구교구 (053)653-8583,7 FAX. 653-8583
경남교구 (0556)72-1097
부산교구 (051)312-3777. 322-5918
전북교구 (0652)253-3188, 73-0303
전남교구 (062)261-0108
제주교구 (064)94-6861, 3088
울산교구 (0522)68-5565

訃 告

대한불교조계종 계림사 주지 明倫 大宗師께서 佛紀 2542年 12月 15日 午前 6時 25分 김천 계림사에서 涅槃하시었기에 玆以訃告합니다.

불기 2542년 12월 15일

- 永訣日時 : 불기 2542년 12월 17일(음력 10월 29일)
- 永訣式場 : 경북 김천시 개령면 동부동 434 계림사
- ■시 봉 : 동운 쾌현 지유
- ■연 락 처 : 김천 계림사 (0547)436-5048

문도대표 명 우

해명촉구서

본사 사정에 의하여 교무 · 포교 두 스님을 12월 3일자로 경질한바는 있으나 **산문출송**이라는 터무니없는 말로 조계종보에 게제한 관계자는 **산문출송**이라는 어휘를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이래서야 이 종단에 정의가 설 수 있겠는가?
또한 관계자는 종도들에게 사과하고 해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
본사주지로서 오보된 내용을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산문출송**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두 분(허운 · 지거)스님께 사과말씀드립니다.

불기 1998년 12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 9 교구본사
동 화 사 주지 성 덕

이렇게 들었다 — 국방 "방중한 마음 만백성을 불안하게"

우리의 국방체계에 구멍이 뚫렸다. 해군이 우리 영해에 침투한 북한 간첩선을 눈앞에서 놓쳤는가 하면, 미사일이 계기 이상으로 발사돼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훈련중 쏘아올린 조명탄이 민가에 떨어져 민간인이 부상을 당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잇달았다. 게다가 우리 병력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북한 초소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한 젊은 장교의 죽음을 정확한 원인조차 밝혀내지 않고 묻어버린 사실은 우리 군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다.

군은 엄정한 규율과 원칙을 생명으로 삼는 집단이다. 군의 단 한번의 실수는 곧바로 우리 국방에 치명상이 될 수도 있다. 국방의 기틀이 튼튼할 때만이 국가의 기본틀이 제대로 유지된다. 국방과 관련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자기를 사랑하려는 사람은 적이나 도적이 쳐들어 오기 전에 성문과 국경을 잘 지키듯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야 하나니 평소에 자신을 잘 다스리고 지키지 않다가 난리와 도적을 만나면 고통과 두려움은 더욱 심하리라.
〈별역잡아함경〉

▨3종업륜(三種業輪)이란 군인들에게 전투의 기능을 잘 가르쳐 외침과 내란을 항복받아 인연들을 포육(抱育)하는 것이고, 집짓고 농사짓는 일을 국민들에게 잘 가르쳐 주식(住食)을 충족케 하는 것이며, 종업과 상업을 인민들에게 잘 가르쳐 여러가지 도구와 재물을 뜻대로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대승대집지장십륜경〉

▨차라리 목숨을 버려 죽음으로 달려갈지언정, 마음을 방종히 가져서 그 계율을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만약 사람이 목숨을 버리는 경우에는 다만 일생을 파괴하는 데 그치거니와, 계를 깰 때에는 백만생에 걸쳐 악도에 잠길 것이기 때문이다. 〈대승계경〉

▨통치자의 첫째 의무는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백성의 어버이로서 그 백성을 법으로 보호한다…전륜왕은 모든 왕국의 군주가 되고, 그 왕국들은 다 그 정도(正道)에 따라서 제 백성을 안전하게 하고 불법에 따라서 의무를 다했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작은 악을 대단치 않게 알아 재앙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물방울은 작지만 시간이 흐르면 차츰 큰 그릇을 채우고 만다. 〈열반경〉

▨나라를 세우는 기초로 다섯가지 공포(恐怖)를 없애는 방법이 있다. 임금이 순박해서 조심성 있고 과세기준이 평등해서 '국왕에 의한 수탈의 공포'가 없는 것, 군인은 충절이 있고 현명하여 욕심내지 않는 것을 신조로 하되 '왕의 측근이 협박한다는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 관리가 그 직분을 지키고 은혜와 관용의 정신으로 충만해 있어서 '혹사로 고통받는다는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각자 모두 도리를 지켜 겸양하므로 나라에 왜곡된 일이 없어 '도적의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웃나라와의 관계가 평화로와 교류가 잘 이루어지므로 '침략의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즉 수탈 협박 혹사 도적 침략의 공포가 있으면 국민들은 불안해 한다. 〈화엄경〉

▨5종대사(五種大事)는 만민을 영도함에 소극적이어서는 안되고 장군과 사병을 잘 양육하여 지위를 주고, 본업을 잘 닦아 복덕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충신들의 간언을 잘 받아들여 정직이 손상되지 않게 하고, 탐욕과 즐거움을 절제하여 방일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법구성전경〉

▨만일 어떤 왕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왕의 국토안에 많은 안락이 있게 되기를 원하거든 국토 안에 사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다 쾌락을 성취하게 하고 원하는 바를 만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 밖의 모든 적들을 항복시켜 온 국토를 잘 보존하고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원하거든 중생들의 공포를 없애주어야 한다. 〈금광명경〉

▨방종한 마음으로 사업에만 집착하여 오욕에 빠져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은 물고기가 그물에 들어가 괴로움을 당하듯이 자신의 과보있음을 외면하고 교만하다가 그 업이 다하면 눈물지으며 큰 고통받으리라. 〈별역잡아함경〉

"제정신으로 돌아갑시다"

제언 ㊤ 대원사주지 현장스님

조계종사태와 관련해 전남담양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이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글을 보내왔다. 현장스님은 조계종사태의 근본원인을 '정화유시'로 대표되는 이승만정권의 불교정책과 자체 정화를 성공시키지 못한 불교 내부의 지도력 부재라고 지적하고 경전과 율장에 의거한 불교정신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2회로 나눠 현장스님의 글을 싣는다. 〈편집자 주〉



1. 조계종 폭력의 뿌리

"욕심을 버리라고 설법하는 스님들이 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감투싸움만 하고 있습니까?"

"아, 그것은 욕심을 버리고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설법했지만, 그 말을 듣고도 실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저렇게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모든 국민들에게 형편없는 저질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삼세인과와 육도윤회를 믿지 않으니까 끝없이 욕심을 부리다 자기 몸을 불태우는 아귀 세계와 독선과 투쟁으로 날을 새우는 아수라 세계를 저승의 심판관 염라대왕(조계사 덕왕전)을 증명으로 모시고 '삼악도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한바탕 연극 무대를 열어서 전세계에 생중계를 한 것 같습니다."

분통터지는 가슴을 달래며 불멘소리로 항의하는 불자들에게 들려주는 억지 답변이지만 요즘의 종단 사태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이 오지 않는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불교만큼 비폭력과 관용을 으뜸가는 덕목으로 내세우는 종교는 없다. 그것은 불교의 역사와 불교도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중국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긴 티벳 망명정부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자기 국민들에게 설법한다.

"중국은 우리 티벳을 침략하여 사찰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인욕의 소재와 인과의 교훈을 주는 스승의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숙한 종교인은 자기의 가까운 가족과 이웃뿐만 아니라 자기를 해치는 원수까지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나라를 되찾는 것만이 독립이 아니라 탐·진·치 삼독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독립임을 알아야 합니다."

비폭력과 관용의 불교 정신을 세계의 지성인들에게 심어가는 달라이 라마는 198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4억원 가까운 상금을 아프리카의 기아 난민을 위해 보내주었다.

"티벳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왜 티벳을 위해 쓰지 않는가?"하는 기자의 질문에 "물론 우리 티벳도 가난한 사람이 많지만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구촌에는 굶어 죽는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평화를 위한 이 상금은 마땅히 그 사람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지식인들은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과 실천행에서 세계 평화의 비전과 행복의 열쇠를 발견하고 그 가르침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국 불교만은 불교 정신과는 정반대되는 독선과 폭력, 끝없는 탐욕의 모습을 연례 행사처럼 국민들 가슴에 심어 주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불자들은 불교 조계종의 끝없는 분쟁을 '불교 정화의 업보'라고 말한다.

2. 기독교의 선교전략 불교정화

조선 5백년 동안 정책적으로 천대받던 불교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본화되었다. 일본화되었다는 것은 독신 비구의 전통이 끊어지고 처자식을 거느린 대처승이 사찰주지를 독점했다는 뜻이다. 조선총독부에서는 1911년 사찰령을 제정하고 31본산 제도를 만들어 본산 주지는 총독의 감독을 받게 하였다. 또 결혼하지 않으면 주지자격을 주지 않았다.

그런 모습으로 해방이 되었으나 이승만 정권은 무슨 속셈인지 "왜색승(대처승)은 중이 아니니 절에서 나가라"는 특별담화문을 '대통령 유시'로 1954년 10월부터 1955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발표하였다. 당시 절이 1천7백개라면 비구승은 3백여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30년 이상 사원을 운영 관리해 온 주인들을 정치권력이 앞장서서 절에서 떠나게 하고, 들어오지 말라는 '담화문'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발표하였다.

그 당시 공부할 도량 하나 구하지 못해 찬밥 신세로 설움 받던 비구승들은 이번 기회야말로 한국 불교의 수행전통을 회복하고 사찰을 정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비구승 대회를 소집하게 된다. 그리고 몇몇 급진적인 비구승들은 공권력의 힘을 믿고 불교정화라는 명분으로 '말도 안되는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그 지겨운 절뺏기 싸움을 일으킨 것이다.

영국의 지배를 받던 인도의 민중들은 "우리도 무장을 하고 폭력을 써서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하고 간디를 설득했지만 간디는 반대하였다. "물론 폭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영국을 물리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키운 폭력은 결국 자기 자신과 우리 국민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간디의 표현대로 불교정화(?)를 이룩한 조계종은 끝없는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교 자신을 망치고 있다. 중생 제도의 불교가 중생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불교 정화에 불을 당긴 이승만 정권의 담화문은 어떤 속셈에서 나왔을까? 큰 이유는 두가지인데 첫째는, 자유당의 영구집권 음모와 둘째는, 기독교의 선교전략이 그것이다. 그 당시 기독교의 선교정책은 한국에서 단군 숭배와 단기를 철폐하고 설날을 없애고 우상숭배 집단을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방이후 남한은 미군정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미군정은 인사등용 원칙에서 미국 유학 경력과 기독교인들을 중시하였는데, 이승만 정권은 그 방식을 그대로 자신의 내각에 적용시켰다. 그리고 그 자신이 철저한 기독교인이었다. 그의 내각에서 상공부장관과 제헌의원을 지낸 임영신은 '한국 불교도들의 기독교 신앙으로 전향하는 길'이라는 주제 논문으로 1931년 9월 미국 남가주대학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얻은 사람이다. 그녀는 대한교육연합회 회장을 세차례 수행하면서 한국의 교육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조계종 분종 '대통령 유시'서 비롯
비폭력은 불교의 최고 덕목

조계종사태 독자의 소리

총무원 기능 축소해야

어느 종교학자는 일련의 조계종사태로 불교의 교세는 적어도 10년 이상 후퇴했다고 논평하면서 불교의 종교적 기능이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렀다고 했다.

한꺼번에 수백만의 신자들을 추풍낙엽처럼 떨어뜨리지 않게 할 수 없을까. 수행과 전법에 전념하고 있는 상당수 스님들을 파렴치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본다.

첫째, 총무원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총무원장의 직위와 권한을 본사 주지급 정도로 낮추어야 한다. 총무원, 총무원장이 교단을 수호하기는커녕 이로 인해 교단이 망치는 꼴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둘째, 폭력을 휘두르거나 종단화합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승려들을 종단으로부터 내쫓아야 한다. 파화합승은 바라이죄로서 엄히 다스려 일벌백계해야 한다.

셋째, 새로 들어오는 행자들을 한곳에 집합시켜 6년 이상 교육을 시키면서 문중 위주의 무질서한 기성 종단에 물들지 않게 해야 한다. 정신이 바로 박힌 후배들이 잘못된 선배들을 경책할 날이 빨리 와야 한다.

수백억의 시줏돈이 선거와 총무원 유지에 쓰여지다니 분통이 터진다. 이제 스님들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 본사들이 제각각 힘을 모아 도시마다 포교당을 짓고 복지원을 건립하는 건설적인 곳에 삼보정재가 쓰여져야 한다.

우학〈스님, 영남불교대학장〉

불교 아끼는 이 누구인가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불교신도이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조계종사태를 인터넷과 이곳 신문을 통해서 접했다.

종단의 갈등을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했으면 한다. 종단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되기 때문에 성명서, 승려대회, 규탄대회, 사부대중간의 서로 헐뜯음 등 이러한 일들은 안했으면 한다. 불교는 어디까지나 출세간법이다. 세간의 법을 동원해서 해결하지 마시고, 부처님법을 의지해서 모든것을 해결했으면 한다.

불교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정부도 언론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불제자인 우리 사부대중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끌어들이지말고, 서로 헐뜯지말고 불교 내부에서 조용히 빨리 해결했으면 한다. 박원희〈아르헨티나 고려사 신도〉

사태 냉정히 바라보자

육조 혜능대사의 화두가 생각난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한 무리는 깃발이 움직인다고 하고, 다른 무리는 바람이 움직인다 한다. 이때 혜능대사는 그대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했다. 작금의 조계종사태를 두고 서로 욕한다. 그르다 하고 신자들도 바람따라 흔들린다. 그러다보니 아이싸움이 어른싸움 되고, 동네싸움 되듯이 싸움이 점점 커진다. 불교도들이시여, 우리 무관심하자. 차디찬 얼음처럼 냉정하자. 일관〈하이텔〉

언어폭력 위험수위 넘어

무엇 때문에 종권의 나팔수 노릇을 저토록 열심히 할까? 신문광고, 유인물, 통신 할 것 없이 총력전이다. 보아하니 종단화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종권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억지를 부리거나 말을 바꾸는 건 보통이고, 언어폭력과 인신공격이 위험수위를 넘은 지 이미 오래다. 종권이 그렇게 좋은가?
김석철(희정)〈하이텔〉

◆ 대 중 공 사 ◆

본란은 98년 11월 분열된 조계종의 모습으로 인해 실추된 한국불교의 위상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만 있는 사부대중의 의견을 모아 정법 수호의 발판으로 삼고자 현대불교 신문에서 마련한 의견 광고지면입니다.

▶불교발전을 위한 의견 광고접수

TEL 02)737-8881
732-1522
FAX 02)737-0697

사부대중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를 일러 대중이라 함인데, 어찌 비구들만의 싸움으로 대중의 화합을 해치는가.
- 지 청 -

집안단속 하옵소서

다 아는 서양철학자가 말하기를기독교가 불교를 이기려고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 했는데, 스님들이 신통(심통)을 부려서 계란이 철퇴가 되고 바위가 두부로 변해가니 부처님 응신하셔서 집안단속 하옵소서
-선호-

알립니다.

우리나라 스님들, 산중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시는 세간에 나오지 마십시오.
-조민선-

도?돈?

'도'와 '돈'이 너무 가까운 한국불교.
-구 법-

불교가 흥할려면

불교가 흥할려면 돈오돈수, 돈오점수 논쟁이 흥해야되고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이 흥해야되고,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흥해야되고 나와 자연과 이웃은 하나운동이 흥해야되며, 돌사자의 울음소리를 듣는 스님이 많아야 된다.
-유재욱-

본분사

존경하는 스님, 하루빨리 본분사로 돌아가십시오.
-본분사-

가슴이 쿵하네요

불교에는 조계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 조계종이 잘못하면 다른 종단으로 신도가 몰려야 할텐데 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지 가슴이 쿵하네요 정말로
-심 밀-

그냥 놀고 있어요

부처님말씀이 담긴 책, 음반이 하나도 나가질 않아 그냥 놀고 있어요. 누가 스님좀 말려줘유
-윤상수-

문제의 핵심

'바랑' 하나로는 도저히 꾸릴 수 없는 스님의 재산.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윤이학-

나는 잘몰랐는데

양쪽이 모두 상대방 스님들을 악의무리, 폭력집단 이라고 하데요
나는 잘몰랐는데 스님들 중에 악의 무리, 폭력집단이 있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시는 건지
-무량화-

스님 용서하세요

저는 오늘 친구들이 스님보고 마귀라고 할 때 아무말도 못하고 도망왔어요
이모가 스님 나쁘다며 교회가자고 할 때도 그냥 갈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스님들 싸우지말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 스님 용서하세요
-이창하-

보고싶지 않은 모습

'하화중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경에게 끌려가는 모습만은 보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희-

스님고시

문)다음중 구세군 자선 남비는 온정이 넘치는데 불전함이 텅빈 까닭이 아닌 것은?

1) 불전함 불태워 버릴까봐
2) 님을 봐야 뽕을 딸텐데 남편이 못가게해요
3) 스님은 전투중
4) 요즈음 구세군 자선남비가 진짜 불전함이니까
5) 스님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기 때문에

-고시 공부하는 학생-

알아야 될텐데

싸우는 스님보다 공부하는 스님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될텐데
덕없는 스님보다 덕많은 스님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될텐데
불우이웃을 멸시하는 스님보다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스님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될텐데
말로만 출가한 스님보다 마음으로 출가한 스님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될텐데
그리고 이번에 동원된 불자보다 동원되지 않은 불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될텐데
-성 학-

긴급상황

원로 큰스님들께서 해결해 주셔야 겠는데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해 덕-

국립박물관 3곳 불교전시실 운영

12월로 개관 20주년을 맞은 국립광주박물관이 최근 불교전시실을 대폭 보완하기로 함에 따라 국립박물관의 불교전시실 설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 9개 국립박물관 가운데 불교전시실이 있는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부여박물관·광주박물관 등 세 곳. 대다수 박물관들이 불교유물을 일반 유물들과 같이 전시하고 있어 우리나라 문화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문화재의 독특한 성격을 살리려면 테마별 기획이 가능한 불교전시실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광주박물관의 불교전시실은 박물관 중앙홀에 몇 점의 불교유물만을 놓아둔 것이어서 불교전시실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으로 박물관 측에서도 유물 확충 등 새 단장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박물관이라 할 중앙박물관은 지하 1층 불교조각실에 불교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이름 그대로 조각에 치우치고 있어 전반적인 불교문화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역사적 흐름-주제별 전시
불교적 의미 정확히 전달
문화재중 불교유물 6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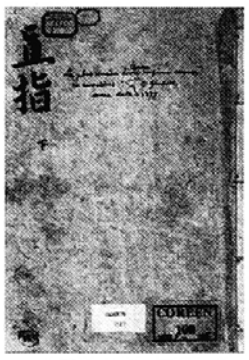
불교문화재가 많은 국립경주박물관은 본관 고분관 안압지관 등 3개 상설전시관 가운데 본관에 위치한 미술공예실이 불교전시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 수용하지 못한 석조불상, 석탑, 범종 등은 야외 전시실에, 고려시대 불상, 반자(飯子)는 국은기념실 등에 분산되어 있어 역사적 흐름순이나 주제별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4개의 상설전시실과 어린이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는 국립청주박물관의 경우 청주 흥덕사를 비롯한 사지 출토 유물들과 계유명 아미타삼존불비상(국보 106호) 등이 전시되어 있을 뿐이다. 고고실 한켠에 익산 미륵사 코너를 따로 만들어 놓은 국립전주박물관은 불교유물들이 이리 저리 흩어져 전시되고 있다. 금속활자본 사이에 놓인 금강경판을 설명을 읽지 않고 알아 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대구·공주박물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임진왜란 전문박물관으로 탈바꿈한 국립진주박물관의 경우 임란관련 유물이 전시되고 있는데 전문박물관에 맞춰 '승병' 관련 불교코너를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불심과 예술이 어우러져 탄생한 불교 문화재는 일반 문화재와는 다른 차원의 전문적인 테마 전시실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한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 국립박물관인 만큼 유물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아니라 불교적인 의미가 포함된 자세한 안내가 가미돼야 한층 관람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는 세계최고 금속활자본 '직지'.

'직지' 소재 오페라 나온다

2000년 4월경 '무대에' … '직지찾기'에 한몫 할듯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 고려 공민왕 21(1372년)에 백운화상이 편찬해 우왕 3년(1377년) 흥덕사에서 간행된 세계최고 금속활자본. 1440년에 제작된 독일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본 〈세계의 심판〉보다 63년이나 먼저 만들어진 〈직지〉의 하권 1책이 구한말 유출되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지만 관계자들은 국내에도 다른 〈직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직지찾기운동본부'를 결성, 직지 찾기에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

이 〈직지〉를 소재로 한 초대형 오페라가 준비되고 있다. 청주시문화관광과와 고인쇄박물관, 그리고 충북대 김승환 교수와 청주대 김태훈 교수는 〈직지〉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페라를 만들어 공연하기로 하고 오페라 제작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곧 발족시킬 예정이다. 위원회 측에 따르면 내년 4월까지 대본을 완성해 권위있는 음악가에게 작곡을 의뢰, 오는 2000년 4월경 청주와 서울에서 무대에 올린다는 계획.

오페라 직지는 몽고와 고려의 개성, 청주, 일본 쓰시마 등 당시 빠르게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고려말 민초들의 수난 속에서도 강인한 의지로 고난을 헤쳐가는 한 여성의 삶과 사랑 이야기가 주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페라 직지를 준비하고 있는 시 관계자에 따르면 출연진만 5백여명, 총 제작비 5억원 등 초대형 오페라로 꾸며 침체된 공연문화에 새 전기를 일으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교계에서는 오페라 '직지'가 공연된다면 '직지'의 대중화에 일익을 담당해 〈직지〉찾기 붐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불심시심 〈155〉

보시와 은혜 갚음

晩卜幽居地 (만복유거지)	늦게 조용히 살 땅을 가려
悠然遠市村 (유연원시촌)	유유히 시정 마을 멀리해
吟詩酬勝節 (음시수승절)	시 읊어 좋은 계절 수답하고
澤水灌花園 (택수관화원)	물 끌어 꽃동산에 대다
有鶴聽經語 (유학청경어)	학이 있어 경전 언어 들을 수 있고
無人問俗論 (무인문속론)	사람 없어 속세 논란 묻지도 않다
優遊終老此 (우유종로차)	여유 있게 놀아 끝내 여기서 늙음이
是亦信施恩 (시역신시은)	보시와 은혜 받음 믿고 갚음이지.

함흥대사(涵弘, 1805~1878)의 '그윽히 살다(幽居)'라 한 시이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질이 있었으나 조실부모하여 13세에 송암(松庵)화상을 찾아가 출가했으니 송암은 속가의 숙부였다.

대사의 문집은 〈涵弘堂集〉으로 2권이 전하고 있는데 권 1에 시 214편이 전하고 있다. 서문에는 "마음을 관찰하는 법이나 가르침이 은미한 것인데 글로 드러내니 불가의 다행스러운 일이다"하여 대사의 글이 불리의 홍포에 유익했음을 밝히고 있다.

위의 시는 대사가 만년의 거처를 만성암(晩惺庵)으로 옮겼을 때 지음이 아닌가 여겨진다. 스님의 생활이 평상시에도 저자거리나 마을을 멀리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다시 더 강조한 것을 보면, 끝내 여기서 늙겠다는 각오인 듯 하다.

숨어 조용히 살지만 자연 계절의 변화나 아름다움을 그저 넘길 수가 없다. 혼자 하는 독백이라 하더라도 시는 지어야 한다. 수답한다(酬)는 한 글자가 묘미가 있다. 저 계절을 감상하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 수답은 받음에 대한 갚음이다. 저 계절에 대해서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 역시 시 이상의 좋은 도구는 없다.

학은 깃들 곳이 산이고 머무는 거처가 소나무이다. 그 울음 또한 동물로서의 본능이겠지만, 이 또한 자연의 법리이기에 무엇보다도 귀중한 경전의 가르침으로 이해하려는 스님의 자연사랑이다. 그러기에 세속의 속됨은 없다. 가사 속인이 찾아와 대화했더라도 이미 세속의 논리가 아니다.

여유있는 놀이가 무엇인가. 이런 삶이 바로 여유가 아닌가. 이것이 내가 받아온 은혜이니 이 갚음으로 늙음을 맞아야지.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

■ 명현스님 구도소설 '수렁속에 푸른꽃불'

'존재의 이유' 찾는 사람들 이야기



우리는 늘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삶의 방향을 뒤바꾸어 놓는다. 때로는 삶의 질조차도. 만약 깨달음의 길과 한 인간을 업장에서 구해내야 하는 갈등의 기로에 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명현스님(통도사 교무국장·사진)의 구도소설 〈수렁속에 푸른 꽃불〉(동남기획 刊)은 고해의 바다에서 업보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다. 존재의 이유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참자아를 찾아 가는 길을 제시한다.

자신이 접한 남자들의 잇따른 죽음과 아내를 살해한 아들로 인해 충격을 받은 수진은 죽음을 결심한다. 그러나 그녀가 머물렀던 사찰의 진공스님에 의해 목숨을 건지게 되고, 두 사람의 인연은 새로운 고통을 낳는다. 진공은 불행에 빠진 한 중생을 구하고자 하나 수진은 자신을 남자로 여기고 접근해오자 한계를 느끼고 세속의 스승 운룡에게 도움을 청한다. 운룡은 수진의 전생을 들여다보고 수진이 전생에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남자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진공은 출가 이후 가장 큰 번뇌에 빠진다. 그러나 번뇌하는 진공을 보고 수진은 떠나기로 결심하고, 진공 또한 구도의 길을 떠난다.

수진의 삶과 진공의 끝없는 구도의 걸음을 통해 저자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명현스님은 "이 소설을 통해 사람으로 태어나 나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여야 했던 수많은 관념들,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생으로부터 지고 온 업이란 관념의 덩어리를 부수어 버리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이 소설은 실종된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은 업장의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덕의 길임을 말한다.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펼쳐지는 하얀 여백, 그 마음의 여백에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유, 이 소설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값 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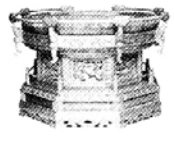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불우이웃돕기 청원스님 작품전

30일까지 부산문화회관

금강불교조각연구소 대표 청원스님이 30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중전시관에서 '불우이웃돕기 조각작품전'을 개최한다.

이번 작품전에는 제17회 불교미술대전 금상작인 '아미타삼존불(한주영 작)'을 비롯한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등 여러 불상과 업경대, 삼존불감, 법상(사진), 발우 등 불교용품과 찻상, 과반, 조명등, 장농 등 생활공예품 모두 6백여 점이 전시된다. (051)972-3912




◇ 장보고의 장도 청해진 복원 모습의 조감도.

완도 청해진유적 정비 법화사지 복원은 유보

완도군은 2002년까지 해상왕 장보고의 활동근거지였던 장도 청해진 유적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통일신라시대 성곽 성문 등 유적을 재현하는등 종합관광단지 조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정비 계획에는 장보고가 창건한 법화사 복원 부문은 유보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법화사지로 알려진, 장좌리에서 상황봉에 오르는 길목의 사지는 법화사가 아니라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돼 완도군이 법화사지 조사에 다시 나선다. 90년 문화재연구소 발굴팀은 장좌리에서 상황봉에 오르는 길목에 위치한 사지를 법화사로 추정했으나 죽청리에 위치한 사지 두 곳이 인근 마을에서도 구전으로 전해오는등 신빙성이 있어 지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완도군청은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지표조사에 착수해 사적 복원을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mct.go.kr:700/

국내 최대 '사이버문화관' 개설

유물·유적·명소등 2천여건 열람가능

전국의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유물, 유적, 명소, 축제 등의 문화적 볼거리들을 찾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사이버문화관'이 개설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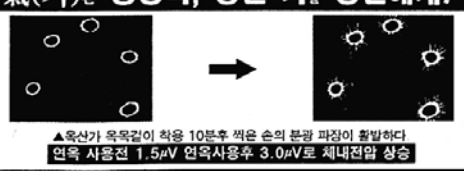
경향신문사와 문화관광부가 공동으로 개설한 '사이버문화관'에는 독립기념관처럼 대형 문화기관이 내놓은 유명 문화유산들도 있지만 공주민속박물관이나 거창지역정보센터처럼 쉽게 찾아가기 힘든 지방의 문화관 소장 자료도 풍부하게 담겨져 있다. △민속박물관 △전쟁기념사업회 △국립국악원 등의 메뉴가 개설된 '사이버문화관'에서는 민속유물 540점, 전쟁기념품 92점, 향토축제 400건, 독립운동사 유물 578점, 각종 악기 자료 420건 등이 등재되어 있다.

이밖에도 이대·고려대·성균관대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목아불교박물관, 대구·공주시립도서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등도 '사이버문화관'을 통해 볼수 있다. 주소는 http://www.mct.go.kr:700/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목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 파장이 활발하다
연옥 사용전 1.5㎷ 연옥사용후 3.0㎷로 체내전압 상승

'보석' 인가? '영험한 치료제' 인가!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찻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玉山家 玉이불 金賞 수상
미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박람회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本草綱目에 진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玉山家 옥만을 찍찜어서 사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是空 合掌

玉山家® (02)777-0105(우편판매可)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겨울철 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 0343)468-7200(代)
· 영업부 : 0343)445-6090
· FAX : 0343)445-3370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30기 佛敎儀式(범음·범 패) 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 법 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 정규과정(1년제) 추가모집
● 의식전문법사과정(2년제)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각과정)
◆ 원서접수 : 1998년 12월 14일(토)~99년 1월 11일
◆ 개강일시 : 1999년 1월 12일 오후 5시 정각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극장 옆 경동빌딩 3층
☎ (02) 741-0495, 0496
해동불교 범음대학
海東佛敎儀式敎育院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 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 선묵가협회 초대 작가로 추천함.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생명의 전화 : (주)(02)242-0331,242-0255
(야)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敎藝術文化院
韓國佛敎禪墨家協會

새로나온 책



▲불자의 기본예절=불자 예절의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말씨, 걸음걸이, 합장법, 절하는 법, 사찰에서의 예절, 법문 듣는 법 등 절집안의 생활예절을 쉬우면서도 재미있고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저자 일타스님은 "불교예절은 곧 '성불'이라는 목표를 이루게 하는 수행이요 방편"이라고 말한다. 〈효림, 3천5백원〉



▲금강산 답사기=조선시대 선비들의 금강산 답사기를 모은 책. 조선 후기에 편찬된 〈와유록〉을 비롯해 여러 개인 문집에 실려있는 것들을 작가, 계절, 시기 등에서 의미가 있는 8개 작품을 연대순으로 번역했다. 이곡의 동유기, 남효온의 유금강산기 등 모두 8편의 글이 실려있다. 〈혜안, 1만원〉

▲신과학으로 풀어보는 피라미드 에너지=현직 과학자의 시각에서 피라미드 에너지의 신비를 풀어낸 책. 피라미드 에너지의 현상과 근원을 신과학의 시각으로 추적하면서 국내외의 관련자료와 주장을 비교·비판하고, 과학 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주)한마음에너지과학연구소 신과학적정보센터장 허창욱 박사. 〈모색, 9천원〉

'서장' 읽으면 선불교 보인다

지상스님 번역 '서장'

대혜스님 편지글 모음
원문-번역문 한눈에
여설붙여 내용이해 도와





◇지상스님

선방 수좌들간에는 모든 것은 다 버려도 이 책만은 짊어지고 다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사스님들의 어록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장〉. 불교를 처음 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절차나 단계를 전혀 두지 않고 근원을 바로 보게 하는 대혜스님(1089~1163)의 날카로운 가르침은 이 책을 '천고(天古)의 절서(絶書)'로 꼽는데 주저함이 없게 한다.

불광출판부의 '불광선문총서' 10권째인 〈서장〉은 선불교의 고전을 대하는 한 학승의 열정이 단연 돋보이는 책. 한문원문에 토를 달고, 이를 우리말로 옮기면서 꼼꼼하게 주해를 달아놓았다. 기존에 번역돼 나와 있는 〈서장〉보다 방대한 분량의 주해가 두드러진다. 역자는 통도사에서 교선을 공부한 뒤, 법주사와 직지사 강원에서 중강을 역임하고 현재 은해사 승가대학원에서 수학중인 지상스님. 갑수는 지도교수인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무비스님이 맡았다.

현재 서점가에 나와 있는 〈서장〉 번역서는 모두 세 종류. 이중 두 종은 단순히 현토만 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번역문을 앞에 싣고 원문을 뒤에 첨부한 형태다. 불광출판부의 〈서장〉이 이들과 다른 것은 현토한 원문 밑에 바로 번역문을 실어 원문과 대조해가며 읽을 수 있다는 점. 또 필요한 경우 번역문 아래 내용을 상세히 풀어놓은 '해설'과 편지글이 담고 있는 사상과 관련한 내용을 보강한 '여설(餘說)'을 붙여 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원문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의 훈과 운, 부수와 획수를 모두 정리한 것도 다른 번역서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다.

대혜스님은 좌선의 고요함에만 빠져있는 묵조선을 배격하고, 공안을 참구해 깨달음에 들어가는 간화선을 정착시킨 중국 송대 선불교의 중흥조다. 〈서장〉은 대혜스님이 주로 사대부들에게 '선 공부에 관한 여러 가지 요지'를 대답해준 편지글로서, 그의 제자 혜연이 기록하고 황문창이 중편한 것으로, 〈대혜어록〉 30권 가운데 25~30권에 해당한다. 수록된 62편의 서신 가운데에는 승려 2인, 여성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대의 지식인이자 관료와 주고받은 편지글이다.

본래 제목은 〈대혜보각선사서(書)〉로 참선의 지도서이자 선문의 요지를 철저하게 설명해 놓아 공부하는 스님들 사이에서는 '〈육조단경〉을 스승으로, 〈서장〉을 도반으로 삼는다'는 말이 전해왔을 정도다.

스님은 〈서장〉에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벼슬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제자백가의 서(書)를 자유자재하게 이끌어오고, 팔만대장경 속의 부처님과 조사들의 가르침들을 거침없이 활용하고 있다. "익숙한 것은 서툴게 하라. 그리고 서툰 것은 익숙하게 하라. 수행이란 한마디로 그것밖에 없다"고 스님은 이 책에서 말한다.

지상스님은 책 후기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은 물론 일반 불자들도 이 책을 통해 선의 참다움을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발간의미를 밝혔다. 값 1만8천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교유물 보는 안목 '쑥쑥'

황수영 전집 셋째권
'한국의 불교공예·탑파'



〈한국의 불상〉(상·하)과 〈한국의 불교미술〉에 이은 '황수영 전집'의 세 번째 권 〈한국의 불교 공예·탑파〉(혜안 刊)가 나왔다.

이 책은 주로 미술사 각 부분의 중요 작품에 대한 총 101편에 달하는 방대한 개별 논문들을 주제에 따라 탑·사리장엄구·석등·부도·불교공예·도자기·금속제품·사경·불화 등을 5부로 나누어 실었다. 이와 함께 각 유물에 대한 2백4장의 도판사진을 함께 수록해 놓았다. 양식사에 치중하고 있는 미술사 관련 책들과는 달리 문화재 자체의 유래와 조성 배경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중 탑파편에서는 시원 양식과 일반형 양식, 특수양식으로 분류하고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탑파의 특징과 탑 속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를 다룬 것이 눈여겨 볼만하다. 금속공예 편에서는 사찰에서 전래하는 향완을 일본 작품인 악구(鰐口)와 비교함으로써 우리 것과의 차별을 논한 것과, 사경 편에서 고대의 사경 중 특히 금은자경(金銀字經) 가운데 특기되어야 할 고려시대의 금은자대장경 사업의 진행과정을 설명해 놓은 것이 특기할 만하다. 값 5만원.

한명우 기자

오늘을 사는 지혜 禪에서 나온다

향봉스님 '생활선, 당신도 부처가…'





"지킬 것은 지키면서 당당한데 도가 있고, 화내는 것도 버릇인 줄 알아 참아 이기는데 도가 있고, 소유욕을 적게 부려 만족을 삼는데 도가 있고, 좋은 벗, 좋은 스승을 가까이 해 배우는데 도가 있다."

오랜동안 인도, 티벳, 중국 등지에서 불교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향봉스님이 펴낸 〈생활선,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다〉(밀알 刊)는 책 제목 그대로가 이 책이 말하는 핵심어다. 향봉스님은 선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이유는 선이 복잡미묘한 현실사회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그리고 우리는 고정된 생각과 닫힌 마음으로 선의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의 가치를 모르며, 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음을 경계한다.

이 책의 중심은 선을 통해 오늘을 사는 지혜를 찾는데 있다. 티베트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일이며, 중국 소림사에서 겪었던 에피소드 등 저자 자신이 체험한 일상생활에서 얻은 깨달음 등을 소개하면서 누구든지 그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으며 세계의 주인임을 말한다.

하지만 막연히 선을 말하지는 않는다. 달마에서 홍인까지 선의 역사를 더듬고, 중국과 인도 선불교의 특징 및 선과 도가사상의 관계를 살피는 등 선과 관련해 알아야 할 것들을 간단히 설명해 놓아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리고 마조와 조주스님의 일화를 별도의 장으로 마련해 선의 세계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참삶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책이다. 값 8천5백원. 한명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 룡	효 림
2	산에는 꽃이피네	법 정	동쪽나라
3	불성이란 무엇인가	다카사키	여시아문
4	산은 산 물은 물	정 찬 주	민 음 사
5	영원한 자유	장 경 각	백련선서간행회
6	나는 누구인가	마하리쉬	청 하
7	한국불교 기도성지	정성운외	불교시대사
8	삶과 명상	길 연	불일출판사
9	소원성취 기도법	정우서적편집부	정우서적
10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홍 사 성	장 승

구입문의:(02)737-0695

'남산이 북산을 보며…' 개정판 나왔다



역사적 인물 1백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한 맹란자씨의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세훈 刊)가 표지를 바꾸고 내용을 보강해 새롭게 출간됐다.

불교의 죽음관, 칸트의 마지막 말의 의미 등이 추가 됐다. 값 8천원.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정인스님 지음

부처님 열두제자 행장 자세하게



부처님 법을 첫번째로 받은 마하가섭,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보필했다는 아난다와 부처님의 아들인 라훌라 등 12인의 부처님 직계제자들. 그들이 꿈꾼 이상은 무엇이었으며 부처님과는 어떤 인연으로 무슨 가르침을 받았을까.

정인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펴낸 〈부처님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열두 직제자〉는 이들 제자들의 행장을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 재현해 놓은 책. 한역 〈아함경〉과 〈율장〉을 기초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남방 팔리어 〈아함경〉을 비롯한 전설·설화 자료들을 참조해 단순히 제자들의 일대기적 서술에 그치지 않고 불교적 신앙심을 드러내는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여래, 9천원〉

화제의 책

신역 금강경 정용수 지음

이야기체로 쉽게 풀어쓴 금강경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도 읽는 이가 많지 않거나 읽어도 그 참맛을 알기 어렵다면 가치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경전의 본뜻을 그대로 전하면서도 그 의미를 재미있게 엮어낸다면 읽는 사람에게는 분명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불교대학 정용수 교수가 펴낸 〈신역 금강경〉은 바로 그런 책이다. 원문과 주해를 제시하고 그 뜻을 마치 이야기하듯 풀이해 놓았다. 책 제목 앞에 '신역(新譯)'이라는 말을 붙인 것도 짧은 문장과 소박한 비유를 통해 〈금강경〉의 참맛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번역에 있어 과감히 현대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 〈우리출판사, 1만2천원〉

화제의 책

불교란 무엇인가 데미언 키언 지음

불교가 심오하고 지혜로운 까닭



불교에 대해 서양인이 느끼는 당혹감과 의문점을 기초로 해서 삶에 대한 불교의 해석을 과학적인 접근방법으로 쉽게 설명한 책이다. 붓다의 생애, 업과 환생, 대승불교, 명상, 서양의 불교 순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불교를 '가장 아름답고 심오하며 지혜가 있는 하나의 체계'라는 논리로 관통시킨다.

붓다가 말한 맹인과 코끼리 이야기의 교훈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을 끝까지 따라 다닌다. 불교에 대한 시각도 어느 한 양식으로 보는 편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다.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 칼리지 인도 종교 강사인 저자 데미언 키언은 불교를 통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까지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동문선, 6천원〉

대 원 불 교 대 학
학 생 모 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6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지원자격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분
정법과 정도를 지향하시는 분

● 강의시간
출강/통신 : 주5일 오후7시~8시30분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9년 2月 28日까지

● 교과목 : 주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사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불교복지론	불교학특강	의식실기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가. 포교당 개설시 상담지원 가능
나.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다.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02)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

1999학년도 동학사 승가대학 신입생모집

동학사 승가대학에서는 1999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학과 사미니과 00명
2. 시험과목 면접, 염불실기, 사미니율의, 불교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3. 입학자격 사미니계 수지자, 타승가대학생인 경우 2년 이상 휴학한 스님
4. 제출서류 (1)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1통
(2)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1통
(3)은사스님 추천서 1통
(4)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5)사진(반명함판 3×4) 3매
5. 준 비 물 오조가사,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6. 시험일시 1999년 1월 27일(음 12월 10일)
7. 도착일시 1999년 1월 26일(음 12월 9일) 오후 4시까지
8. 문 의 처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9번지
동학사 종무소 전화 : (042)825-2570

■ 교통편
· 대전본역 앞에서 좌석버스 1번, 102번 · 대전고속버스터미널,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좌석버스 1번, 102번
·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좌석버스 1번, 102번 · 동학사 주차장에서 오후 2시부터 봉고운행 함.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일연

"종밀의 불교수용 중국 유·도가들에 '진실의 세계' 제시"

조윤호씨 주장

"불교의 수용과정에서 중국전통사상에 대한 종밀(宗密·780~841)의 이해는 우호적·조화적 태도로써 당시 종교계·사상계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편협한 입장을 깨닫게하며 진실의 세계로 눈돌리게 했다."

12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위원장 해주스님) 발표회에서 조윤호씨(전남대 강사)는 '종밀을 통해서 본 중국전통사상과 불교의 만남'을 통해 "종밀은 중국전통사상에 대해 융화적 입장을 견지하며 불교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종밀의 융화적 태도는 특히 영혼관을 이해하는데 있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며 "윤회에 있어 심적·정신적 요소의 상속과 불멸을 증명하기 위해 중국의 통속적 영혼관을 자연스럽게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어문논집' 제3집 불교문학 심층연구

한국불교어문학회(회장 이종찬)가 최근 펴낸 〈불교어문논집〉 제3집에 불교사와 국어학의 학문적 협업과 종합적 접근을 시도한 논문 11편이 소개되고 있다.

'사명유정론(四溟惟政論)'에서 배규범씨(경희대 강사)는 "승병장 사명유정(四溟惟政)의 현실 대응논리는 우국충정과 구도심 사이의 고뇌였다"며 "현실과 수행의 조화를 통한 그의 실천적 삶은 '세속 지향의 포교문학'이라는 문학적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조현설씨 '나손학술상'



'나손학술상' 제8회 수상자로 동국대 조현설씨(국문학부 강사)가 선정됐다. 조씨는 '건국신화의 형성과 재편에 관한 연구'를 통해 민속·시조신화 연구에 새 지평을 연 공로로 수상자로 결정됐다.

월인석보 권25 첫 연구논문

강순애교수 발표…월인천강지곡·석보상절 연구에 도움

지난 95년 12월,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에서 발굴된 〈월인석보〉 권25. 〈월인석보〉 권25는 이제까지 막연하게 전부가 24권이라고 여겨왔던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며, 기존에 580장으로 여겨왔던 〈월인천강지곡〉도 583장까지 찾을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월21일 대구 계명문화대에서 열린 서지학회(회장 배현숙) 추계학술대회에서 강순애 교수(한성대 문헌정보)는 저경을 중심으로 내용을 연구한 '새로 발견된 초참본(初本) 〈월인석보〉 권25에 관한 연구'를 통해 "〈월인석보〉 권25의 발굴은 초참본으로서는 처음 발굴된 것으로 전체 24권으로 간행됐을 것이라는 〈월인석보〉에 대한 학설을 깨는 획기적인 일이였다"고 평가했다. "그 구성과 내용은 석가열반 이후의 경·율·장(經律藏)의 결집과 아육왕(阿育王)의 불탑(佛塔) 조성을 큰 줄기로,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등을 저경(低經)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은 〈월인석보〉 권25에 대한 첫 연구논문이다.

강교수는 특히 "권25 중 석보부(釋譜部)는 〈석보상절(釋譜詳節)〉 권24(1966년 발굴)의 내용이 채용되어 있는데, 그 저경의 내용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었다"며 "권25의 발굴로 〈석보상절〉 권24의 저경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굴당시 큰 화제를 모았던 〈월인석보〉 권25는 세종이 부처님의 공덕을 칭송하며 지은 〈월인천강지곡〉을 저본으로 하여 1459년 세조가 부처님의 일대기를 각종 불경에서 뽑아내 풀어 엮은 것으로 97년 보물 제745-9호에 지정됐다.

권25의 구성에 대해 강교수는 "전반부는 경·율·장의 결집에 관한 부분으로 〈경덕전등록〉 권1, 〈경률이상(經律異相)〉 권13, 〈법원주림(法苑珠林)〉 권35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고, 후반부는 아육왕의 불탑 조성에 관한 부분으로 〈석가보(釋迦譜)〉 권3·5, 〈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 권28에 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월인천강지곡〉의 577~583곡 등 7곡이 추가로 밝혀짐으로써 이 부분의 연구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권25의 내용에 대해서는 "〈월인천강지곡〉의 배열로 보아 5단계로 구분되며, 앞부분 2장이 결락(缺落)되어 3장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1단계는 가섭(迦葉)이 삼장(三藏)을 결집하는 과정으로, 3장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결락된 2장에는 〈월인천강지곡〉 575곡 또 는 576곡이 실려있으며 삼장을 결집하는 내용의 앞부분이 전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2단계는 아육왕의 공덕, 성장, 폭정, 참회, 8만4천탑의 조성에 관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으며, 제3단계는 8만4천탑의 완성, 아육왕의 병치유, 녹야원(鹿野院) 참배, 아육왕 형제의 출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제4단계는 아육왕의 죽음과 그의 손자에게 왕위를 양위하는 내용이 〈석가보〉 권5에서 인용되고 있으며, 제5단계는 144장 이후의 결락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에서 발견된 〈월인석보〉 권25 3장.

강교수는 권25 연구와 관련하여 "권수(卷首) 부분의 2장이 결락되어 〈월인천강지곡〉의 시작여부를 알 수가 없고, 또한 권말(卷末) 144장 이후 부분의 결락으로 〈월인천강지곡〉 582~583장 이후의 전개를 알 수가 없어 권25로 마감이 되는지 26권으로 이어지는지는 추정할 수 없다"며 "후대에 원간본(原刊本) 또는 번각본(飜刻本)의 완전본이 발굴되어 새로운 연구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 '오늘의 동양사상' 창간호

인도·불교철학 방향 제시

97년 한해동안 발표된 인도·불교학 관련 논문을 분석, 인도·불교철학사상의 연구방향을 제시한 글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문동양사상연구원(원장 김충열)이 지난달 펴낸 동양사상 관련 종합학술지 〈오늘의 동양사상〉 창간호에서 최정규씨(同연구원 인도·불교철학 연구실장)가 120여 편의 인도·불교철학관련 논문을 정리분석한 글 '인도·불교철학 가야할 길'을 발표한 것. 이 글에서 최씨는 "한국의 불교학 연구는 연구영역의 다양성과 함께 시대적 문제의식에 불교적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로 발전돼야 한다"고 인도·불교사상의 연구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분석을 위해 최씨는 먼저 1997년 발표 논문(박사학위논문 포함) 120여 편을 교학(敎學)과 선학(禪學)으로 구분하고, 또 특정 인물에 대한 연구논문을 분류해 냈다. 분석 결과는 교학연구가 47%로 선학연구(15%)를 앞서고 있다. 그러나 교학을 해동(13%), 유식(10%), 천태(8%), 증관(6%) 등 단일 종파로 재분류할 경우 선종에 대한 연구가 가장 우세를 보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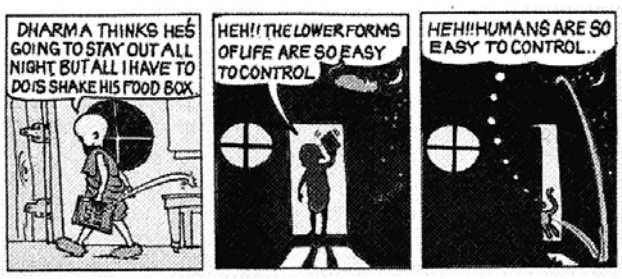
인물에 대한 연구논문 분석에서는 원효(33%), 지눌(11%), 의천(11%), 나옹·성철·용수·지장·효봉(각 2%) 등의 순으로, 특정 인물에 대한 연구논문이 두드러짐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최씨는 분석결과에 바탕, 인도·불교철학 연구의 나아갈 방향으로 △특정 연구에 편중된 현상 극복 △연구내용의 다양화를 통한 중복성 지양 △일본불교에 대한 연구 절실 △근현대 불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인접학문과의 교류협력 필요 △자료의 공유를 위한 통합적인 정보망 구축 △시대적 문제의식의 필요 등을 제시했다.

김정은 기자



고양이 달마

인터넷 사이트 달마캣(http://www.dharmathacat.com)에서 제공하는 선(禪)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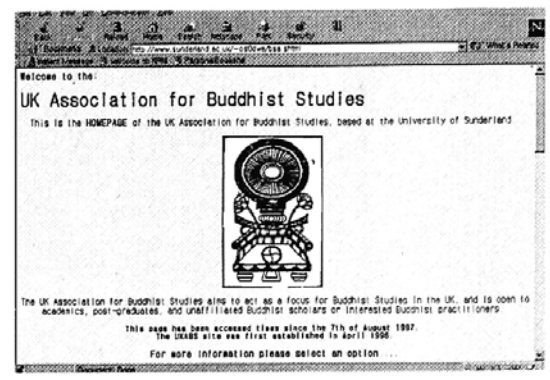


수행자는 멈춤이 없어야 한다고 부처님께서 가르쳤다. 그러나 나는 고양이 먹이가 든 상자를 흔들어야만 한다.

야 (보디는 상자를 흔든다. 그리고 "동물들은 다루기가 너무나 쉬워"라고 말한다)

(지붕에서 뛰어내린 달마) 인간은 다루기 쉬운 존재야.

해설 온갖 중생은 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어 차별이 없다. 진여의 세상에는 모든 유·무정물, 범부, 보살, 부처님들이 있어서 더하고 덜함이 없다. 과거에 생긴 것도 아니며 미래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절대로 영구하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영국불교학협회

맨체스터大 중심 불교학 연구 활발

학자간 다양한 연구실적·정보 교류

불교의 여러 분야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복록' 튀는 인터넷 학술 사이트를 찾아 보자. 경전과 교리 연구가 가장 앞섰다는 영국에서 개설한 불교사이트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바로 영국불교학협회(United Kingdom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이다.

영국에서 불교학 연구에 중점을 두고 대학 및 대학원 학생 그리고 관심있는 불교 수행자와 불교 학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단체가 바로 이 단체이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불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특정 개인의 독자적인 활동에 그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아주 작은 소그룹 규모로 불교를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 대부분이 불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류학, 동양학, 비교종교학, 법학, 철학, 심리학, 종교학, 신학 등과 같은 인접 학문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연구하고 있어 심도있는 불교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래서 불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영국에 있는 뜻있는 불교학자들이 모여 맨체스터대학(Manchester University)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불교학 연구 운동이 일어나게되었다.

영국불교학협회의 상임위원회의 회장으로는 영국 맨체스터대학의 비교종교학 코우신교수가 맡고 있다. 영국불교협회가 설립될 당시의 헌장에는 '불교를 주제로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의 영국내 및 국제적인 연대를 통한 학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협회의 설립 목적이 나와 있다.

영국불교학협회는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또 불교학 관련 학문을 연구중이거나 불교 관련 회의, 세미나를 개최하는 학회 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 불교, 서구불교의 발전을 포함하여 불교의 역사적·현대적 측면에서의 연구, 사회문제의 이론적·수행적·방법론적 연구, 불교의 경전적·언어학적·고고학적·미술사학적 연구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별로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위해 중요한 중간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불교학협회 회원자격은 이 협회가 하는 일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정기총회에서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영국불교학협회 총회 안건은 상임위원회 정족수 회원(10명)의 만장일치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신입 회원들의 가입 신청에 대한 찬성·반대 결정권을 가질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영국불교협회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불교학회지(Buddhist Studies Review)〉를 열람할 수 있다. 이 학회지는 러셀교수가 편집장을 맡고 있다. 또 인터넷 상에 이 협회를 소개하는 부정기적인 전자 소식지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sunderland.ac.uk/~os0dwe/bsa.shtml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우리 시대의 원효
이기영교수의
불교개론강의
불연이기영전집 제24권, 상권 293면, 8,500원 / 하권 363면, 9,500원
한국현대 불교학계의 거목이었던 불연 이기영교수의 불교관을 집약한 이 책은 불교가 어떤 점에서 진리인가 하는 그 교리를 알기 쉽고 명쾌하게, 그리고 신념에 가득찬 목소리로 설하고 있다.
불교는 새로워져야 한다!
어지러운 한국 현대불교계에 고하는 제언
다시 쓰는 한국불교유신론
불연이기영전집 제18권, 333면, 9,000원
이기영교수의 삶과 사색
내 걸음의 끝은 마음에 있나니
불연이기영전집 제17권, 329면, 8,000원
한국불교연구원
TEL : 3411-6167,6168
FAX : 3411-6164

●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구도 행장기
최초발굴
꽃(花)으로 태어나 꽃(華)이 된 존재, 비구니 스님
화엄경(華嚴經)은 세상 혹은 우주를 꽃으로 장식하기를 권하고 가르치는 경전이다. 꽃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한자에서는 가시적인 꽃을 화(花)로 나타내고, 비가시적인 꽃을 화(華)로 나타낸다. 두 꽃은 모두 아름답고 곱고 예쁘고 향기롭고 값진 것이지만, 뜻하는 바는 사뭇 다르다. 비구니 스님들은 꽃(花)으로 태어나 꽃(華)이 된 존재들이다.
한승원 '후기' 중에서
본래 마음자리를 밝히는 수행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전법자로서, 절을 일구고 지키는 가람 수호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당당한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비구니의 모습을 생생하게 되살렸던 것이다. 다소 흐트러졌던 수행자들은 이 책에 실린 선학(先學) 스님들의 삶을 지남(指南)으로 삼아 추스리고, 아직 불교와 인연이 닿지 않은 이들은 이 책을 읽고 발심의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생각한다.
광우스님 '추천의 글' 중에서
이 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를 살다가신 비구니 큰스님들을 다시 뵙고 가르침을 듣게 해주고 있다.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한 작업은 모래를 헤쳐 금을 찾는데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온 정성을 다 기울였음을 볼 수 있다. 기록되어 전하는 자료가 부족하여 문하생들을 일일이 발로 찾아 다니며 접할 수 있었던 모습들이었기 때문이다.
해주스님 '출간에 부쳐' 중에서
한국불교를 빛낸 큰 비구니
깨달음의 꽃
하춘생 지음 | 도서출판 여래 펴냄 | 296쪽 | 값 7,800원
도서출판 여 래 ·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1가 177번지 대영빌딩 201호 · 전화 (02)730-8976 · 팩스 (02)723-6801

한 형 조

무문관 방장

77

건봉의 외길

* 건봉화상에게 어느 승려가 물었다. "시방의 제불은 모두 열반의 문으로 간다 하셨는데, 대체 그 길은 어디 있습니까." 건봉이 지팡이를 들어 허공에 획 한 줄을 긋고 가로되, "여기 있다." 나중에 그 승려는 운문에게 자세한 해설을 부탁했다. 운문은 부채를 들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 부채가 튀어올라 삼십삼천(三十三天)에 이르러, 제석(帝釋)의 콧구멍을 쑤셨다. 동해의 잉어를 쳤더니 동이를 기울인 듯 큰 비가 쏟아졌다."

* 나 혜개가 말한다. "한 사람은 깊고 깊은 바다 속에서 자욱한 먼지를 일으키고, 한 사람은 높디 높은 산꼭대기에서 허연 파도를 일으킨다. 정(定)을 지키고 행(行)을 놓아, 각각 한 손을 내서 종승(宗乘)을 붙들어 세웠다. 흡사 두마리 말이 맞부딪친 것같으니 세상에는 이를 간파한 사람이 없으리라. 바른 눈으로 보건대 두 늙은이는 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 송하여 가로되, "걸음을 떼놓기도 전에 이미 닿이있고, 혀를 두드리기도 전에 이미 말해버렸네. 기미가 이르는 곳을 놓치지 않는다 해도, 그 위에 뚫린 구멍 하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야."

乾峯一路:

乾峯和尙, 因僧問, 十方薄伽梵, 一路涅槃門, 未審路頭在甚麼處. 峯拈起 杖, "내 손에 쥔 부채가 날아올라 삼십삼천에 가부좌한 제석의 콧구멍을 찌르고, 그것도 모자라 동해의 잉어를 한방 먹이니 하늘에서 동이물이 와장창 쏟아진다."

이것은 가히 만화적 상상력이다. 선은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허문다. 목표는 단 하나, 현실의 견고한 성채를 부수고 흔들기 위함이다. 〈금강경〉은 말한다. "수부티야, 여래께서는 모든 존재가 존재가 아니라 하셨다. 그렇기에 존재라 불리운다." 모든 것은 이슬같고 섬광같은 것, 혹은 어지럼증 속에 떠도는 허공꽃같은 것. 제상(諸相)은 찰나적이면서 또한 그렇기에 스스로의 존재성, 즉 자성(自性)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실제(實際)가 아닌 환상, 혹은 마야의 세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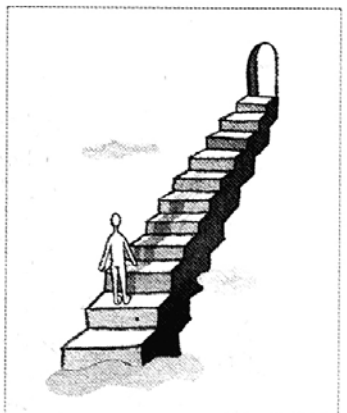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우리는 욕망과 유용성의 그물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만 세계를 인식한다. 불교는 이 뿌리깊은 습성을 타파해야 생멸의 무의미와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가르친다. 니르바나에 이르는 관건은 현실의 점착력과 결정력을 줄이는 일이다. 그 접에서 소승의 구상관(九想觀)과 아비달마 분석, 대승의 변증논리와 유가행, 그리고 밀교의 충격과 선의 화두가 노리는 목표는 궁극적으로 동일하다.

궁극의 길 내속에 있다

욕망 · 습성타파 윤회 고통 벗어나야 열반에

劃一劃云, 在者裏. 後僧請益雲門, 門拈起扇子云, 扇子跳, 上三十三天, 築著帝釋鼻孔, 東海鯉魚打一棒, 雨似盆傾. 無門曰, 一人向深深海底行, 土揚塵, 一人於高高山頂立, 白浪滔天. 把定放行, 各出一隻手, 扶竪宗乘, 大似兩個駝子相撞著, 世上應無直底人. 正眼觀來, 二大老總未識路頭在. 頌曰, 未舉先時先已到, 未動舌時先說了. 直饒著著在機先, 更須知有向上竅.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불교의 문은 열반으로 통한다. 여래와 부처, 보살과 나한이 모두 그 길을 따라 갔다. 어느 승려가 그 길이 알고 싶었나 보다. 조동종의 법사 건봉은 그러나 그 물음에 지팡이를 들어 허공을 그었을 뿐이다.

허공에 웬 길이 있나. 허공을 발로 밟을 수 없으니 결국 길은 없다는 뜻이겠다. 그래서 무문(無門)이다. 문은 없다! 입구도 통로도 없는 길로 등을 떼미는 야속한 건봉을 뒤로하고, 그 승려는 이번에는 운문을 찾아갔다. "건봉스님이 그려보인 허공의 길은 대체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운문이 누구인가. 거룩하신 석가세존을 한 달음에 때려잡아 천하의 평화를 도모하겠다는 그 과격한 아닌가. 그는 다행히 몽둥이를 접고 이런 동문서답을 던져주었다.

요컨대 불교에 발을 디디면 세상이 달라보인다. 혹은 세상이 달리 보여야 불교에 입문할 수 있다. 청원유신의 표현을 빌리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것이다. 그곳으로 안내하기 위해 불교는 다양한 방법적 장치를 개발해 왔다. 때로는 삶의 역겹고 혐오스런 측면의 명상을 통해, 때로는 자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분석과 변증을 통해 그 '낯설음'을 각인시키려했다. 선은 이제까지 살폈듯이 역설과 모순, 반어와 상징을 더 선호한다.

그 다양한 표현 가운데 혜개의 다음 일구(一句)는 가히 압권이다. "깊은 바다 속에서 흙을 일어 자욱한 먼지를 일으키고, 높은 산꼭대기에서 하늘에 닿는 허연 파도를 일으킨다." 멋모르고 이 구절에 취해 며칠을 몽롱했던 기억이 여직도 새롭다. 그러나 선은 문학이 아니다. 글에 취하면 본래의 뜻을 잃는다. 궁극으로 난 길은 어디 있는가. 건봉과 운문의 기행(?)은 결국 밖으로 난 길은 없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회광반조. 길은 결국 내 속에 있다. 혜개는 그것을 '위로 난 구멍 하나'라고 했다. 무어라 불러도 상관없다. 대체 어떻게 나와 대면할 수 있는가. 곤혹스럽게도 등잔 밑은 늘 어둡고 안경은 대상 속에 있지 않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팔정도는 삼독 치료하는 약

잭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37



우리는 흔히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인 팔정도가 너무 어렵다"고 말한다. 그것은 팔정도가 일상에 표현하기는 어려우면서도 쉽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실행하기는 어렵고 이해하기는 쉽다는 뜻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벌겋게 괸 숯을 손에 쥐고 불평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우리는 고민을 놓아버려야 한다. 물론 "아니오, 못 놓겠어요. 그저 식기만 하면 돼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수행의 장애 ⑧

인내심을 배울 수밖에 없다. 그것은 수행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놓을수 있을까?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놓으면 된다. 우리의 내면적인 집착을 놓아버리면 된다. 우리는 알을 낳은 어미새와 같다. 알을 품어서 부화시킬 책임이 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들은 썩어버리고 말것이다. 우리의 능력 범위안에서 사물을 바로 보고 수행정진하고 마지막으로 놓아버리면 된다.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와 모든 처방약이 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포기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나의 가족이니 나의 수행이니 하는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이와같은 자기중심적 견해는 또 다른 고(苦)의 원인이 될 것이다. 타인과 더불어 함께 살든 홀로 살든 행복을 찾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단지 법(法), 팔정도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솥에 물과 쌀을

자기중심 견해 苦의 원인
행복찾겠다 생각말고
살림살이를 바로 보자

부어넣는 것만으로 즉시 밥을 얻을 수는 없다. 불을 지피고 물을 끓게 한 다음 충분히 뜸이 들도록 해야 한다.

지혜를 갖추면 문제점들은 자기 지은 업에 따라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 살림살이를 바르게 보게 되면 업장을 알게되고 인과를 배우게 되어 장차 우리의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된다.

우리는 수행이 어려워지면 '게을러서 못한다', '시간이 없다' 등 우리의 의지력은 제쳐놓고 외부환경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일 뿐이다.

우리는 세간을 살면서 수행을 하지만 팔정도에 기본 계율을 깨끗히 준수하고 노력해야 한다. 몸가짐과 말을 단정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진실되게 노력하고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 한두번 시도하여 평온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억제하는데 조금도 노력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원하는 대로 방황하게 놔두어서는 안된다.

마음은 물론 길들이기가 쉽지 않은 물건이다. 말(馬)을 길들일 때 고집이 정말 세면 얼마동안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저절로 다가올것이다. 우리인생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이 길들여질수 있다는데 있다. 우리는 올바른 노력으로 지혜로워질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팔정도를 수행하려면 세간속에서 살되 그위에 머물러야 한다. 오계를 위시하여 계를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모든 선행의 근본이다.

팔정도는 마음에서 욕망을 씻고 삼독심의 원인을 제거해준다. 따라서 명상수행을 정진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수행이 잘될 때나 그렇지 못할 때에도 팔정도의 길을 꾸준히 걷는 것이다. 의혹이 일어나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생각 역시 무상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잔차 스님이 수행하시던 왓빠뽕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는 스님의 신통력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아잔차 스님은 웃으며 "세상에서 오직 한가지 진짜 신통이 있으니, 법의 신통력이 바로 그것이다. 마음을 해탈하게 하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가르침이야말로 신통 그 자체다. 다른 신통은 모두 놀음판의 속임수일 뿐이다. 그런 신통은 우리가 생로병사와 맺고있는 관계 거기로부터의 해탈이라는 인생의 진짜 경주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시켜 정신팔게 할 뿐이다"고 말했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86

불교와 수학

81

마음과 논리학

김 용 운

논리에 승복하는일 민주주의의 출발
조계종 분규는 비논리적 역사의 業

불교 교단도 다른 일반 사회와 다름없이 인간이 만든 조직이다. 인간이 만든 조직에는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언어가 있다. 언어를 매개로 하여 정확히 의사를 전달하고 서로의 오해를 없앰으로써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써 처음 조직을 형성했을 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한편 언어에서 한계를 인식한 불교는 언어보다는 마음을 중시하며, 그 한계를 초월할 것을 수양의 목표로 삼아 왔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세계가 바로 그것이며, 석가모니 부처님과 가섭 사이의 아름다운 설화 '염화미소(拈華微笑)'는 이에 매우 상징적이다.

부처님이 연꽃을 따서 제자들에게 어떤 뜻을 전하려 했을 때 누구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다만 가섭만이 그 뜻을 헤아리고 미소했다는 고사이다〈佛說梵天王問決疑經〉. 부처님의 여러 제자들 가운데 오직 가섭 혼자만이 그 뜻을 알아차렸다는 것은 그만큼 범인에게는 이심전심의 의사 전달이 쉬운 일이 아님을 시사하는 일이기도 하다.

희랍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이성으로서의 말씀(logos,이성)을 중시했다. 그들의 전형적인 학문은 대화·토론의 방법에서 비롯되었으며, 학문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논리학'이다.

특히 유클리드기하학은 대화 도중 애매한 것이 발견되면 그 의문점을 없애기 위해서 상대를 납득시키거나 또는 내 자신이 납득하기 위해 대화의 법칙이 성립해야 한다는 자각에서 출발했으며 논증기하학은 이 방법을 체계화했다. 즉 같이 애매한 점을 의심하는 데 대하여 의문시하는 술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또한 올과의 대화가 원활히 성립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약속)을 만들고 서로의 대화에서 야기되는 의문점을 배제시켜 가는 것이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단순한 도형의 학문이 아니며 오히려 도형을 대상을 삼는 논증의 훈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즉 '정의'에 의해서 술어의 의미를 확정하고 '공리'로서 추론의 기초를 확립한다. 공리·술어·논리법칙이 공통의 토론 기반인 것이다. 아무리 간단한 명제일지라도 반드시 논증되어야 진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가령 '삼각형의 두 변의 합은 다른 한 변의 길이보다 길다'는 명제는 심지어 개조차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간단한 명제조차도 공리와 술어, 그리고 일정한 논리법칙에 따라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논증(논리에 의한 증명)이란 '정의와 공리'에서 비롯되는 논리의 전개 체계의 결과를 얻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그 논리의 결과는 공리의 한계 내에서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공리를 받아들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논리로 도출된 결과를 승복한다. 희랍 철학자들이 '믿어야 할 것은 오직 로고스뿐이다', 또는 '법은 로고스이며, 따라서 악법도 법이기에 승복해야 한다'고 외친 것은 로고스에 대한 신앙고백이다. 논리는 만인이 공평하게 공유하기에 논리에 승복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인간이 만든 사회, 조직에는 반드시 논쟁거리가 발생한다. 노사간의 갈등에서 종교계의 갈등까지. 논쟁이 그칠 날이 없다. 그러나 민주사회는 이러한 갈등을 논리로써 해소시킬 것을 시도해 왔다.

한편 수만 개의 작은 혈연 중심의 마을과 도시라고는 서울 하나뿐인 사회구조를 오랫동안 체험한 한국인들은 논리적 의식을 기를 시기가 없었다. 그 보다는 '천냥 빚도 말 한마디로 갚고' '마음만 맞으면 천하도 반분' 하는 정(情)의 세계를 믿어 왔다. 정은 감정이며 이성과는 반대이다.

그러한 체험들이 '한국인의 조직운영을 비이성적으로 흐르게 만든 것이며, 이번 불교계의 분규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새삼 비논리적으로 살아온 역사의 업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실감하며, 원효대사가 화쟁(和諍)사상을 내세우게 된 계기 역시 당시 불교계에 많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데 지금 조계사에는 그 손마저 없는 미망의 상태에 있는 속물들이 평소 마음의 '수행·수양'을 내세웠던 것과는 달리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들을 보면서 단순히 갑도 옳고 을도 옳다는 양시·양비에서 벗어나, 말씀을 초월하는 절대 경지가 있음을 알리고 특히 불자의 이상이자 목표가 바로 그 경지임을 제시한 원효의 화쟁사상을 떠올리게 된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정정법신비로자나불 · 원만보신노사나불 · 천백억화신석가모니불 · 구품도사아미타불 · 당래화생미륵존불 · 시방삼세일체제불 · 시방삼세일체존법 · 대지문수사리보살 · 대행보현보살 · 대비관세음보살 · 대원본존지장보살 · 제존보살마하살 · 마하반야바라밀

원불 · 백팔불전 · 천불전 · 만불전

원불 부처님을 위한 후불탱화

금 · 목불 · 동 · 옥 · 순금천 · 석재

⊙ 감수 : 후불탱화 조성 문화재 기능자 · 중요무형문화재 제 48호 단청장 이수자 · 지정 문화재 도금 기능자 제 1741호 · 박정민외 다수인
⊙ 진품 만다라 탱화 조성작가스님 : DODAK LAMA. SANGE LAMA PURUPA LAMA DHL 외 다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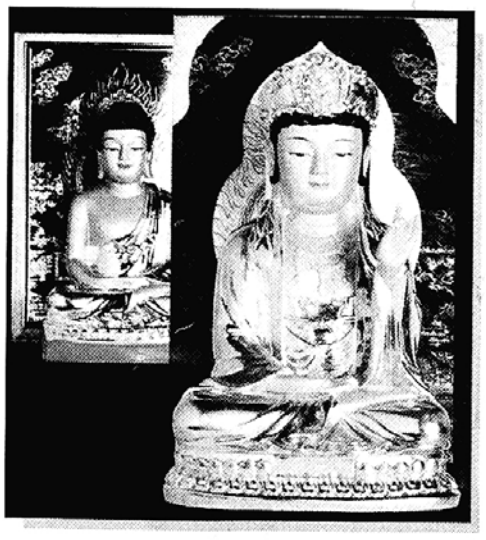

순금후불광배




금동후불광배



순금만다라






후불만다라


만다라

천불전의 원불 부처님 한분 마다 모실 수 있는 후불탱화 및 후불광배가 국내외의 중요 무형문화재와 지정문화재 불모들에 의해 조성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부처님 봉안시 함께 모셔져온 후불탱화를 각 개인 불자의 이름으로, 천불전의 부처님 한분 마다 함께 봉안하여 침체된 불자들의 신심을 불러일으켜 부처님께 귀의하도록 스님들께서 불사 추진하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조성비를 최소화하여 기존 천불전 부처님 한 분 조성비의 10분의 1정도로 동참토록 조성과 공급을 일원화 했습니다. 사찰에 맞는 선택을 하시도록 100여종 이상이 각종 광배 및 후불탱화와, 성지에서 모셔온 1000여점의 만다라 탱화도 상설 전시중이니 직접 방문이나 전화 주시면 상세한 안내와 특별 주문제작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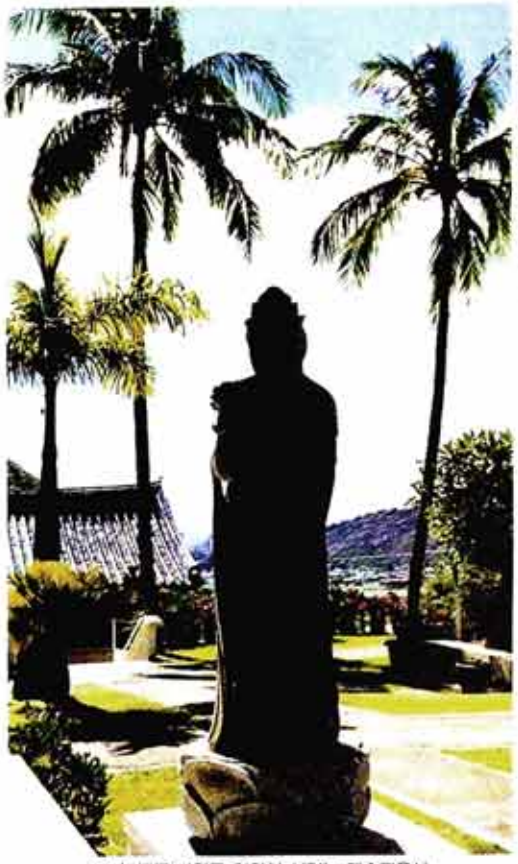
불교문화 기획사업부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37-1 한라빌딩 101호
전화 : (02)732-6373/4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대원사 한인문화원 2000년 완공…내년 초파일 만등공양
국제선원·동서문화원·한인학교·박물관 등 운영계획

하와이서 꽃피는 한국불교


◇와이키키비치를 향하여 서있는 해수관음상.

"Aloha."

하와이 원주민의 인사말 '알로하' 소리와 함께 코끝을 찌르는 꽃냄새가 이국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한다. 진주만에서 호놀룰루시 번화가를 거쳐 칼로우계곡으로 들어서면 멀리 보이는 야자나무숲 사이로 우리나라 전통건축 양식의 건물이 눈길을 끈다. 이곳이 지난 23년간 5만여 한인교포들에게 '또 하나의 고국'으로 불리는 대원사(주지 도현)다.

주거지에 자리잡은 대원사에 들어서자 일주문이 먼저 반기고 잔디밭이 넓게 깔린 경내에는 2기의 석탑이 우뚝 서있다. 정면으로 보이는 대웅전은 한국의 전통양식으로 건립됐으며 우측으로 1년내내 연꽃이 피는 연못위 구름다리를 건너면 명부전과 선방 그리고 법고와 범종이 모셔진 종각이 눈에 들어온다. 대웅전 좌측으로는 석조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해수관음보살상이 와이키키해변을 향해 자비광명을 발하고 그뒤엔 한인문화원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교민들이 이름지은 보타산엔 무지개가 유난히 짙게 드리워져 있고, 호놀룰루 시내 번화가와 폭빛 와이키키 해변이 아스라이 내려다보이는 선방에는 6명의 수행납자가 화두를 들며 용맹정진한다. 법당에도 10여명의 보살들이 기도정진에 여념이 없다. 하와이 대원사가 지금까지의 포교 성과에 바탕한 수행과 문화포교로 새로운 세기를 맞을 채비를 하고 있으며 그 서곡의 진원지는 대원사 한인문화원.

1988년 국회정각회와 모국 불자기업인들의 화주, 당시 주지였던 대원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한인문화원은 80%의 건축공정이 진행되는 도중, 인근주민들이 건물의 높이가 규정보다 높다는 이유를 들면서 차질을 빚었다. 호놀룰루시가 공사중지를 명령하여 10여년간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다 96년 부임한 주지 도현스님의 노력으로 올해 8월 하와이 주법원이 2m를 낮춰 내년 3월까지 재시공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마무리 공사와 내부공사가 발빠르게 진행, 2천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원사는 한인문화원을 포교와 수행의 종합도량으로 이곳을 장엄한다는 방침이다. 2003년 한국인의 하와이이주 1백주년을 맞아 한국의 민족문화와 불교문화를 홍보하여 동서문화가 넘나드는 가교역할을 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또 지구촌시대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대원사 한인문화원은 1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사와 식당도 마련하고 있다. 고국의 불자들에게 개방하여 해외연수와 수련의 장소로 사용케 하는 것은 물론 여행객들도 사찰에서 숙식하며 관광과 신행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지하1층 지상5층에 건평 3천5백평 규모인 전통양식의 한인문화원에는 대강당, 광화문체연구소, 국제선원, 한인학교, 도서관, 박물관, 문화센터, 하와이 불교TV 스튜디오, 불교교양대학, 동서문화원이 들어선다.

대강당은 각종 회의실과 연회장 공연장 강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대와 관람석이 2층식으로 꾸며지며, 한국관계 도서 5천여권과 시청각 자료를 구비하게 될 민족문화도서관도 개설된다. 또 미국인 코골박사가 기증한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반출된 문화재 5백여점을 전시하게 될 박물관, 교민 2·3세들과 미국 어린이들에게 한글 태권도 서예 도예 다도 꽃꽂이등을 교육할 한인학교도 설립한다. 이와 함께 하와이대학 종교학과 8명의 교수진으로 동서문화원을 설립, 현지 미국인포교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원사 한인문화원 불사는 앞으로도 지붕개축 및 내부공사, 인테리어 비용으로 1백30만불(약 13억원)의 불사금이 필요해 현지는 물론 고국 불자들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다. 대원사는 불사의 중요성과 불사금 조달을 위해 내년 초파일을 앞두고 만등불사 대법회를 개최한다. 1만개의 전통등을 밝히며 한인문화원 불사의 의미를 전하겠다는 것이 대원사의 뜻이다.

올해 동안거를 맞아 미국 최초의 한국스님 선방인 태평선원(조실 숭산)을 개원하고 12월3일 동안거 결제에 들어간 것도 대원사의 중요한 체질 개선중 하나. 6명의 스님이 3월 2일까지 3개월간 용맹정진 동안거에 들어간 대원사는 선불교 전통을 이어받고 수행중심의 사찰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동안거에는 재가불자들도 아침·저녁으로 1시간씩 참가하고 있다.

또한 불자들의 신심함양과 로컬문화의 다양한 접촉을 위해 외국스님·학자 초청강연회도 다양하게 열고 있다. 이와 함께 불교강좌, 스님초청법회, 매주 1회 실시하는 한글학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주 화·수·토요일 김정빈법사(소설 '門'의 작가)와 차윤진법사 김덕조법사(前 군법사)가 근본불교와 불교사를 강의하는 불교강좌도 실시중이다.

한글학교에는 초·중학생 40여명이 한글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교사는 한국에서 유학온 학생들로 고국의 경제난에 따라 대원사에서 방사를 제공받고 한글학교 자원봉사활동으로 보답하고 있다.

공개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대원사의 운영주체는 신도회(회장 김정국)다. 대원사 신도회는 대중스님과 재가법사, 각 단위 신도회장등 사부대중의 모임체인 원로회의를 구성하여 매주 법회후 모여서 사찰현안을 처리하고 있다. 한인문화원 건립불사를 위해 신도회는 빈광동 팝기, 만두·김치·된장만들어 팔기 등의 바자회를 열치고 있다. 특히 20년전부터 만들어온 김치는 물론 매주 1회씩 노보살님등 신도들이 모여 빚는 대원사 만두는 한인사회에 인기가 높아 주문량이 밀려 주 2회씩 올려야 할 정도로 호응이 크다.

또 사찰과 신도회 차원에서 하와이 민주당과 공화당에 가입하는등 정당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생활환경 개선단체인 'FACE(페이스)'에도 가입해 포교기반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하와이=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하와이 대원사는

- 1975년 7월 기대원스님이 호놀룰루 한국총영사관에서 신도 90여명과 첫 법회 개최
- 1975년 9월 하와이주정부에 종교법인 등록
- 1979년 호놀룰루 칼로우계곡에 3천5백평 부지 매입
- 1982년 대웅전 명부전 종각 사리탑 일주문 건립
- 1983년 세계불교석학 초청 세계평화학술회의 주관
- 1988년 건평 3천5백평의 한인문화원 착공
- 1996년 신임 대원사주지에 도현스님 취임
- 1998년 한인문화원 건립공사 재개, 2천년 완공 계획
- 1998년 12월 태평선원 개원 동안거 결제


◇하와이 주법원 판결에 따라 10년만에 다시 불사를 시작한 하와이 대원사 한인문화원. 건평 3천5백평의 매머드 종합회관이 2천년에 완공된다.


◇하와이 대원사 태평선원 정진대중.


◇대원사 불자들이 김정빈법사의 강의를 듣고 있다.


◇한글학교 초등반 어린이들의 수업장면.

인터뷰 대원사주지 도현스님

"신세대교포 포교 전력"



"한국문화원의 건립은 교포 2·3·4세들을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마련하고 한민족을 한데 모으는 구심점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대원사 주지 도현스님은 한인문화원이 개원되면 그림전시회 사진전시회등의 부대행사를 수시로 열고 신세대 교포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미국인들에게 불교를 전파하는 것이 과제"라며 "동시번역체계를 갖춘 교리공부와 법회, 참선수행 프로그램으로 현지인 포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현스님은 "4천여평의 부지를 새로 마련 유치원과 양로원 납골당을 건립, 종합적인 복지사찰이 되도록 하겠다"며 "대원사 한인문화원은 해외불사 차원이 아니라 지구촌시대 국내불사 확대라는 인식으로 동참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도현스님은 80년 삼각산 도선사 재무를 거쳐 도미, 83년 미국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버클리대학을 졸업했으며 동경대학 윌란바토르대학등에서 수학하고 중국 북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인문화원건립 화주가 돼주세요"

대원사 한인문화원 완공을 위해서는 고국의 향기를 느낄수 있는 따뜻한 불심이 필요합니다. 한인문화원건립에 화주가 돼주세요. 만등불사 동참금은 1인1등 1만원(1구좌)으로 누구나 수시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계좌: 서울은행 14104-0219307 예금주 권도현

자세한 문의는 001-1-808-735-7858(미국 대원사)

목숨 아끼지 않은 포교



◇해인사 벽화 '이차돈 성사의 순교'.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23)

순교

한 종교가 어떤 지역에 정착, 확산되려면 선각자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포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종교의 전파를 위해 박해를 받다가 숨져간 순교자들이 종교역사에는 무수히 많다. 부처님 재세시에 부루나존자는 험하고 악조건의 변경포교를 자원, 수많은 사람들을 불교에 귀의시키고 그곳에서 죽었다. 가톨릭에서는 순교를 뛰어난 덕행으로 보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자를 성인이라 칭송하고 순교자를 장사지낸 묘위에는 교회당이나 기념당을 세웠으며 그들의 순교일을 각별하게 기념하고 있다.

신라에 불교가 들어올 때 불교의 홍포를 위해 목숨을 내던진 이가 이차돈(506~527)이다. 신라 법흥왕때 왕이 불교를 국교로 삼아 죽은의 번영을 도모하고자 했으나 여러 신하들의 반대가 극심했다. 이차돈은 왕과 약속하고 천경림에 절을 짓기 시작하는데 왕의 명령없이 단독으로 시작한 것이 밝혀져 사형을 당한다. 이차돈의 목을 베자 머리는 멀리 날아가 금강산(경주) 곡대기에 떨어졌고 잘린 목에서는 흰 젖이 수십장(丈)이나 솟아올랐다고 한다. 왼쪽 그림은 그러한 광경을 그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 사도 바울, 자스틴 등 가톨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다. 오른쪽 그림은 성녀 헤르미오네의 순교장면을 게오르기우스가 그린 것이다. 잘려진 목에서 붉은 피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게오르기우스作 '헤르미오네의 순교', 1000년경, 바티칸미술관 소장.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42장경 〈끝〉

(40)
(佛言)沙門行道 無如磨牛
(불언)사문행도 무여마우
身雖行道 心道不行
신수행도 심도불행
心道若行 何用行道
심도약행 하용행도

'사문이 팔정도를 따름에 있어 저 맷돌 돌리는 소와 같아서는 안된다.

몸은 비록 도 행하나
마음이 따르지 않으니
무슨 쓸모 있겠는가

몸은 비록 도를 행하나 마음이 도를 따르지 않으니 마음이 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거기에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41)
(佛言)夫爲道者 如牛負重行深泥中
(불언)부위도자 여우부중행심니중
疲極不敢左右顧視
피극불감좌우고시
出離於泥 乃可蘇息
출리어니 내가소식
沙門 當觀情欲 甚於於泥
사문 당관정욕 심어어니
直心念道 可免苦矣
직심념도 가면고의

'무릇 도라는 것은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 밭을 가면서 처음엔 피로가 극에 달해 좌우를 둘러볼 겨를조차 없다가 진흙 밭에서 빠져나오고서야 한 숨 돌릴 수 있는 것과 같다.

사문도 당연히 오욕칠정을 저 진흙밭보다 더 심한 것으로 보아 오로지 도만을 생각해야 고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42)
(佛言)吾視王侯之位 如過隙塵
(불언)오시왕후지위 여과극진
視金玉之寶 如瓦礫
시금옥지보 여와력
視紈素之服 如弊帛
시환소지복 여폐백
視大千界 如一訶子
시대천계 여일가자
視阿耨池水 如塗足油
시아욕지수 여도족유
視方便門 如化寶聚
시방편문 여화보취
視無上乘 如夢金帛 視佛道
시무상승 여몽금백 시불도
如眼前花 視禪定 如須彌柱
여안전화 시선정 여수미주
視涅槃 如晝夕宿 視倒正
시열반 여주석오 시도정
如六龍舞 視平等 如一眞地
여육룡무 시평등 여일진지
視興化 如四時木
시흥화 여사시목
爾時諸大此丘 聞佛所說 歡喜奉行
이시제대비구 문불소설 환희봉행

'나는 왕후의 지위 보기를 문틈 햇살에 비친 먼지같이 본다.

금은 보화를 기와 조각이나 돌멩이처럼 여긴다.

이 낡고 거친 옷이 내게는 비단같다.

삼천대천 세계도 내게는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

청량한 저 아욕지의 물도 내게는 발기름 같이 보인다.

방편의 설법은 요술로 지어낸 보석일 뿐이고 위없는 도리도 실은 꿈결의 비단과 다르지 않다.

불도 역시 눈 앞에 핀 꽃이나 다를 바 없다.

나는 선정을 수미산을 받치는 기둥

사문은 마땅히
오로지 도만 생각해야
고통을 면할 수 있다

처럼 보고 열반을 종일 깨어있음과 같다고 본다.

번뇌에 미혹되어 뒤집혀 있거나 진리에 계합이 되어 바름을 지키는 것을 여섯 용이 춤추는 것 같이 여기고 일체가 평등함을 둘 아닌 도리로 본다.

나는 중생교화를 사철나무같이 여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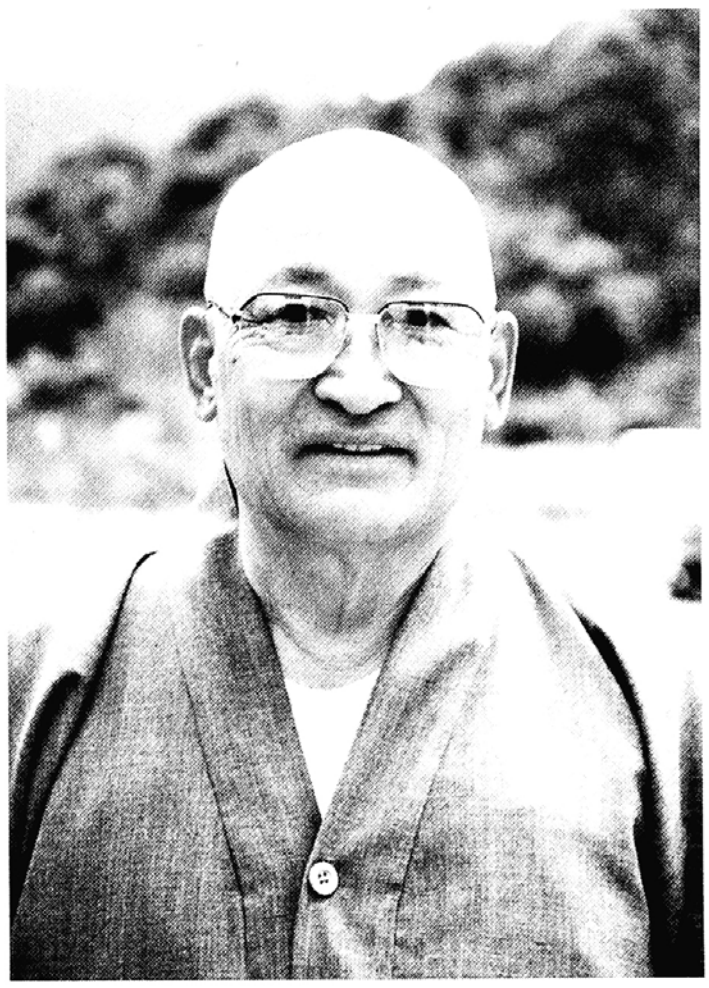
이에 대 비구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환희 봉행하였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잡초 뽑듯 중생병 고쳐야

아공스님 〈도솔사 주지〉



약력
- 1924년 충남 예산 生
- 45년 당진 몽산사로 출가
- 53년 청담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 64년 공주 마곡사서 비구계 수지
- 現 경북 풍기 도솔사에 주석

"계단 하나씩 딛고 올라야
정상에 이를 수 있듯
기본 수행 뒷받침 돼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죠"

오늘처럼 눈발이 날리고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 칠 때면 항상 행자 생활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리 춥고 힘들었던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돈을 주고 하려고 해도 그런 생활은 할 수 없으니까요. 도선사에서 청담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행자생활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도 행자시절이 잊혀지지 않는 것은 추위보다는 호랑이 같은 청담스님의 혹독한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자교육을 받았다기 보다는 고행을 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정진하다가 졸음이 오면 나도 모르게 깜짝 깜짝 놀라곤 합니다. 청담스님께서 '이놈아 정진을 아니하고 무엇하고 있는 거냐. 냉큼 일어나지 못하겠느냐'고 불호령을 내리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도선사에 가면 마애미륵불상이 있어요. 지금은 바람막이라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노천이었습니다. 눈바람이 몰아치면 그대로 맞아야 되고,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했지요. 도선사 대중들은 매일 아침 미륵전에서 108참회를 했지요. 봄 여름 가을철에는 그래도 할 만 한데 겨울철에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심내기는 고사하고 얼어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청담스님의 염불소리가 어찌나 느리신지 참회하는 시간이 다른 철에 비하여 몇배 더 걸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참회시간만 되면 청담스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한손에는 등불을 들고, 한손에는 경전을 들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참회문을 염송하는데 어찌나 길게 독송하시는지 108배 하기 전에 손발이 꽁꽁 얼어 동태가 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검은 고무신에 얇은 옷만 걸치고 생활했으니 오죽이나 추웠겠습니까. 당시만 해도 제대로 된 승복 한 벌 얻어 입기가 하늘에 별따기 였어요. 우리처럼 출가한지 얼마 안되는 스님들은 헌 승복하나 얻어 입는 것만도 감사할 정도였으니까요. 요즘은 승복이 자꾸 고급화 되어가지 않나 걱정됩니다. 승복은 법의입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 그속에 지고한 불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입는 스님들은 이것을 명심해 행동도 그에 걸맞게 해야 하지요. 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스님에게 비싼 승복을 보시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정신이 담겨야 합니다.

참회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맨발에 내복도 안입으시고 동참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성철스님이셨어요. 스님은 아무리 매서운 추위에도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참석해 절을 하시곤 했습니다. 절을 할 때는 빨리 해야 추위를 이길 수 있고 시간도 빨리 가는데 성철스님께서는 온갖 정성을 다해 천천히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청담스님은 염불을 천천히 하시고 게다가 성철스님까지 절을 천천히 하니 우리들로서는 108참회시간이 마치 지옥처럼 느껴졌지요.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지만 도망갈 수도 없고 울면서 스님따라 절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철스님께서는 수행하실 때는 무서울 정도로 하시지만 보통 때에는 그렇게 인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철스님께서는 냇가 건너편 청운당에 주석하셨습니다. 아침에 공양을 가지고 가서 보면 스님방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스님이 거쳐하고 계신 방은 제비집처럼 아궁이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 나무 한짐을 다 땠는데 방이 이렇게 차가워서 어찌합니까?"라고 문안인사를 드리면 스님께서는 "나는 괜찮아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행자님께서 여기까지 공양을 직접 가져오시니 노고가 많습니다"라고 오히려 고마워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수행하실 때는 뒤도 안돌아보시며 무섭게 하시지만 보통 때에는 너무나 자비스러웠습니다. 행자들이 염불이나 종성을 할 때면 가만히 들으시고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며 자상하게 일러주시기도 했습니다.

반면 청담스님은 우리 행자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즉시 불호령이 떨어지고 참회를 시켰습니다. 한번은 청담스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꾸지람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철스님께서는 "애들 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하시니까 청담스님께서는 "예전에 우리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대쪽같은 분이셨지요.

행자생활하면서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것이 바로 발우공양입니다. 요즈음 그렇게 발우공양하는 데가 아마 거의 없을 걸요. 지금까지 여러 사찰을 다니며 발우공양을 해 봤지만 도선사처럼 엄격한 곳이 없었습니다. 공양시간이 두 시간 이상이 걸렸으니까요.

선방에 앉아 화두를 참구하는 것만이 수행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중생활의 하나하나가 전부 수행이고 화두입니다. 그 가운데 발우공양은 가장 기본적인 수행 중 하나입니다.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딛고 올라야만 정상을 오를 수 있는 것처럼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수행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어찌 대오각성을 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밥먹는 것까지 모든 자질구레한 생활부터 바로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속에서 배우고 깨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다 수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공양을 하게 해주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공양을 함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공양하기 전에는 비어있는 발우를 보면서 온 마음을 청정하게 가져 번뇌가 일어나지 않토록 해야 하고 공양을

016 PCS 최저가격 · 최고보시 이만한 제품을 이만큼 싼가격에 준비하였습니다

부다피아 쇼핑몰이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고객 사은 잔치!

한화 G2-F21



절전기능
-세계최초의 광센서 착용
깨끗한 통화
자동 검색 기능
음성/문자 메시지 기능
17종의 다양한 전화 벨 소리
유해 전자파 방지 도료
(인체에 미치는 피해 제거)
전자 계산기 기능
자기번호 송출 기능
비상전화 다이얼 기능

크 기 125×44×26㎜
무 게 144g (소형 배터리 사용)
연속통화 배터리S 90분
배터리M 168분
배터리L 300분

사은 가격 50,000원
(가입비만)

한화 F31



현PCS중 최소형
한화의 새로운 PCS-F31
Sporty하고 세련된 디자인
초대형 화면 표시창
초경량 PCS
예절모드
일정관리

크 기 107×43×20㎜
무 게 77g (소형 배터리 사용시)
연속통화 배터리S 90분
배터리M 160분
배터리L 210분

사은가격 75,000원
(가입비분납)

삼성 애니콜



SMS서비스
이어마이크 폰 접속기능
음성 다이얼 기능
자기지역 번호 자동 다이얼
예약 통화 기능
알람 기능

크 기 114×50×22㎜
무 게 105g
연속통화 최대 240분/75시간
통화 대기

사은가격 20,000원
(가입비분납)

LGP-6200F



작고 단단한 싸이언
자동응답기능
독특한 전화벨소리
길어진 배터리 사용시간
말로거는 음성인식은 기본
자동조명기능
지역번호 자동다이얼

크 기 107×45×25㎜
무 게 89g (소형 배터리 사용시)
연속통화 배터리M 130~140분
배터리L 260~300분

사은 가격 60,000원
(가입비분납)

삼성 SPH-4700



최대 420분 연속통화/125시간
통화대기
매너기능
한글/영문 SMS서비스 기능
바로 전화걸기
전자계산기/스톱워치
대화형 문자정보서비스 지원

크 기 116×45×23㎜
무 게 105g
연속통화 배터리M 240분
배터리L 420분

사은 가격 65,000원
(가입비분납)

요금 납부 방법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재 해야 됩니다.
신용카드 결재 이외는 10,000원이 추가 됩니다.

※선불카드 2,000원 증점 증정
(부가서비스 자동연결 3개월 무료이용 요금)

신청서 접수
우편번호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부다피아 쇼핑몰 담당자 앞

전화 : 02-732-1522 / 737-8881(대표)
팩스 : 02-737-0697 / 737-0698,0696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006-01-0783-279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289770	현대불교신문사

큰스님 수행한담

수행 잘 할수 있어요”



◇ '수행을 잘해 중생제도를 회향해야 한다' 는 성철스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스님은 인근 사찰의 법회장을 찾아 법문을 자주한다.

“세상살이 어렵고 힘들수록 나 한사람 앞장서 봉사하면 사회전체가 나누는 풍토돼요”

한 뒤에는 발우를 닦으면서 번뇌를 소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공양할 때 빈 발우를 내 마음이라 생각하고 매일 매일 반조해 봅니다. 무릇 수행자들은 발우에 공양이 가득차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받은 음식은 위로는 삼보님께 공양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에게 베풀어 주노니 목마름과 주림을 없애고 무상도를 이루길 바랍니다' 라는 원을 세워야 합니다.

성철스님께서는 발우공양하실 때 항상 호궤합장하고 경허한 마음가짐으로 공양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가끔 “수행을 잘해서 중생 제도로 회향해야 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한다고 가르치기 보다는 먼저 실천해 보이시는 선지식이셨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러한 스님의 행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스님들의 용맹정진에 사표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너무들 먹는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음식 탐욕이 지나칩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솔잎가루와 소금간을 한 시래기하고 밥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소찬을 드시는데도 정진하실 때 보면 어디서 힘이 나시는지 대단합니다. 눈빛은 얼마나 밝으신지 제대로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스님께서는 늘 좋은 음식을 먹으면 산란한 마음이 일어나 수행의 마가 되니 삼가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도선사에 있을 때 불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번은 인부들이 거처하고 있는 숙소로 공양을 가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부들이 곡차를 권하는 거예요. 인부들과 함께 일도 했던 터라 친분도 있어서인지 인부들은 “스님, 곡차 한 잔 하시면 피로도 풀리고 내일 일하실 때 힘들지 않을 겁니다”라며 자꾸 권해요. 중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넙쭉 받아 먹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자꾸 권해 한 잔 마시고 절로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발우공양을 마치고 앉아 있는데 성철스님께서 부르시더니 “행자님, 어제 좋은 음식 자셨습니까?” 물으시는 겁니다. 한 잔 밖에 안 마셔 냄새도 안 나는데 곧바로 이렇게 아시니 질겁을 할 밖에요. '이놈아, 네 눈빛만 봐도 다 알아' 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청담스님께 이실직고 한 후, 에라 모르겠다 하고 “스님, 성불을 해야 겠는데 한잔 더 먹어야 겠습니다. 〈화엄경〉에 보면 천하일사미진수품이 있는데 술은 몇품이나 됩니까”라고 억지를 부렸어요. 부끄러움을 무릅쓰려고 일부러 한 행동이었지요. 그러자 스님께서는 아무말 없이 솔뚜껑과 지필묵을 가져오라 하시고는 무작정 '불(佛)' 자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자를 쓴 종이를 내 등에다 붙이시더니 솔뚜껑을 거꾸로 머리에 이고 경내를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잔밖에 안 마셨으니 조금 참회를 시키시겠지 했는데 하루종일 시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온갖 생각이 다 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망상들이 하나씩 없어지더군요. 그때쯤 되어 나를 부르시더니 “이놈아 지금까지 공부 잘못 했구나. 오늘은 제대로 공부했겠지” 고 하시는 거예요. 벌써부터 작은 계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어찌 가시밭길 보다 더 험난한 구도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잡초를 솎아줘야 하듯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네가 지금 앓고 있는 뿌리깊은 중생병을 치유하는 기초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러주신 거였지요. 결국 나는 그 실수로 인해 나의 참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청담스님과 성철스님으로부터 받은 엄격하고 자상한 교육은 지금까지 수행의 외길을 걸을 수 있도록 향도해 준 등불입니다.

두 스님께서 보여주신 수행으로 인해 나도 토굴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세계를 엿볼수 있었습니다. 특히 발우공양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면 심산유곡에서 홀로 수행하는 것이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혼자 토굴생활을 하다보면 가장 큰 둔제가 공양입니다. 성철스님이 일러주신 감자와 솔잎, 도토리 등으로 생식을 하니 3년여동안 한번도 시중으로 나오지 않아도 되었지요.

태백산에서 였어요. 바위밑에 거처를 마련하고 돌담을 쌓아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은 독사가 들어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라구요. 처음에는 무섭기도 했지만 계속 수행을 하니 되돌아 가더라구요. 간혹 들짐승들도 찾아 오곤 했습니다. 이런 일을 몇번 겪으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작용입니다. 내가 만약 그 독사를 쫓아버리려고 했다거나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그놈은 분명 나를 해치려 덤벼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해치지 않으려 한다면 남도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의 순리인 셈이지요. 이렇게 3년여동안을 두문불출하면서 토굴생활하다 시중으로 내려와 보니 맞닥뜨리는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욕망으로 이글이글 끓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 도저히 말을 건넬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다 그 순간 도선사 있을 때 성철스님이 일러주신 '수행을 잘 해 중생 제도로 회향해야 한다' 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이것이었구나. 홀로 있는 은행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성철스님, 청담스님과 같은 큰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다면 한낱 부처님 밥을 얻어먹는 소인배나, 부처님을 팔고 다니는 사기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진리는 법계에 가득 차 있지만 눈으로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참된 소리는 천지간에 울려퍼지는데 들을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진리의 근원을 우리 중생들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좌선도 염불도 이 세계를 꿰뚫어 보기 위한 방편입니다. 삼라만상과 우주까지도 궁극적으로는 한줄기 광명임을 통찰하는 것이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물질적으로 매우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나보다는 여러 대중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점들은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불필요하게 겪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음가짐만 바로 잡는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생길 이유가 없고 지옥이 바로 극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을 항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비심을 갖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지요. 자비심이 가장 존귀합니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내가 앞장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려 주고 남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한다면 기쁨은 파도처럼 이 사회에 퍼지고 자비가 넘쳐날 것입니다.

정리=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좌선도 염불도 진리세계 보기위한 방편

“행자시절 헌승복 얻기도 힘들었는데 …”

나의 수행일기



김문숙 〈부산불교문인협회 고문〉

“나쁜 일 하지말고 착한 일 많이하라”

불교 바로 믿는 가르침으로 되새김

중국의 대시인 백낙천이 항주대수로 부임하는 길에 만난 도림선사에게 불교의 진수를 물었는데, 선사는 이렇게 답했다. “나쁜 짓은 하지 말라, 좋은 일을 많이 하라” 시인이 그 답을 우습게 여겨 “그런 소리는 세살 먹은 아이도 합니다”하자 선사는 “세살 먹은 아기가 알고 있어도 80세의 노인이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다. 사람은 말하기는 쉬워도 나쁜 짓을 안하고 좋은 일 많이 하기가 욕심 많은 대중으로는 어렵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불교가 어떤 것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나는 이 도림선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항상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좋은 일 만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 자연스런 이치를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불자의 삶이라고 믿는다.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나는 어릴때부터 할머니 손을 잡고, 포교당을 따라다니며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이화여자대학 약학과에 입학할 때까지도 나는 오로지 이 세상에 종교는 불교만이 존재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대는 기독교 재단 학교였고, 예배시간과 기독교문학 시간 등을 통해 처음으로 타종교를 접하게 됐다.



학교를 졸업하고 문학활동을 시작하면서 나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했다. 그전에는 그저 마음만 불교신자였는데 문학공부를 한다고 일본을 오가면서 당시 일어로 발간된 〈반야심경〉 〈법화경〉 〈일본선사 일대기〉 등 불교관련서적을 직접 사읽어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전문적인 불교지식이 없었던 내게 그 책들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때서야 나는 〈반야심경〉의 공사상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깊은 가르침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다. 불자라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반야심경〉은 276자의 짧은 경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총괄한 경전이다. 석가여래는 인간이었지만 수행한 결과 고민과 고통끝에 정각한 붓다가 되셨기에 우리도 석존의 가르침 그대로 팔정도를 충실히 지키고 육바라밀 수행으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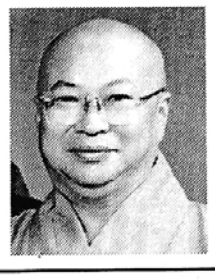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다' 공의 철학이 담겨 있는 이 경을 항상 듣기만 했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관련서적을 접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무무명 역무무명진(無無明亦無無明盡)' 그 깊은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무지와 망집에 찬 마음의 그늘이 번뇌의 근원이니 무명을 무무명하면 생로병사의 고통도 없어지고, 역무무명진 된다는 구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만이 아는 마음속의 추한 욕심을 쫓아 내고 위대한 지혜의 길을 걸어가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다. 또한 불교가 인간 삶의 정도를 가르치는 대단히 현실적인 종교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경전공부를 하면서 문학활동을 하던 중 89년 돌아가신 원광스님과의 인연으로 부산지역 불자문인들의 모임인 부산불교문인협회를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스님이 회장을, 내가 부회장을 맡으며 불교문학의 활성화를 위해 계간 불교문학지 〈실상문학〉의 발간도 시작했다. 불교문인회 활동을 하면서 일반인들보다 더욱 불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생활속 수행정진의 필요성을 절감했지만 사실 지금와 돌이켜보면 생각만큼 제대로 해내지 못한 면이 더 많다. 하지만 이왕 부처님과의 복된 인연을 맺었으니 그 깊고 아름다운 진리를 배워 내 인간완성의 길잡이로 삼고 문학수업의 기둥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요즘 불교계가 내부분쟁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일수록 실망하지 말고 도리어 불자 한사람 한사람이 더욱 정진해야 한다. 한사람 한사람의 수행역량이 그대로 한국불교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내 믿음이다. 〈계속〉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방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걸림 없는 성질 수행지표로 삼아



◇바람이 불 때마다 뎅그렁 뎅그렁 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풍경. 항상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는 경책의 의미를 담고 있다.

월 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21

바 람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따라 바람따라 살다가 가라하네.'

노래로도 불리는 이 선시처럼 바람은 조금도 머물러 있지 않고 걸림없는, 자유자재의 상징이다. 고정되어 있지 않는 무상의 존재인 바람은 우리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은 덧없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숫타니파타)에서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했다. 자유롭고 어떠한 것에도 걸림없는 바람처럼 온갖 생활잡사, 속박과 번뇌에 걸리지 말고 수행정진에 일로매진 하라는 가르침이다.

바람은 우주의 숨과 기운을 나타내며 지(地)수(水)화(火)와 함께 일체의 물질을 구성하는 4대(四大)중 하나의 요소로 꼽힌다.

풍(風)대는 생물을 성장시키는 작용을 하고 지(地)대는 땅으로서 딱딱함의 본질을 보위하는 작용을 하고, 수(水)대는 습성을 모으는 작용을 한다. 또 화(火)대는 뜨거움을 본질로서 성숙시킨다. 그리고 모든 생물은 다시 바람을 비롯한 4대로 흩어지게 마련이다.

또한 바람은 동서남북의 기본 방위뿐만 아니라 동남, 동서 등 중간방위의 기준이 되면서 공간구성론, 또는 분할론의 준거가 된다.

바람은 부드러울 때는 풍요의 숨결, 삶의 약동성 등을 나타내기도 하나 풍상(風霜), 돌풍, 광풍 등에서 보는 바람같이 인생의 험한 역경이나 폭력, 파괴를 상징하기도 한다.

■육조의 설법

육조 혜능스님이 남쳬현 제지사에 묵고 있을 때였다. 거센 바람에 깃발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두스님이 싸우기 시작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아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입씨름은 끝을 보지 못했다.

혜능스님이 이를 듣고 말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강사가 물었다. "그러면 무엇이 움직인다는 말입니까?"

이에 혜능이 답했다. "두사람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이는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일어나 마음에서 해결된다는 깨우침을 주는 유명한 공안이다.

■용

비나 바람을 일으키거나 몰고 다니는 대표적 동물이 용이다. 특히 돌개바람(회오리바람)은 꼬리가 땅에 붙은 거대한 용의 형상을 연상시키며 바닷물이 회오리바람과 함께 휘감겨 기둥 형태로 높이 솟아오르는 것을 '용권' 또는 '용솟음 현상'이라고 한다.

용은 반인반사(半人半蛇)로 표현되는데 불교를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신장으로 부각되어 호법룡 호국룡으로 믿어졌다.

■풍경

바람에 흔들려 소리를 울리는 풍경은 법당이나 불탑의 처마에 매달아 놓는 불구이다. 풍경은 방울에 경세(警世)의 의미로 고기모양의 얇은 금속판을 매달아 두는 것이 상례인데 이는 항상 물고기처럼 깨어있어, 공부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즉 바람불면 '뎅그렁 뎅그렁' 소리로 고요한 사찰을 살아있게 하여 수행자의 방일이나 나태함을 일깨우는 것이다.

풍경은 선문답에도 나온다. 서천 28조 가야사다스님이 승가난제스님에게 출가했을때 승가난제스님이 물었다. "방울이 우느냐 바람이 우느냐"는 질문에 "바람도 아니요, 방울도 아니며 제마음이 웁니다."

풍경은 신라 감은사지 출토의 청동풍경과 백제 미륵사지 출토의 금동풍경이 대표적이다.

■부채

불교에서 부채는 부처님을 모셔오는 시련행렬때 사용하는 의식용으로도 쓰이고 도(道)의 전수로도 사용됐다. 지눌스님이 혜심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 들고 있던 부채를 주었다. 이에 혜심은 "전에는 스승의 손에 있던 것, 지금은 제자 손바닥으로 왔네. 만약 미친듯 달리면 맑은 바람 부쳐 일으켜도 무방하리."라고 읊었다.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부채를 전함으로써 도를 전수했다고 한다.

또 무속에서 부채는 제의기구의 필수품인데 승려 3명이 나란히 그려진 삼불선은 불교와 무속이 습합하는 과정에서 그려진 무구이다.

■창

창은 바깥세계로 향한 열림의 상징이다. 바람을 맞이하는 통로가 되는데 불교에서는 창을 광명의 들목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창은 광명을 받아들이는 곳이면서 세속세계를 종교세계로 향해 열어놓은 들목을 표상한다. 그림자가 어릿하거나 빗소리, 바람소리가 설레는 창에는 간절한 그리움과 기다림 또한 투시되어 있어 많은 시의 소재가 되고 있다.

■풍류(風流) · 풍수(風水)

원광법사가 세운 불교정신에 기반하여 삼국통일을 이끌었던 화랑도는 풍류(風流)와 풍월(風月)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는 대자연에 노닐며 몸과 마음을 닦는 의미가 있다.

이를 보면 화랑도의 바람은 풍월과 풍류라는 말을 통해 자연의 섭리나 이법등을 상징했다. 자연에서 일깨워지는 시정과 인생의 섭리, 한묘의 도는 곧 풍월로 표상됐으며 나아가 8계를 지킬 것을 서원하는 국가적 불교행사인 팔관회로 표현됐다.

또 집의 터를 본다든가 무덤자리를 정하는 등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 깊게 스며있는 풍수(風水)는 인간과 기후와 풍토 그리고 물의 조화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도선국사는 자생 풍수사상의 원조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통사찰들은 풍수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깃발

바람에 펄럭 펄럭 움직이는 기(旗). 사찰에서 불전이나 불당앞에 세우거나 올리는 당번(幢幡)은 기도나 법회등 의식이 있을때 부처님과 보살의 위신으로 마군(魔軍)을 굴복시키는 표시이다.

기(旗)는 죽은이를 심판하는 명계(冥界)의 왕이며 지장의 화신으로 불리는 염라대왕이 거처하는 곳이라고 한다.

또 남방불교를 전한 가락국 수로왕의 왕후인 허황옥공주는 원래 인도의 아유타국 공주였다. 수로왕은 꿈에 하늘의 상제가 배필로 공주를 맞이하라는 계시에 따라 유가천으로 하여금 망산도에 가서 기다리게 하였다. 그런데 왕의 말대로 남서쪽 바다에서 붉은 돛을 단 배가 붉은 기를 휘날리며 왔는데 허황옥공주가 타고 있었다.

가락국은 허황옥공주가 왕후가 되자 점점 국가와 불교가 융성해졌고 백성들은 허왕후가 죽은뒤 은혜를 기리기 위해 붉은기를 달고 배가 들어온 곳을 기출변(旗出邊)이라고 하고, 붉은 기는 행복의 예보를 상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찰에는 당간지주가 많이 남아 있는데 깃발모양의 번이나 여러가지 비단을 거는데 쓰였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바람에 천의기 날리는 비천상. 사진은 강화 보문사 대웅전 천장의 비천상.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는 교를 전수하는 상징물로도 쓰인다. 구산스님의 부채.

우주의 기운…생물 성장에 작용

처마끝 풍경은 수행자 나태함 경책 법구

부채 전법의 도구 깃발 조사공안에 등장



◇ '깃발이 움직이는가? 바람이 움직이는가?' 6조 혜능대사의 답을 행여보자. 사진은 영산재 모습.

일주문에서 다비까지

절에서 배우는 불교

사찰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사찰에 숨쉬는 불교의 사상과 장인혼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속에는 불교의 사상이, 부처님의 숨결이, 그것을 만든 장인의 불심과 합일된 장인혼이 살아 있다. 하지만 솔향 그윽한 사찰 속에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불교의 상식과 의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편집 이 책은 일주문을 비롯한 산문을 시작으로 각 사찰의 천각, 불 · 보살상, 탱화를 비롯한 각종 불화와 내 · 외형장엄물, 의식구, 장엄구, 공양구, 생활용구, 상징물 등을 사진과 함께 담아 사찰의 전부와 그 속에 깃든 불교의 상식과 의미를 한눈에 볼 수 있다.

145항목에 걸친 사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절을 찾는 모든 분들에 이 책을 들고 찾기를 권한다. 일주문으로 들어와 절에서 접하는 갖가지 조형물, 상징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사찰을 둘러보고 일주문을 나설 때는 한결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우리출판사 간/혜자스님 편/본문 336면/ 값 12,000원

혜자스님은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도신사에서 동진출가하여 청담큰스님을 모시고 도신사에서 많은 소임을 살았다. 동도사 승가대학에서 경학연찬, 송광사 선원에서 수선안거를 했다. 수락산 도인사를 창건했고 도선사 부주지 등의 소임을 살면서 참학열을 불태워 동국대 불교대학원 제12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스님은 17년간 태마다 노원구 할아버지 · 할머니들을 초청하여 경로위안잔치를 베풀어왔고 불우노인들을 돌보기 위해 충주에 '자혜양생원'을 설립했다. 저서로는 《사람노릇하고 살기가 어디 그리 쉬운가》 《산중명상집》 등이 있다.

우리출판사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팩스 (C2)393-9696

과연 전생은 존재하는가, 아니면…

종 · 본 · 스 · 님 · 의 · 전 · 생 · 찾 · 아 · 떠 · 난 · 길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나는 나로서 영원히 존재한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보면 영혼불멸에 대한 체험적 기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신비의 베일에 싸여 있는 사후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기록들을 추적해 보았다. 이로써 죽음이란 단지 말이 죽음이지 '나'는 '나'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고자 하였다.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

인간은 죽음 앞에 평등하다.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진시황도 죽었고 일세를 풍미하던 영웅호걸도 모두 죽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정된 죽음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번 태어난 생명은 죽음을 통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언제까지나 무심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자성을 깨우쳐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

사람들은 사느라고 죽음에 대해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한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일인가와 똑같은 문제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알음알이의 본성(本性)을 깨우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 나를 구원하는 것을 나 이외의 것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자성(自性)을 깨우치면 되는 것이다. 자성을 깨우치고 선업을 닦아야 뭔빛 밝은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종본스님 엮음/본문 249면 /값 7,000원

우리출판사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팩스 (02)393-9696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나' 쑥 빠지면 그대로 여여한 자리

업탓인지 귀가 잘 안들려요

문 태어날 때부터였는지 아니면 크면서 잘못 되었는지 모릅니다만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한마음 주인공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전생에 못할 짓을 많이 해서 귀가 어두운지 답답해서 무당집에 가서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전생에 관한 책을 모두 사보아도 모르겠고 스님들의 좋은 책 많이 읽어보아도 답답합니다.

클 때나 지금이나 사는 것은 어렵고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남의 말소리를 금방 못 듣고 답답하니까, 자꾸만 사주가 알고 싶어서 점을 보러 갑니다.

대구에 어떤 분이 기치료로 귀신도 물리치고 병도 고치고 하는데 저를 보고 영가의 병이라며 귀가 잘 들리게 해 준다고 백만원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줬습니다. 그러더니 또 20만원, 50만원 가져오면 낫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돈이 없어서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돈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절에도 못 가게 하고 자기만 믿으라면서.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서두가 많아서 좋은 한말씀 듣게 되면 저도 베풀면서 살고 싶습니다.

전생의 업인지 아니면 기도로써 풀 수 있을런지요.

답 내 집이 빈 집이라면 온갖 짐승이 드나들고 풀벌레가 와서 살고 집이 엉망이 되겠지요.

그래서 옛날 어느 조사께서 네게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줄 것이요 네게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뺏으리라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댁 모양으로 바깥으로 빌고 누가 뭐랜다고 거기에 매달려 의지한다면 그게 빈 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절에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안으로 들이대고 안으로 믿고 안으로 놓고 기도를 해도 해야지 바깥으로 무당에 끄달리고 귀신에 매달린다면 기껏해야 무당이나 귀신 밖에 더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공부를 하려면 고깃덩이 내 모습도 믿지 말고 네 자신을 믿고 법을 믿어 직접 행하고 맛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누굴 믿고 누구에게 뭘 갔다 준다고요?

또 전생의 업이 어떠니 하시는데 전생의 업이라는 것도 지금 내가 다 짊어지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녹일려면 지금 내가 스스로 녹여야지 누가? 남이 기도로 풀어준다고요? 정신차리셔야 합니다. 나무는 제 뿌리를 믿을 뿐이지 아니 잎새나 가지가 목이 마른데 옆에 딴 나무 뿌리를 보고 '물 좀 올려 보내줘' 이런다면 그게 도움이 됩니까? 제 뿌리에다 대고 그래야

> "잎새 · 가지 목 마른데
> 딴 나무뿌리 보고
> 물좀 올려 달라면
> 그게 도움 됩니까"

물도 올려주고 그래서 푸르르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망념이 끊이질 않습니다

문 큰스님께 배우고 싶은 것은 참선 방법입니다. 소생은 어쩐 일인지 정신을 가다듬고 앉아서 참선 공부를 하려고 애써 노력해도 사심이 단 1, 2초 사이도 없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로 사회 만류가 연속적으로 정신을 빼갑니다.

어떻게 하여야 무심으로 참선이 되는지 가르쳐 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답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면 송장이게요? 억지로 무심이 되겠다 해서 무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심이란 목석같이 되는 게 무심도 아닙니다.

모든게 찰나찰나 나투고 나 또한 고정되게 어느 것 할 때의 나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본래가 공이고 무심인 겁니다. 다만 모두들 고정되게 보고 고정되게 생각하고 '나', '내 것이다' 하니까 무심을 말하는 겁니다.

'나' 하나 쑥 빠지면 그대로 여여하니 일심이 무심이고 그렇지요. 그러니 자리를 틀고 앉아서 이제부터 무심이 되어야겠다 해서는 백날가도 소식이 없을 겁니다. 그것 조차도 놓고 가세요. 본래 놓고 가는 것이니 따로이 놓는다 할 것도 없지만 그걸 모르니까 놓고 또 놓으라고 하는 것 뿐이지만 말입니다.

식당운영상 동물을 잡는데

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동물이 들어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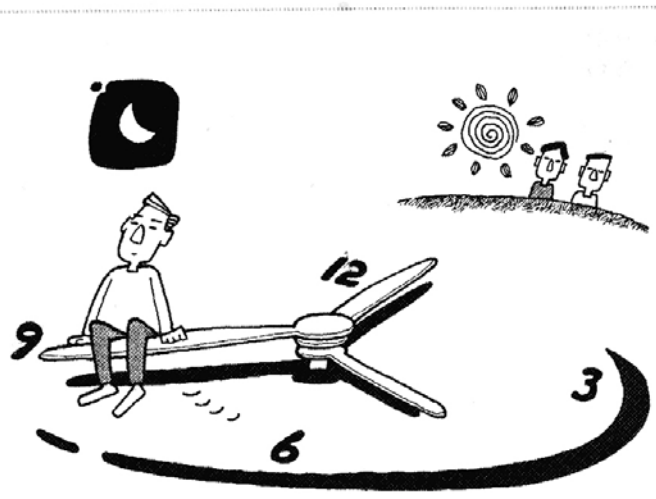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한마음으로 지극하게 돌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게 싸안으면 그것으로 천도"

살생이 불가피한지요. 그런데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스님 말씀 가운데 세균성 · 업보성 · 윤회성 · 영계성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동물들은 매일 천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제 나무가 아직 튼튼치 못하니 이 짓을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답 왜 스스로 제 나무가 튼튼치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이 튼튼하면 내 나무도 뿌리가 든든할 것이요, 내 믿음이 약하면 내 나무의 뿌리도 약하겠지요.

그러나 못나도 내 어머니요 잘나도 내 어머니가 제일이듯이 내 믿음만큼 뿌리는 튼튼하다 약하다가 없이 내 믿음만큼 힘을 배려해 줍니다. 말하자면 전력은 얼마든지 공급되는데 끌어 쓰는 사람에 따라 크게 쓰기도 하고 작게 쓰기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한마음으로 지극하게 돌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게 싸 안으면 그것으로 천도가 됩니다.

공연스레 이래가지고 천도가 될까 안될까 하시면 서류를 넣다 뺐다 하는 것과 같아 결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외삼촌이 암으로 위독합니다

문 안녕하세요. 큰스님.

아직 한마음선원에 가보진 못했지만 주변에 나가시는 분이 있어서 비디오로 법문을 들은 적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저희 외삼촌께서 백혈병으로 많이 아프십니다. 사실은 이제 임치료를 받으시다가 위독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삼촌을 위해 제가 해드릴 것이 없어서 가끔씩 관세음보살을 외우고 있을 따름입니다.

오늘 병원에 가니 주변분들은 어느새 돌아가실 것을 준비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속으로 삼촌을 살려주십쇼 하면서 관세음보살만 찾았습니다.

제가 제 할 도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요? 혹 이제는 저도 차라리 편안히 가십시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건지요?

누구나 떠나야 하는 것이겠지만 주위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또 아직 어린 사촌 동생들에게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걸까요?

답 관세음보살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빌면 그건 타력신앙이 되구요 공덕도 없습니다.

비디오를 보셨다니 길게 말 안해도 조금은 아실테지요.

다시 말하자면 관세음보살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마음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형성시키고 끌고 다니는 주인, 주인공 또는 참나라고 해도 되지만 그 자리에 관세음보살도 있고 지장보살도 있고 약사여래도 있고 칠성, 신중도 있습니다. 그러니 밖으로 찾지 마시고 안으로 내 한마음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맡기면서 '주인공! 암이 들게 한 것도 거기요 낫게 하는 것도 거기이니 죽이든 살리든 주인공에 맡기리다'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주인공, 삼촌의 주인공이 본래 한마음이니 간절한만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이든 살리든 철두철미하게 믿고 맡겼을 때 이 육신, 심부름꾼에 불과한 육신을 살릴 거면 살릴 것이고 그만 옷을 벗고자 하면 벗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인생이란 누구든지 한철 살다가는 것인데 탁 놓고 믿는다면 주어진 배역 맡았다가 때가 되면 훌훌 털고 무대에서 내려올 것이고, 내려 왔으면 또 다음 배역이 주어질 테니까요.

삼촌에게도 그런 말 해드리고 본인도 굳게 굳게 그렇게 한다면 한마음이 서로 통해 마치 전깃줄과 줄을 이어 불이 들어오게 하듯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바라는 마음까지도 다 맡겨 놓는 게 우선입니다.

생활에 자신감 잃었어요

문 저는 불교신도는 아니지만 불교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를 통해 드리고 싶은 질문은 불교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 저 자신의 생활에 대한 일종의 상담입니다.

사춘기가 지난 후 주위 친구들의 영향으로 진리나 도에 관심을 가졌고 나름대로 높은 꿈과 이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당장 현실의 생활면에서 너무 무능하고 자신감이 없고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이란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원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하고 싶은 데 맘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의 자신을 잃었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퇴하는 듯한 생활을 돌이키고 싶을 때 어떻게해야 하는지 조언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 일체를 내가 한다는 그 생각, 잘했다 못했다는 그 생각, 나로소이다. 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놓아보세요. 말하자면 일거일동에서 한번 '나'라는 생각이 쑥 빠진채로 임해보시란 얘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생활하는 중에 일일이 '내가 한다'는 생각을 따로 챙기지 않고도 배고프면 밥 찾아먹고 목 마르면 물 찾아 먹고 졸리면 잠자고, 부모가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예' 하고 그냥 응대하고…, 그렇게 하질 않습디까? 아주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밖에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97)

이 꽃 저 꽃 마음대로 골라 꽂꽂이 하듯이

어느 것 하나 이심전심으로 말 안 듣고 말 안 하는 게 없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처님을 상징으로 모시고 한자리에 앉았을 때 모두 부처님에게로 합쳐지기도 하고 부처님이 내게로 합쳐지기도 한다. 또 모셔 놓은 영가의 위패를 내 마음에서 둘 아니게 한마음으로 돌린다면 영단을 치워 버릴 수도 있고 목신 · 지신을 둘 아닌 마음에다 넣는다면 나무를 자르거나 산을 헐어내도 아무 일이 없게 된다. 이러한 도리는 예를 들어 기계에도 통하니 내 마음을 기계로 합쳐 주면 나도 기계가 될 것이고 기계를 내 마음으로 한데 합쳐 둘 아니라고 볼 때는 둘이 아닌 까닭에 무난히 작업이 잘될 것이다.

우주 정거장을 세운다, 미사일을 띄운다 할 때에 물질이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마음이 거기에 종합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새가 나는 것도 마음이 있기에 난다. 꽃도 마음이 있기에 피고 바람도 마음이 있기에 솔솔 분다. 일체 만물의 근원을 알면 마음으로 상응하고 감응할 수 있다. 고로 이 천지가 다 손 안에 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죽은 사람 산 사람, 유생 무생이 둘이 아니고 풀 한 포기에도 불성이 있으니 이를 응용하기에 따라서는 하나가 만이 될 수 있고 만이 하나로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백이 일천을 당적하고 오만이 십만을 상대할 수 있는 이치가 있다. 마음의 손자 병법인 것이다.

기적이란 없다. 모든 중생이 본래로 전지 전능한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 몰라서 못하고 몰라서 못 쓸 뿐이지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병이 고쳐지고 안되던 일이 좀 이루어졌다 해서 능력을 받았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지 말라. 좁은 소견에 불과하다. 기적은 없다. 모든 생명에게는 완전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기적이 당연한 것이요, 유한하게 산다는 것이 오히려 기이한 것이다. 기적은 없다. 오히려 자유 자재하지 못하는 중생이 대다수이기에 기적이 특별하게 보일 뿐인 것이다. 꽃이 피어 아름다우니 기적이요, 새가 지저귀니 기적이다.

전체 생명들을 다 합쳐서 꽃꽂이를 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꽃꽂이를 할 때 이 꽃 저 꽃을 마음대로 골라 꽂듯이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마음의 꽃들을 한데 모아 한번 꽃꽂이를 해 보자.



모든 존재는 마음의 차원대로 그 수준에서 각각 살아가게 마련이다. 아이들이 어른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같은 중생간에도 더 높은 차원에서 사는 사람의 뜻을 낮은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중생은 보살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마음으로 사람이 지옥고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로 승천하기도 한다. 마음 한번 잘못 쓰는 데서 바로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구덩이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중생들은 마음씀씀이 하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산다. 천상의 복, 지옥의 죄가 다 한생각에 의해 좌우된다.

사람의 마음에는 수천만 가지의 층하가 있다. 그런데 사실 그 층하란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곧 관념이다. 자기의 생각여하에 따라 마음의 차원이 달라지므로 한생각이 참으로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마음이다. 육신이 죽어도 죽어질 수 없는 마음, 자기가 지은 행위로부터는 그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마음, 그래서 마침내 깨달을 때에 가서야 해탈이 되는 이 마음의 진화만이 가장 소중한 단 한 가지 일이다.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럼에도 거꾸로 마음을 타락시키느라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

모든 고통과 기쁨은 마음에 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마음이다. 예를 들어 행복이란 잘나고 못나고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못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달려있다. 잘나려고 하기보다는 그 잘나려고 하는 마음까지 내려놓고 푹 쉬어 보라. 참된 행복이란 잘난 기쁨 그 이상의 것이다. 양면을 초월한 중도의 기쁨이 참다운 기쁨이다.

마음 도리를 알면 모든 게 화평하게 돌아간다. 신체적으로는 누구나 다 자기를 이끌어 갈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니 그렇고, 가정적으로는 주인공의 발현으로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게 되니 그렇고, 사회적이나 정치적으로는 질서와 조화속에 앉은 방석을 지키는 이치가 밝게 이끌어지니 그렇다.

협찬 : 주 인 공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관세음 · 지장보살 내 마음 자리에 있어

☞ 15면에서 계속

다른 생활도 그렇게 대처하실 수는 없는 가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는 모든 일에서 '내가 한다'는 생각에 젖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나'는 정체가 뭡니까? 누구입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또는 한발짝 내딛고 또 내딛으며 걸을 때 그건 누가 하는가? 거기에 '나'라는 의식이 붙어 돌아가는가? 그냥 자동적이지요.

딱히 내가 한다는 의식이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그냥 행동만 드러나 있질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내가 소화시켜야지'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소화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주체를 불가에서는 '참나'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주인공을 외면하고 '나'라는 관념을 제 주인으로 잘못 알아서 '내가 했네, 내 것이네' 하면서 갈등하고 번민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무능하다 못났다 잘났다 하는 생각에 휩싸여 울었다 웃었다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일체를 주인공에 맡기고 살라, '나'는 쓱 빠져라 하는 겁니다. 이름하여 '나'라고 하는 그놈이 할 일은 '주인공! 알아서 하시오' 하고 맡긴채 행동 그 자체로만 남는 것입니다. 주인공의 하인으로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나'를 고집할 것 같으면 달리 말해서 '내가 하면서 왜 잘 못한다'고 누굴 탓할 것이냐 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은 찰나찰나에 변하고 바뀌니 본래 그 '나'는 없는 겁니다.

너와 나 다른데 한마음인 까닭

문 만사람이 깨쳐도 한부처를 깨친 것이라 하니 이것이 무슨 뜻인지요. 엄연히 상대가 존재하는데…

수많은 선각자들이 깨쳐도 나는 괴로운데요…

너와 내가 뚜렷이 구별되어 있는데 왜 한마음이라 하시는지요.

답 물 한잔에 물을 부어도 여전히 물 한그릇이지요.

그러니 어느 물이 내 물이요 어느 물이 네 물인가요. 그럼에도 모두들 내 물 네 물하니까 그래서 이름하여 중생이라 합니다.

주인공 매달리면 집착인지요

문 주인공을 관할 때 부담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돌려놓는 것인지, 아니면 한생각 간절하게 날 때마다 관하는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경계에 부딪쳤을 때 주인공에게 매달리는 제모습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 또한 집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바른 관법을 가르침 바랍니다.

답 주인공은 대상이 아닙니다. 나의, 너의 근본 불성자리를 이름하여 주인공(主人空)이라 한 것 입니다.

그러니 매달린다 하는 게 없지요. 매달리면 벌써 대상으로 삼는 것이니 타력이 됩니다.

수억겁 전으로부터 나를 형성시켰다고 끌고 온 그 자리에 지극한, 아주 사무치는 믿음으로 놓고 맡기고 지켜볼 뿐입니다, 나는.

'이 세상이 꿈과 같다'는 뜻

문 〈금강경〉에 보면 일체 유위법은 꿈과 같고 헛것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이 세상을 볼지니라"라는 사구게(四句偈)가 나옵니다.

스님, 이 세상은 꿈과 같다는 말 역시 인간의 마음이 끊임없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과거에 끄달리거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인간의 마음이 치달리기에 이 세상은 꿈과 같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참 뜻은 한마디로 '꿈깨라'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결코 현재에 주(住)하지 않기에 부득이 큰스님들께서 언어를 빌려 '무심(無心)이다', '무아(無我)다' 하신 것 아닙니까?

답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일심이지요. 일심이고 무심이지요. 전자에 내가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뜻으로 지은 게 다 지금에 쟁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심이 현재심 아닙니까? 그래서 3천년전이 오늘이요 오늘이 3천년전 입니다.

영원한 오늘이라고 해도 되지요.

마음이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한다는데 그게 다 현재심입니다. 찰나찰나 나투는 현재심 속에 과거심도 있고 미래심도 있습니다.

수박씨를 심어 올해 수박이 열리고 올해 수박씨에서 다시 내년 수박이 열릴 것이니 어디에 과거씨가 있고 미래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심도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나투고 있으니 현재다 오늘이다 고정되게 말할 게 없지요.

아들이 아버지!하고 부르니 내가 아버지 이다가 부인이 여보!하고 부르니 어느새 남편이 됩니다. 이거다!라고 규정지을 게 없질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다'라고 규정짓는 유위법을 몽환포영이라 할 밖에요. 아시겠습니까?

마음 空 한줄 알고나니 웃음이

문 마음의 본바탕이 허공임을 알고 하루종일 웃음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바탕과 합일하는데 최소 1시간은 참선을 해야 합일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참선은 행복합니다.

2개로 보지는 않으나 걸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걸림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일체의 행·말·뜻에서 '나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나'가 죽어야 본래면목과 계합이 됩니다. 거기엔 내가 알았다 라는 것 조차도 붙질 않습니다.

마음이 좀 편하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느끼시는 모양인데 그것대로 좋긴 하겠지만 내가 죽고 또 죽어 일체와 둘이 아님을 깨닫고 둘 아니게 나툴 수 있어야 열매가 무르익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논하지 말고, 일체 경계는 내 마음자리에서 나온 것 다시 그 자리에 되놓고 되놓고, 연방 되놓아 가도록 하세요. 그래야 과거에 입력된 것이 몽땅 지워져서 공테이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버려야 나툼 가능한지요

문 인간의 고정된 생각을 벗어났어도 아직 자기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은 자기자신을 나투기는 힘드는지요?

답 고정된 생각에서 아주 벗어나고 그래서 일체는 고정됨이 없이 나투니 공이요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 라는 걸 알면 이미 '나'는 공해서 있다 없다 할 것이 없지요.

생각만으로 '고정된 게 없다더라' 해서는 아직 벗어난 게 아닙니다.

주인공 믿는 게 곧 놓는 건지요

문 이렇게 스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어 기쁘고 큰스님의 가르침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요즘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주인공이 있으니 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깐 이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일에 대한 것은 곧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근본자리에 놓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또 그렇게 의식적으로라도 자꾸 스스로에게 얘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모른다 궁금하다는 생각까지도 놓으세요.

모르면 '알게 하는 것도 주인공 너뿐이다' 하고 놓고 궁금하면 '주인공 궁금하지 않게 가르쳐 봐' 하고 놓으세요.

놓는 공부엔 믿음이 첫째로 중요하다는 걸 잊지마시구요.



그림 · 최주현

참선중 손이 떠 올라 당황

문 편집장님!

저는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어려서부터 항상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교에 관한 내용이라면 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군에 있을 때 사단 법당에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가는 법당에서 보는 현대불교신문은 저의 애독지가 되었죠.

저는 군에서 일주일에 한번 가는 종교행사 때 빠짐없이 법당을 찾았습니다. 저 자신이 길을 찾기위한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죠.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일요일 행사 시간에 참석하려고 노력하였고 어쩌다 참석 못하게 되던 실망과 괴로움이 남곤 했었지요. 당시 사단법당의 법사님도 항상 장병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때 〈금강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금강경〉이라는 경 이름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리고나서 저는 제대후 〈금강경〉을 가지고 독송을 했습니다.

집에서 하루에 한번 아침 정해진 시간에 3번을 혼자서 큰소리로 독송했습니다. 경을 읽기 전에는 항상 샤워를 하였고 방을 청소하였고 향을 피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달 정도가 되니까 처음 읽을 때만큼 힘들이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경을 읽고 있는 순간이 힘들고 하기 싫은 적이 있었지만 다 읽고 나면 어떤 뿌듯한 감정이 남곤 하여서 재미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가 지나자 어떤 색다른 감정이 들더군요. 3독을 하여도 처음 시작할 때만큼 개운하지도 않고 여운이 남는 것 같고 머리도 약간 부담이 가는 것같고 여하튼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군요.

그래서 계속 며칠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자 하루는 3독을 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양손을 무릎에 놓고 참선을 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니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군에 가기 전부터 저는 책을 통해서 참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3독을 하고 난 뒤에는 참선을 했습니다. 길 때는 30분이고 못해도 20분은 했습니다. 거의 한달하고도 보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참선을 하는데 무릎 위에 있던 손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떠고 보니 양 손이 머리 아래 턱 정도까지 올라 가는 것이었죠. 깜짝 놀란 마음과 두려움에 그냥 손을 내리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을 두고 반복되었죠. 저는 항상 손이 올라 가려고 하면 그만 두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가만히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올라가는 양손은 거의 머리 아래 턱정도에서 멈추더니 손목이 갑자기 앞으로 꺾였습니다.

그 전에는 양 손바닥이 하늘로 향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손목이 요동을 치는 거에요. 정말 너무 강렬하게 요동을 쳐서 저의 몸이 주체를 못하겠데요. 마구 마구 새가 날개짓하듯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거죠. 저절로 멈추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20분 30분이 흘렀는데도 멈출 기색이 없데요. 저는 손목이 무지 아팠습니다. 등에는 땀이 한바가지였구요. 도저히 힘들어서 그냥 손목에 힘을 꽉쥐고 멈추려고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멈추었고 저는 기진맥진하여 그냥 방바닥에 주저 앉아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도저히 겁이 나서 독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읽고 싶다는 생각이 안들데요. 그리고나서도 항상 경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뒤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겠다 싶어서 상대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아는 절, 아는 스님도 없고 가족이나 친구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런 일이 있은후 어떤 날에는 머리가 너무나 아픈적이 종종 있었고 잠을 자면 항상 이상한 게 보이고 그래서 항상 그게 두렵고 … 제대로 잠도 못이루고 헛소리도 하고…정말 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쉽게 남한테나 가족한테 말할 수도 없고 혼자서 끙끙하곤 하였습니다.

지금은 머리 아픈 것은 별로 없어도 잠을 자려고 하면 항상 저는 이상한 감정에 싸여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 하고 만나게 되고 저는 이겨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러면 그날은 항상 잠을 깊게 못자고 다음날 생활하는 데도 지장을 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 할머니 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할머니는 그 이상한 경을 읽어서 귀신을 불러들인 것이라면서 경을 읽지 말라는 말을 하였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금강경〉이 어떻게 그런 하찮은 귀신들이나 불러주는 경이겠습니까?

지금은 〈금강경〉도 읽지 못하고 그 당시만큼 신심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고 삽니다. 학생이지만 공부도 안되고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상대자도 없고…

신문에서 대행스님의 상담하는 것을 보고 한번 여쭈어 보아야지 하고 벼르다가 지금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괜히 글을 쓴 게 아니가 하는 후회도 드는데 아무쪼록 편집장님께서 큰스님께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공부하는 중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때로는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고도 하는데 그것 또한 주인공자리에서 나온 것이고 나를 공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 또한 나온 자리에 되놓아야 하지요. 그럴 때 이게 뭘까? 공부가 익어가서 이러나? 하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자칫하면 탈이 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것도 주인공이 하는 것이니 주인공에 되놓는다 해야 하고 두렵거나 싫은 마음이 들면 '그렇지 않게 하는 것도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지!' 하고 아주 굳은 믿음을 가지고 되놓고 말겨야 합니다. 이 공부는 놓고 또 놓고 가는 공부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나'라는 집착을 놓아 아주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일체경계 내 마음 자리서 나온 것
그자리에 되놓고 또 되놓으세요
그래야 입력된 게 몽땅 지워져요

적성에 맞는 일 몰라 고민

문 군복무 기간을 거의 마치고 제대를 한 달여 남기고 있는 군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잘 할 수 있고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제 전공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나?' 하는 의문이 일기도 하고 다른 일에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학을 이미 3년이나 다녔고 지금 생각하는 다른 일이라는 것도 결국 또 마음이 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어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내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어지고,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과연 노력한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 위의 제 고민에 대해서도 스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답 내 나무의 뿌리인 주인공을 믿고 '답을 주는 것도 주인공 너뿐이다' 하고 놓고 관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체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하기 쉬운데 그러다가 이게 좋을거야 하고 마음을 먹는다 해도 얼마 안가서 또 흔들리게 되곤 합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홍이라고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것 또한 내 속에서 나온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 뿌리를 굳게 믿고 거기서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너만이 답을 줄 수 있지 않아! 길을 가르쳐주는 것도 너, 그 길을 가게 하는 것도 너 아니냐' 하고 맡입니다.

잡은 물고기 천도하고 싶어요

문 시골에서 성장한 저는 어릴 적부터 고기 잡는 것을 즐겨 하였습니다. 한 번은 또래 친구들과 개울에 농약을 풀어서 고기들을 몰살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 죽은 고기를 건져서 온 식구가 끓여 먹었습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그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갖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마음 공부를 하고 있지만 무참하게 살육당한 물고기들과 수중생명들을 위해서 천도재라도 지내 주고 싶습니다. 제 생각이 올바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천도재를 지내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지극하다면 이미 천도가 된 것입니다. 내 생명과 그 생명이 본래 둘이 아니니까 물 한방울에 물 한방울 섞으니 그대로 물 한방울이다 하듯이 내 마음자리로 안아 들인다면 그대로 천도가 되는 것이지요.

'나'란 관념을 제주인으로 잘못 알아 번민
"자신과 법을 믿어 직접 행하고 맛 보세요"

협찬 한마음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代),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 에서도 접수 가능 합니다.

• 건 강 •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당뇨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제3의학 · 심요법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 (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암, 중풍, 당뇨등

오랜세월 민초들의 삶속에 전해오던 치료의 비방을 연구 집약하여 최단시일내에 체질을 전환시켜 완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고저 합니다.

다솔 민방 연구원
0431)292-9090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불심과 정성으로 보살펴드리는 간 병 인 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 환자 간병 - 산모 도우미
◇ 12시간 (주간, 야간)
◇ 24시간 (상주근무)
◇ 서울 - 무-제-98-1호 허가

☎ 02)363-7884/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 강 좌 •

사주 명리학 배우실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작명, 진로선택등을 정확하고 자신있게 간명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 강의기간: 주2회 매회 3시간씩 3개월
▶ 강의시간: (오전반, 저녁반도 있음)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 강 사 : 7년여 강의 경력이 있으신 원장직강으로 종강후 개업보장

서울 마포구 대흥동 801-57
한국명리연구원
☎ 02)713)4852~3

자미두수교실

신령스러운 자미경의 저자 김석훈 선생의 1기 수강생 모집합니다. 너무도 영험한 자미두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동서점성학 연구실
☎(02)3413-0232,1

불교 수·맥·강·좌

1. 신비의 추 사용법
2. 현장실습
3. 기균형 전문
4. 수맥관련 상담

02)734-2118
011)239-6817
대붕 氣 살림

풍수학, 동양철학, 침술 수강생 및 통신생 모집

◇모집기간 : 현재 접수중◇연령, 학력 제한없음
◇수업시간 : 3개월(24시간)
- 이수자 졸업장 수여
- 주간 : 오후 3시~5시-야간 : 7시30분~9시30분
◇개인지도 수강자는 시간 및 진도 특별조정함
◇강사 : 스님(철학박사, 승가대교수)
◆풍수, 운명, 침술, 감정시무하고 있음
(철학관 및포교원 개원시 지원 배려함)
(출가관심자 승려 수계득도 지원함)

0331)264-4582
대 · 불광사, 승가대학 교무처
(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39번지)

• 구 인 •

사무장 초빙

보현도량 도솔산 **도안사**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방문요망 (이력서 지참 방문요망)

0334)676-8700

불심 돈독한 공양주 보살을 구합니다.

경북 고령 **약수정사**

0543)954-6194~5
053)761-6363
011)501-2219

• 불교용품 •

비구니 스님이나 처사분 중 사찰에 오셔서 기도하실 분

석굴암 동굴속

062)652-4730
019)602-6667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수련원 •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 기 타 •

전통불교의식 학인모집

02)
511-0108
전통불교의식연구원

달마보급안내



연락처 : 달마보급 선양회
죽림사 051)361-6662

全國 佛子님께 氣龍 達磨圖를 나눠드립니다.



희향암 혜월당 합장
0564) 33-2037
017) 531-2929

전통사찰 건축 불사

문화제 등록 제 962호

기둥은 육송으로만 파고 그외도 조각 장여부연 이며 4미터 이하는 거의 육송을 사용합니다.

▶시공사찰
진관사 승가사 용화사 용주사 성남사 지장사 구룡사 대연사 보광암 비봉사 현재 은선사 불사중

■공장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주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28번지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0572)636-2509/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벽지 ◑ 바닥재

버티칼 · 페인트

방산시장 가격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해인 인테리어
02)201-1470
019)369-8000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화엄경(80권)-1,400,000원
법화권(7권)- 170,000원
사 교(7권)-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99)32-7252
02)962-6477 (김창본 처사)

행운결혼 상담소

초 · 재혼 특별상담

●엘리트 우수회원 다수확보
●성심, 성혼 책임 보장
●신원확실, 비밀보장

※부모님 상담 환영

(代) 02)960-4564

• 사찰안내 •

사찰 운영안내

◇위치 : 천안근교
◇법당 : 23평 ◇요사 : 30평
◇부지 : 620평
◇가액 : 3억(절충가능)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실사용 17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2평
◇ 가격 : 3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상담전화 02)723-4082
011)232-4082 **광진불사**

사찰안내

■위치 : 양평군 양수리근역
■건평 : 총7동 140평
■대지 : 2천평
■매가 : 13억원

※ 강남에서 30분거리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사찰로서 서울-양평간 4차선 국도에서 300m거리에 위치

■특징: 중개인사절

011)659-8538
0338)771-5737

포교당 인수하실분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동 시장입구 2층
◆평수 : 법당 30평,방 2칸 10평
◆시설 : 부엌, 욕상 있음
(주인직접 운영할 포교당 인수할 분)
◆가액 : 시설비 500만 보증금 1,000+30
◆가격은 1/2 가격임

053)557-1145

포교당 임대

◆부산 최요지 : 약 50평
◆보증금 : 1천만원(월 50만원)
◆시설비 : 2,300만원
◆방3칸, 주방, 법당, 창고, 사무실, 금동삼존불, 에어컨
◆시설 A급, 신도카드 500매

051)441-6773
011)825-1662

사찰(급)안내

◇위치 : 장호원 (서울에서 약1시간거리)
◇대지 : 438평
◇총건평 : 83평
- 법당(27평), 사무실(15평)방4개,
- 요사채(41평)방11개, 주방, 화장실
◇가액 : 3억 3천만원
◇특징 : 발전 요충지의 명당

※ 직접면담(급매) ※

032)831-3889
012)925-6118

사찰 안내

◇ 위치 : 경주
◇ 대지 : 100평
◇ 법당 : 16평
◇ 요사 : 2동 25평
◇ 가액 : 전세 3천만원
◆ 장기임대가능

011)594-088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복현동 (주차시설완비)
◇ 법당 : 2층 43평, 옥상사용가능
- 개금3존불(넉자),
- 후불신중탱화 집기일체 포함
- 주지실 공양실 욕실등 완비 (입주즉시 법회가능)
◇ 가격 : 3천만원(보증금+시설비일체) 월 40만원

016)519-9551/053)957-9551

寺, 꼭 필요하신 분

◆ 울산 경주간 7번 국도변 분지형의 길상지
◆ 법당, 산신각, 요사3동(방사12),옥외 석조대불
◆ 경내지 350평, 매가 절충가능
◆ 향후 발전가능성 많음

0561)775-0545

사찰 안내

◆위치 : 경주 양남 효동 **용담사**
◆평수 : 법당 12평, 요사채 1동, 삼성각 1동, 부지 357평
◆주차장용도 550평
◆특징 : 폭포 2개, 경관수려
◆가액 : 1억 3천만(절충가능)

052)277-2117
052)248-7362
018)587-3585

사찰안내 (大불사 가능지)

■위치:팔당댐옆(경관수려) 올림픽대로 4차선 예정 도로접
■확교 폐교건물 1동 외 건물1동
■대지:400평 잡종지:530평
■임야:1000평(내 건축허가 1동 대지 200평 가능)
■가액 : 17억(절충가능)
※토지 확보후 임야 50,000평 상당을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 가능한 위치임

011)244-0433/0347)794-1141

사 찰 안 내

◆위 치 : 통영시
◆부 지 : 1,180평
◆법 당 : 25평
◆요 사 : 25평
◆가 액 : 답사후 절충
◆특 징 : 수려한 산세와 울창한 송림에 싸여있는 청정지역

012)1067-0108
0502)580-0108

포교원 안내

◆위치 : 미아 3거리
◆평수 : 50평
◆시설 : 현대식 시설, 잘 갖추어져 있음.
◆권리금 : 없음
◆가액 : 전세 7천만원
◆교통편리, 절철역 걸어서 5분거리
◆시내버스 포교당앞 하차

02)941-3195

사 찰 안 내

◆지안 용담댐 상류
◆경치좋은 유원지내 도로변 사찰!!
◆종교용지 500여평, 석굴암 (법당) 15평, 요사 35평
◆양도가: 1억 2천만원

0655)433-2900
0652)282-1536

사찰 안내

◆ 위 치 : 경북 상주시 남성동
◆ 평 수 : 대지 700평(두필지)
◆ 법 당 : 25평
◆ 요사채 : 2층 70평
◆ 1층- 식당
◆ 가액은 전화상담요!
◆산세수려한 조용한 곳입니다.

0582)533-3897
019)507-2318

사찰안내

■위치 : 전남
■법당 : 15평 ■요사채 : 30평
■부지 : 2,700평
■가액 : 6,000만원

●전국의 사찰 포교당 다량확보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으로 양도 운영 하실분에게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토굴 및 별장

■위치 : 가야산밑
■대지 : 평수 152평
■건평 : 15평
■가액 : 4천 5백 절충가능
◆산세수려하고 약수좋고 신축 건물 기와집

0543)955-7768

사찰 전세 안내

◇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 법당 : 삼존불,후불탱화, 신중탱화,칠성탱화 약15평(법회가능), 방2,부엌2,화장실
◇ 가격 : 전세가

아주 조그마한 사찰이나 포교하시는 스님께 약간의 전세금만 받고자합니다.

02)823-0788

토굴, 암자, 선방 최적지 양도

지리산 천왕봉이 안산으로 보이는 명도 - 약 2,000평 (약간의 대지와 초막한채)

012)587-6233
(호출시 지역번호 반드시 입력바람)

인연있는 스님이나 불자님 한 분 모십니다.

큰스님 다비탑 준비 위하여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찰명 : 경주 토함산 토굴 성불사(대지:160평)
◆대웅전, 주방,기름보일러방,산신각
◆전세금 : 1천 5백만원
◆약사도량 기도도량으로 좌선 또는 공부하는 스님께 더욱 좋습니다.

017)558-3450

사 찰 안 내

◆위치 : 쌍문2동 (큰길옆, 아파트단지맞은편 북부농협뒷편)
◆평수 : 30평
◆가액 : 1천만원 (월 30만)
◆방, 부엌, 베란다

02)905-0410

사찰 운영하실분

◆위치 : 전남 고흥 ◆부지 : 2,413평
◆법당 : 21평(전통 목조) ◆요사 : 2동 30평(전통목조)/ 10평(전통목조)
◆시설 : 시설일체 무상 기증 ◆가액 : 답사후 절충
◆특징 : 신도시 포교권에 속한 기도 및 포교도량으로 빼어난 경관과 자연 탑바위가 조화된 도량으로 입주 즉시 법회 할 수 있음.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께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부처님의 정토세계를 열어가는 21세기 불자기업
(주)동국불사 담당 : 조법사 합장
서울본사 : 02)351-4447 / 011)736-4447

사찰건축 및 목재 안내(전문)

· 사찰 건축 · 사찰조경 · 단청 · 목조주택(한옥,황토집)

사찰 목재 안내 ※한국에서 마지막 원시림(육송)다량확보

♣ 대웅전:12평, 20평, 24평, 34평, 54평, 108평을 지을 목재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 대웅전 기둥: 1자, 1자 3치, 1자 5치, 1자 7치, 1자 8치, 2자 2치까지
◈ 대웅전 설계, 조감도 그려드립니다.

⊙ 불사하실 스님,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0371)762-3938
011)735-4168 **(주)천운 나강민** 합장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 (팔당대교에서 10분거리)
◆대지 : 1천평 ◆답 : 30평
◆법당, 산신각, 목조
◆주지실 1동, 요사1동, 후원채 1동 총 연건평 90평
◆매가 : 8억 3천 5백만원

0338)771-5737
011)380-9168

사 찰 안 내

◆위치 : 전북 김제시
◆부지 : 370평(아담한산속)
◆법당 : 39평(철근콘크리트)
◆요사 : 30평(방2, 주방, 거실)
◆전세 : 5천만, 매가 9천만
◆기타 : 동불, 사리1과 발견

0658)542-5859

포교원 안내

◆위치:총신대역 시장통 사거리
◆평수 : 15평
◆법당 : 지장보살님 1불, 약사여래불 1불,종합탱화, 산신1분, 살림가구 일체
◆가격 : 500만원(월 40만원 (전세도가능 - 2,500만원)
◆시설비 : 3백만원(절충가능)

02)592-8849/011)611-8849
(무속인 및 보살님 상담환영)

인연되는 사찰을 찾습니다

천일기도와 백일기도에 원력을 세운 스님입니다. 절을 맡겨 운영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011)888-0538

사찰터(최적지)

◆위치 : 대전시 서구 5동 청학산줄기 절터 15,600평 (임야를 닦을 때 축대를 쌓지 않아도 7천~10,000평 정도가 생김) 단, 큰도로에서 4m 정도의 작은 도로로 500m 들어감
◆가액 : 평당 2만원(급매)

017)401-2459
042)544-2459

※ 그린벨트가 아닌 자연녹지입니다. ※

"음주운전 죽음으로 가는 행위"

97년 음주운전으로 1천4백명 사망
"이웃에게까지 피해"…건전 술문화 절실

10여년동안 트럭운전을 해온 박 모씨는 지난 6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음주단속에 걸렸다. 박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구속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직장까지 잃었다. 구속됐다가 사고 뒤치다꺼리 하는 변호사 경비마저 2천만원이나 들었다.

음주운전 끝에 패가망신한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사고를 낸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한 순간의 실수로 자신과 이웃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과보를 받는다. 한 해에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1천명이 넘는다. 97년 한 해 동안에는 1천4백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은 이보다 많은 3만6천여명. 지난 1년동안 뺑소니 사고 2만3천건 가운데 28%가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음주운전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지만 그 수치는 오히려 늘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연말이면 음주운전자는 더욱 늘어난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지난해보다 약 30%가 늘어난 5만8천여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으며 이가운데 약 5백명을 구속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작년에 비해 70%나 늘고 있으며 여성 음주운전자들도 서울의 경우 한달 평균 100명이 넘어서 지난해에 비해 3배나 늘었다.

지난 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한 개 도의 1년 예산과 맞먹는 1조3천억원. 직접적인 사고 피해 외에 운전면허정지 등으로 일을 못해 발생되는 손실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세계적인 '술고래'인 한국인의 음주로 인한 전체 손실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다. 95년 기준으로 13조8천3백96억원. GNP의 3.97%에 달한다. 이가운데 순수한 알코올 소비지출은 불과 4조560억원. 나머지는 음주로 인한 질병과 교통사고, 조기사망, 생산성손실 등에 따른 부차적 손실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처럼 우리의 무절제한 음주습관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교통사고, 퇴폐문화 조장, 산업재해, 가족불화 등 다방면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 집단적 음주문화가 발달해 적당히 마시기 어렵고 폭음으로 이어지는 세계적으로 기이한 한국인의 술문화가 무절제한 음주습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술잔돌리기와 폭음으로 대표되는 한국인의 술문화. 이제는 '모이면 마셔야 한다'는 강박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대화, 건전한 사교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촌철의 눈 "술은 모든 잘못의 시초"

"술 마시기를 즐기면 생업을 잃고도 살아가는 것을 걱정치 않는다."(분별선악소기경) IMF관리체제 이후 오히려 늘어난 음주 행태를 보여주는 말 같다. 경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암시하는 법문도 있다. "술은 온갖 환난의 근본이요 재앙의 근원이다. 술에 취하면 감각기관들이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높은 소리로 웃는다든가 사나운 말을 해서 선량한 사람을 해치게 된다"〈제법집요경〉. 잘못된 음주습관은 나와 사회을 해치는 독약이 될 수 있다. "술은 독약이고 독수이며 독기(毒氣)가 된다. 모든 잘못의 시초이며 모든 악의 근본이고, 도덕을 흐트리고 망령된 행위로 재앙에 이르러 화를 부르는 근본이 된다"〈대애도비구니경〉.

국내 인간복제술 첫 성공

교계 "인간존엄성 파괴"우려 목소리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국내 연구팀이 체세포핵(核)을 이식한 난자세포 배양에 성공, 인간복제 기술이 세계 두 번째로 완성직전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도 복제인간 출현을 둘러싼 윤리논쟁이 한창이다.

경희대병원은 14일 산부인과 불임클리닉 김승보-이보연 교수팀이 시험관 아기 시술에 사용되고 남은 30대 여성의 난자를 기증받아 이 난자에서 세포핵을 제거하고 대신 체세포 핵을 삽입한 뒤 세포분열을 유도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람이 정자와 난자의 결합없이도 태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반반씩 물려받는 수정란 대신 한 사람으로부터 유전자 전부를 물려받는 복제인간이 등장하는 것.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종교계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복제시험을 중단하라"는 비난성명을 내고 항의움직임을 거세게 나타내고 있다. 10개 단체로 구성된 생명안전윤리연대 모임은 15일 경희대 정문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인간복제 실험은 사회적 윤리적 종교적 문제를 야기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무모한 탐구욕"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적절한 규제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장영달(국민회의)·이상희(한나라당)의원이 97, 98년에 각각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인간의 생식세포·체세포를 이용한 복제금지 △인간·동물의 수정란이나 태아를 상호이식하는 실험 △인간의 태아나 사망자로부터 정자·난자를 추출해 수정란을 만드는 실험 등을 연구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암 등 질병치료를 위한 실험이나 유전학적 연구는 종교계, 공무원, 연구기관, 산업계 대표로 구성된 생명공학안전·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인간 및 동물 복제 실험을 실시할 경우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등을 위원회에서 밝히는 등 윤리적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에야 실험이 가능하게 된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한상범)=부처님께서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존귀하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인간의 유일한 가치와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인간 복제 실험은 물론 동물 복제 실험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속에서 태어나는 인간이야말로 인간다운 인간의 참모습임을 깨달아야 한다.

▲김용정 과학사상 편집인=하나의 인간이 복제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체가 낙태와 같은 형태로 죽어간다. 생명체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은 살생죄를 범하기 마련이다. 설령 복제 인간이 탄생되었다 하더라도 부모 없이 태어난 새로운 인간의 고독과 소외 등 실존적인 고통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성격의 인간들만 존재하는 사회, 가족개념의 붕괴 등 사회적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김동훈 이웃을돕는사람들 이사장=인간 복제 기술을 응용한 난치병 치료용 장기의 생산,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동·식물의 유전자 변형, 생명현상의 탐구를 위한 유전공학 기술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다만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생 인간 창조나 군사·범죄용 인간의 복제 등 인간 복제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생명공학의 선택적 활용을 위한 길을 터주어야 한다.

▲강인성 대구경불련 회장=인위적인 인간 복제는 자연의 인(因, 1차적 원인)과 연(緣, 2차적 환경)에 따른 조화로운 인간의 탄생이란 인연법을 깨뜨리는 부조화의 극치다. 만물이 불성을 가졌지만, 가장 부처님과 닮은 인격의 신성함을 파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위험스런 악업이다.

▲박완순 생명나눔실천회 사무처장=인간 체세포 복제기술을 특정 장기를 생산하는데 이용하는 것은 상업성을 띠게 마련이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장기를 이웃에게 기증하는 거룩한 장기기증은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실현되는 최후의 보살행이다. 반면 인간 복제 기술의 상용은 인간의 부속품화·상품화는 물론 '인간의 주문생산' 시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행복은 물질아닌 정신적 풍요"
국민행복감 한국 23위
가난한 나라가 상위권

'행복은 GNP 순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정신적인 안정과 만족감에서 온다는 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

독일 일간지 타게스슈피겔은 9일 영국의 LSE대학 보고서를 인용, 물질적 풍요와 행복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대학의 로버트 우스터 객원교수는 최근 전세계 54개국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방글라데시가 1위를 차지하는 등 가난한 나라가 상위권을 휩쓴 반면 미국과 일본, 유럽 선진국들은 하위권으로 처졌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제3세계 국민들은 가족과 친구, 이웃 등의 끈끈한 인간관계에서 안정을 느끼고 이것이 삶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풀이했다.

◇국가별 국민행복감 순위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방글라데시	32	영국
3	나이지리아	37	프랑스
5	인도	41	스위스
8	중국	42	독일
10	터키	44	일본
12	남아공	46	미국
18	메시코	54	몰디브
23	한국		

시론

늘어나는 주부 매춘

"데이트 좀 하고 그럭저럭 지냈어요" 일주일에 한번씩 외래에서 만나 상담을 하고 가는 한 청년의 이야기다. 그의 말을 챙겨보면 예사로운 데이트가 아니다. 사이버공간을 통해 마음맞는 주부와 서로 연락이 되면 데이트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동침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다. 신문 사회면이나 텔레비젼 뉴스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변종 데이트에 대한 실증을 보는 느낌이라 마음이 편치 않다. 정도를 벗어난 남녀간의 애정문제에 가장 흔하게는 간통이란 것이 있다. 요새는 간통이 아주 흔한 용어가 돼 버렸고 매춘이란 용어가 판을 치는 추세다.



이근후 〈이대의대 교수〉

IMF로 경제가 어려워진 요즘 경제난을 빌미로 성도덕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문란해졌다. 가정주부가 폰팅 등을 통해 매춘행위를 하는가 하면 여중고생이나 대학생들이 소위 원조교제라는 것을 통해 매춘을 하고 있다. 또 실업자가 된 미혼여성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한 여대생들이 '일일도우미' 채용 광고를 보고 매춘에 가담하고, 인터넷이나 폰팅 등을 통한 익명성 매춘이 성행하고 있다는 충격보도가 연일 터진다. 이러한 매춘행위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체계화된 알선을 통해 공공연히 이루어지기도 하니 보통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니다.

> "쾌락추구 생계 유지등 매춘 원인은 사회 병리현상"

일반적인 매춘의 알려진 원인들은 어떠한가. 신분상승을 위한 매춘이 있는가 하면 자립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이유때문에 매춘을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와서는 여성의 성적 쾌락과 욕구 때문이란 주장도 만만치가 않다. 지금까지 외도나 매춘의 수동적인 대상이었던 여성 자신의 성적 욕구가 보다 능동적으로 변했거나 아니면 능동적인 자세로의 전환때문이란 설명은 꽉 설득력이 있다. 알다시피 현대사회는 하나의 경직된 가치체계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체계를 수용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을 특징으로 삼고 있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기존의 윤리에 어긋나는 사고나 행위들도 서슴지 않고 받아들이는데 합리화하고 있다. 특히 쾌락적 추구는 성적 욕구의 의식화 과정에서 점점 노골화되고 새로운 윤리적인 기준도 없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 개인이 갖는 의식의 변화를 다분히 쾌락적으로 변용시키는 데는 사회적인 요인이 크다고 하겠다.

정보화의 총아로 등장한 여러 매스미디어의 영향은 기존의 성의식을 쉽게 변화시키고 성의 문란에 한 책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문제에 관한 한 지금까지 종교의 힘으로 그나마 제어되어 왔었던 것이 급박하게 허물어짐으로써 어떻게 해 볼 방법을 잃었다고 암담해 하기도 한다.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안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들이 처해있는 시기와 환경적인 요인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금지 일변도는 현실적인 효력이 없다. 그렇다고 선진국의 경우처럼 자율화에 의한 개인의 선택으로만 미루기에도 아직은 정서나 현실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법률적인 규제와 통제, 소외된 매춘계층의 선도,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요인의 봉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남편의 실직등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나날이 늘어만 가는 가정 주부들의 매춘이다. 가정의 핵심인 주부가 흔들린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가정이야말로 사회와 국가를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다. 가정을 건강하고 단란하게 이끌어가는 데는 주부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을 당사자인 주부는 물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명심해야 한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가정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가족윤리의식을 올바르게 갖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 ~~300,000~~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IMF후 용돈 줄어" 71%

청교련 중고생 설문

IMF 경제 한파는 청소년들이 가정의 경제와 자신의 '씀씀이'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가 10~11월 서울 소재 중·고교생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IMF 이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 71%는 '용돈이 줄었다'고 대답했고, 50%는 '지출도 줄었다'고 대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아질 때 나의 소비 태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50%는 '지금과 똑같이 근검절약할 것'이라고 대답해 IMF 경제 한파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소비의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교정서 배우는 전인교육 기회"

사찰 어린이 겨울불교학교

2백여곳서 예절·발우공양·참선등 강좌
사찰순례·문화재탐방등 야외활동 확대

올해 실시되는 겨울불교학교는 사찰예절, 참선 뿐만 아니라 전통놀이, 사찰순례, 문화재 탐방 등 야외에서의 활동시간을 대폭 늘려 편성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불자들에게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어린이 겨울불교학교는 12월 23일부터 전국의 2백여 사찰에서 일제히 시작한다.

대한불교어린이연합회 최미선 사무국장은 "불교학교는 겨울방학 동안 자녀지도에 대해 고심하는 불자학부모들의 공통 관심사"라며 "2달 이상 동안 계속되는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많은 어린이불자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교학교 참가비는 서울 금강정사, 경기 신흥사 등 대부분 1인당 1만5천원~3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면에서는 부산 삼광사의 불교학교가 5백여명의 어린이를 모집할 예정이며, 서울 화계사 등 나머지 사찰에서는 50~2백명이 참여하는 불교학교를 개최한다. 기간은 초등학교 방학이 시작되는 12월20일부터 1999년 1월 중순 사이며, 2박3일·4박5일 동안 연다.

부산 보현선원의 경우 불교학교와 겨울수련회를 함께 실시한다. 보현선원은 12월27일부터 29일까지 밀양 여여정사에서 30명의 어린이불자들을 대상으로 △자연물이용 탑쌓기 △어린이 포행 △불교기초교리 강좌 등을 마련한다.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는 울산 정토사의 겨울 불교학교에는 영천 거조암 5백나한전과 대구 영남일보사의 신문 제작 과정을 둘러보고, △레크리레이션 강좌 △찬불가 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울산 정토사 등은 발우공양등 불교프로그램을 어린이 정서에 맞게 진행한다.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성일스님(경기 신흥사 주지)은 "어린이를 위한 겨울불교학교는 여름불교학교와는 달리 난방시설이 갖추어진 수련장이 필요하다"며 "알찬 내용의 불교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종단과 단위 사찰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교학교를 통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할 수 없는 전인교육(全人敎育)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주부신행담

불성을 찾아가는길 ①

모든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다. 나는 이 진리만큼은 다음 생에서도 굳게 믿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 고교시절의 일이다. 그 당시는 젊은 사람이 절에 간다고 하면 달갑지 않게 생각한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 때문인지 주위 선후배들의 경우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나 다른 종교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절은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가는 곳이란 것이 당시 내가 갖고 있던 불교관이었다. 특히 우리 가족의 경우 특별한 종교를 믿지 않았던 터라 더욱 그렇게 생각했다.

한 번은 친구의 소개로 절에 간 적이 있었다. 막상 절에 간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앞섰다. 혹시 주위사람들이 손가락질은 하지 않을까, 절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만감이 교차했다. 그러나 막상 절에 가보니 내 선입견과 너무도 달랐다. 아니 깜짝 놀랐던 것이다. 상상치도 못한 일이 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목탁을 치며 염불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스님들만 염불을 하고 신도는 절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줄곧 목탁치는 젊은이들을 생각했다. 그런데



그림·문병성

눈썹밀고 두문불출 '심경' 암송

이상하게도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법회장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고 언젠가 경험했던 일처럼 친근하고 따뜻하게 다가왔다. 그 후부터는 나도 모르게 토요일만 되면 사찰로 발길이 옮겨졌다. 처음엔 법당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법회장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만 듣고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다. 이처럼 몇번을 사찰을 기웃거리다 보니 서서히 법당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아무도 없을 때 법당을 기웃거렸고 친구들이 절하는 모습을 연상하며 절도 해봤다. 서서히 불자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법회장엔 못들어가고 겉으로만 빙빙 돌고 있던 나는 결국 마음을 내 어느날 친구들이 법회장에 들어갈 때 슬며시 따라 들어갔다. 그러나 벽은 또 있었다. 옆사람을 따라 하기는 했지만 동화되기란 쉽지가 않았다. 합장은 알았지만 언제 절을 해야 하는지, 염불은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답답했다.

이런 상황을 겪고 보니 법회 식순을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처음 나를 절로 이끌었던 친구를 찾아가 법회에 대해 하나씩 물었다. 누구에게도 뒤지기 싫어했던 나는 그날부터 불교공부에 들어갔다. 대발심을 한 것이다. 마침 그 때가 여름방학이었더라 혼자 불교공부하기에 안성마춤이었다. 법회 식순이 담겨있는 책자를 받아든 나는 우선 〈반야심경〉을 외우기로 했다. 그리고 이 경을 다 외우기 전에는 문밖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면도날로 눈썹을 밀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들키지는 않으려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외우기 시작했다. 결국 일주일만에 〈반야심경〉을 다 외울 수가 있었다.

박정선〈경북 경주시 동부동〉

가난하고 병든 이웃에 희망 선사

불교TV '자비의 손길을…' 잔잔한 감동 '호응'



◇백혈병으로 강남 삼성병원에 입원한 김혜주군(3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45분부터 50분까지 불자들의 어려운 모습을 소개하는 불교TV의 '자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가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달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자비의…'는 5분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가난과 질병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불자들의 사연을 통해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불우이웃 돕기 프로그램. 6회에 걸쳐 들려준 가슴 아픈 사연은 눈물 바다를 만들기도 한다.

눈에 종양이 생긴 오승욱(6),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김혜주(3), 알콜중독자 어버지를 모시고 사는 소녀가장 정선영(10) 등도 TV에 소개되자 이웃 복지관과 사찰의 신도회에서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이 프로를 기획한 김충현PD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이 따뜻한 이웃들의 자비행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가출청소년 만화방서 선도"

인천청교련 세미나…시범업소 21곳 운영

청교련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는 17일 인천종합문화예술관에서 '만화업소가 청소년 피난처로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천지역 만화방 2백여곳과 청소년피난처(Safe Place, 이하 'SP')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미경(청교련 인천지부 사무국장)씨는 "최근 심각한 경제불황으로 가장의 실직과 가정의 해체가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가출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며 "가출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SP 지정 및 육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부가 최근 노숙자 5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개월 이상 노숙한 응답자 가운데 이혼·별거 등 '가정해체'를 경험한 응답자는 32.4%, 가족과의 연락이 두절된 응답자는 8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돌아갈 곳 없는 청소년이나 부모가 양육할 능력이 없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천지부와 인천만화대본업협회는 21일 국내 처음으로 인천 서구지역 만화방 21곳을 SP 시범업소로 지정하고 청소년 보호·선도활동을 전개한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4개 종립고 중고생 8백여명 수계식

"수계를 받은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행을 실천하겠다." 동대부중, 동대부고, 명성여중, 명성여고 등 동국학원 산하 4개 중·고등학교는 12월 14일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불기2542년 학교법인 동국학원 서울지역 합동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정신에 입각한 건학이념의 구현과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실시된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4개 중·고등학교 8백여명의 학생들과 각 학교 불교어머니회 회원들이 녹원(동국학원 이사장, 직지사 회주) 스님을 계사로 삼귀의계를 수지하고 불명(佛名)을 받았다.

청소년 문화의 집 개원 31일 '어벤져' 무료상영

목동청소년회관(관장 명우스님)은 26일 11시 회관 1층 로비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개원식을 봉행하고, 31일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영화 '어벤져'를 무료 상영한다. 상영은 오전 11시 및 오후 2시 두 차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음악·공연 연습실, 노래·비디오방, 도서·정보·통신실, 극장, 상담실이 갖춰진 청소년 문화·수련의 복합시설이다. (02)646-6815

건강 365일 〈40〉 신이(辛夷)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옥란화 꽃봉오리…축농증 특효약

중국 명나라때 진사급에 해당하는 직급인 거인(擧人)의 벼슬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신해년(辛亥年) 어느날 그 거인은 콧병이 났다. 코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물론 머리까지 아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여러 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아봤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런 사정을 들은 그의 친구는 여행을 다니며 병을 치료해 줄 의원을 찾아 보라고 권유하였다.

거인은 집을 떠나 각지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변방의 소수 민족인 오랑캐 마을에 당도하였다. 마침 그곳에 의원이 있다기에 진맥을 청하였다. 그 의원은 오랜 시간에 걸쳐 꼼꼼히 진맥 한 뒤 약을 지어 주었다. 그 약을 먹자 거인은 그렇게 고생하던 콧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약을 자세히 살펴보니 자신의 고향에도 피어 있는 옥란화 꽃봉오리 였다.

거인은 병이 완쾌돼 집으로 돌아온 뒤 이듬해 봄에 옥란화 꽃봉오리를 따서 말렸다가 콧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 병을 치료하게 하였다.

거인은 신해년에 오랑캐 마을에서 이 약초를 발견했다 해서 약이름을 '신이(辛夷)'라 하였다.

콧병이란 축농증을 말하는데 한방에서 '신이'는 축농증의 특효약으로 쓰인다. 축농증이란 코안에 감기 바이러스균이 자리를 잡고 있어 염증을 일으킨 상태를 말한다. 처음에는 알레르기 비염이라 하여 콧물 재채기로부터 시작하지만 병이 깊어지면 축농증으로 진행된다. 몸이 허약해져 균에 대한 면역성이 떨어진 틈을 이용, 외부에서 균이 침범하는 것이 축농증의 발병 원인이다. 또는 대장에 이상이 생겨 병이 오는 수도 있다.

복용법 복용량은 신이 8g과 감초 4g을 달여 하루 두 번 복용한다. 악성 축농증인 경우는 원인 치료를 해야 하며 수술을 할 필요가 없고 한방 내복약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다.

(02)762-5510

띠별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북한산 쥴기
상운사 골짜기
千年의 푸르름
하늘을 이고 가는데
솔나무 한그루 위로
백로 한가로히 춤추며
백운대 峰 아래 큰바위
물길을 열고 흐르는 듯
그 자리 자취 장관이로다
흐르는 물줄기 작은 연못
송사리 떼 노닐며
상운사 대웅전 뜨락 아래
피빛으로 물든 동백나무
관음보살의 미소로
삶의 고뇌 녹일 때
구름도 비켜가고
초겨울 바람
살갗 스친다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 숙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주·야 (02)634-4910

氣 치료 능력 전수
수년 후은 수십년씩 기공 수련을 해야 가능했던 氣 치료 능력, 氣 응용 능력이 비법의 재발견과 그 과학화에 힘 입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뀌었다. 레이키(REIKI·靈氣)요법이 그 비법이다.
레이키 요법은 그 비밀성으로 인해 전승이 끊겼던 티베트 밀교의 한 비법이 20세기 초엽에 일본의 수행자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에 의해 재발견된 후 미국으로 전승되어 미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그 방법이 과학화, 표준화, 체계화, 간략화되면서 1980년대부터 영국 등의 의료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세계화되고 있는 氣 치료법, 氣 응용법이다.
국민 대다수가 건강 불안과 생활불안을 안고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욱 간편하고 더욱 효과적인 건강법과 생활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것이 레이키 요법이다.
이 레이키 요법은 자격있는 레이키 마스터에게서 전수만 받으면 누구나 단시일내에 氣 치료능력자, 氣 응용능력자가 될 수 있는 비법중의 비법이다.
⊙레이키 요법의 전수 절차
레이키요법의 전수는 모두 3단계로 이루어지며, 총소요일수는 5~10일 정도이다. 필요하면 이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도 있다.
⊙레이키 요법의 전수 대상자(4세~83세)
① 스님을 비롯한 성직자와 의사등의 의료직 종사자
② 남에게 좋을 일하며 살기를 원하는 분
③ 새로운 직업(레이키 요법가)을 가지려는 분
④ 만성병을 스스로 치료하고 다스리려는 분
⑤ 만성병을 앓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
⑥ 가정과 사회를 평화롭고 운세좋게 하려는 분
⑦ 자기와 우주, 이 세상과 저 세상, 명재계와 암재계가 한 덩어리임을 깨달으려는 분
⊙레이키 요법의 응용
① 음식물, 물, 약, 씨앗, 사료등에 氣를 넣는데 쓰인다.
② 감정, 마음, 카르마(업),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행동장해 등을 개선하고 영성을 개발하는 데 쓰인다. 미용효과 단식효과를 올리는 데 쓰인다.
③ 원격치료, 동식물의 치료, 환경을 정화하는 데 쓰인다.
④ 소망성취, 미래에 일어날 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데 쓰인다. 기타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레이키마스터 번역 저술가 박희준 (朴熙俊)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 B/D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02)720-5682, 725-2311

뜻대로 사는 길 아·봐·타
Avatar.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해탈을 당신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봐타를 경험하세요!
● 아봐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봐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은 소멸하고, 원하는 삶만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봐타 코스는 종교색이라곤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아봐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참구하는데 느낌을 보태어 깨달음을 점수케 한다.
"아봐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의식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해탈을 이루게 하는 힘을 넣어준다."
아봐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갑니다. 아봐타의 이름으로..
- 아봐타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영축 아봐타센터에서는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봐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십시오.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봐타 센터 0523)381-1143 011)882-1149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74(통도사 근처)

동양철학 길잡이 ~ 사/주/박/사 사주박사
위기가 낮는 기회,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인생의 등대가 되어 줄 오묘한 진리, 역학의 세계
역학의 등불을 사주박사가 들겠습니다.
동양철학 수천년의 寶書를
가장 빠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정상의 역학 전문 소프트웨어 사주박사
생활의 필수품 컴퓨터에서
역학의 진리를 펼쳐보십시오.
▶ 사주박사는 출시8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가장 완벽한 역학 컴퓨터 소프트웨어입니다.
▶ DM발송 및 고객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사찰 운영에 불편이 없습니다.
▶ 정서 수백권을 참고하여 수록된 해설자료는 백과사전 49권 분량에 달합니다.
▶ 사주원국(용신), 종합해설, 행운, 대운, 세운, 육효, 천전즉시운, 택일, 궁합, 감명, 사명, 귀곡산명술, 기문둔갑 오운육기, 자미두수, 토정비결, 당사주, 만세력
정가
<사주박사 5.0 전문가용> 150만원 ▶특별할인가 79만원
<사주박사 5.0 평생칙자용> 300만원 ▶특별할인가 150만원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9-6 평화 B/D 7층
☎ 02)522-3268 FAX. 02)522-3263

돌·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부처님의 말씀과 향기를 느끼실 수 있는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세요

주문방법
전화및 팩스로 주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L:02-732-1522 / 737-8881, FAX:02-737-0697)

배송
구매하신 제품은 입금 확인 후, 7일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무료 배송) ※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문구암스님 범음·범패집


S0080004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카세트 테잎 1집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대령, 관욕의식등 분야별로 녹음되었습니다.

가격 : ₩ 50,000

1 불공의식
2 삼신이운
3 신정창·신중권공
4 상단청
5 상단권공·거욕
6 대령·관욕의식 I
7 대령·관욕의식 II
8 대령·관욕의식 III
9 영반·복청소리·대천수소리
10 영산작법 I
11 영산작법 II
12 영산작법 III
13 영산작법 IV·지장청사 I
14 지장청사 II·지장권공 I
15 지장권공 II
16 전시식
17 배송
18 운심게
19 법사이운·열전점안
20 증성·천수작법·요잡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 자신에 맞는 체질 처방으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얻는다.


S0090012

저자
·경희대 한방병원 원장 송일병 교수
·경희대 물리요법과 신현대 교수
·경희대 사상의학회 회장 고병희 교수
·상지대 체질의학과 김달래 교수

가격 ₩ 70,000 (가방 포함)

제1부 나는 어떤 체질일까?
·체질이란 무엇인가?
·왜 체질을 알아야 하는가?
·일반인도 체질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가?
·사상의학이란?
·체질 감별법
·자신의 외모,심성,병증으로 체질 진단
·예질병 특징

제2부 체질처방 건강 장수법
·체질에 맞는 섭생이란?
·체질에 맞는 보약과 운동은?
·체중조절에 도움이 되는 보약
·체중감량에 좋은 운동
·체질에 맞는 육류,곡류,채소,과일,해물,차 등
·건강 장수 비결

제3부 체질처방 다이어트
·살찌는 체질?
·체질과 비만의 관계
·조리법이 비만을 부른다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 조리법
·다이어트 음식
·살빼는 민간차
·지압으로 빼는 군살
·비만의 원인부터 억제하는 씨앗오법
·살 빼는 심리오법

제4부 자연처방 식이오법
·비만은 종합 질병이다
·다이어트의 부작용
·선택이 중요하다
·절식오법이란?
·쉽게 할 수 있다는데
·혼자서 하는 물리오법 7가지
·가볍고 상쾌한 기분으로
·생태학적 영양학의 식생활 실행조건
·멋지게 브레는 히루

대나무 잔


S0090002

완전 자연산 대나무로 가공한 제품 대나무 한 마디를 가공 하므로 크기(지름)는 일정치 않으며 차와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차 맛이 일품 입니다

크기 9(세로) 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거산죽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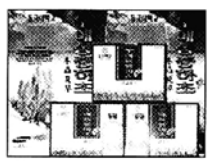
선조들의 비전 비방


S0090013

죽염은 우리 선조들이 애용한 竹鹽(건강염)제조 비방에서 전래된것으로 생명유지의 필수 불가결한 鹽性(염성)을 강화시켜 주고 인체내에 부족하기 쉬운 각종 천연미네랄이 풍부하게 구비되어 있는 신비의 건강 염입니다.

원산지 : 국산 가격 ₩ 30,000

누에 동충 하초 (冬蟲夏草)



동충하초란 원래 겨울에는 곤충의 몸속에 있다 여름에는 돌처럼 나타난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동충하초가 인삼, 녹용과 함께 귀한 3대 한방 약재로 취급되어 왔으며 여러효과가 있다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방에서 약용으로 이용되어 온 대표적인 동충하초는 해발 3,000~6,000m의 지대에서 서식하는 까다로운 생육 환경 조건 때문에 절대수가 한정되어있는 매우 귀한 약재이다. 이렇게 귀하다는 누에동충하초를 주원료로 하여 여러 한약재 등과 배합하여 살균 포장한 위생적인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리하게 드실수 있는 현대인의 식품

배합 한약재 이기리쿠스 버섯, 영지버섯, 백봉령, 갈근, 당귀, 천궁, 계피

본 제품은 동국대학교 신업기술 연구소와 동국생명과학연구원 인하대학교 연구 개발한 제품입니다

가격 : ₩ 198,000

기도 청자 세트

하나 하나 도공이 직접 구워낸 이천 기도 청자 세트

·양,음각 세공을 도공의 손으로 직접 조각하였습니다.
·제품 하나하나 도공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제품마다 정성이 가득합니다.

용 도
·추석 등 명절 신흥용.
·아의 기도, 가정 기도, 제사, 산소등 용도다양

포장재질
·천연 오동나무

규 격
·청자항로(8㎝×5㎝) 1개
·청자촛대(6㎝×4㎝) 2개
·명초 항 각 한점.
·촛대 바람막이2개

가격 : 1세트 ₩ 25,000


S0010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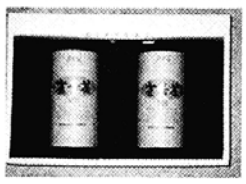
법성게 걸망


S0010009
S0010010
S0010011

크기 500×460 (㎜)
색상 회색, 빔색, 진베이지색

가격 : ₩ 15,000

(지리산 야생 수제녹차) 작설차



지리산 화개동 청정지역의 맑은 이슬을 머금고 자란 야생 찻잎을 정성껏 채취하여 수천년동안 이어온 전통 제다법 그대로 빚어낸 최고급 수제(手製) 녹차입니다.

우전 : ₩ 80,000 중작 : ₩ 60,000 (2통 1세트)
세작 : ₩ 45,000 대작 : ₩ 40,000 (2통 1세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미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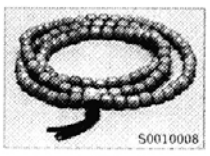

S0020001 S0020003 S0020002

가격
(코팅형, 골동품형)
₩ 350,000
(개금)
₩ 580,000

골동품형 개금형 브론즈코팅형

·재질 100% 청동 ·종류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크기 40.5 ㎝

생광석 108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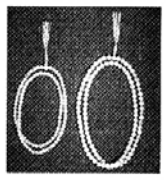

S0010008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 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해져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리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기 칠신 당하고 기분에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가격 : ₩ 35,000

건강 옥 염주



옥을 지니고 있으면 여러 질병을 예방해 준다고 하였다. 이미 알려진 사실로서 몸에 지니면 기를 발산하여 고혈압,두통,소화불량,신경통 등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며 보석에 비금가는 대단히 아름다움을 겸비하고 있다.

종 류 청옥 백옥염주(小) ₩ 30,000
청옥 백옥염주(大) ₩ 40,000

수월관음좌상

여래의 경지에 들지않고 중생제도에 힘을세운 관음보살을 항상 염송하고 의지하며 공경하면 고난과 불행이 사라지고 해탈을 얻게된다 (본좌상은 수월관음 좌상으로써 연꽃위에 앉아계시며 몸에 비취 당은 각


S0020006
S0020005

크기 260×300(㎜)
종류 수월관음좌상(금색)

크기 260×300(㎜)
수월관음좌상(채색)

가격 : ₩ 120,000
가격 : ₩ 99,000

선화로 가는길 四君子



"사군자"를 통하여 선화의 세계로 빌걸음을 내딛는다.
국내 최초의 사군자 기법의 체계화 단순화 기법의 안내서가 아닌 배우는 분의 창의력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주는 동반자적인 책.

가격 : 최고급 양장
₩ 120,000 (부록포함)
타블로이드 판 / 25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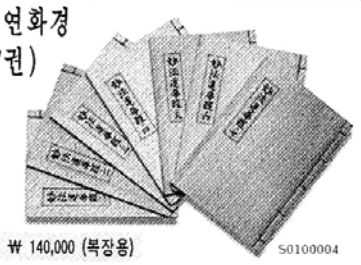
五福臨門 猛虎圖(오복림문 맹호도)


S0090010

산중 푸르른 산중에
맹호 노하어 위용 떨치니
뭇새들 놀라 흩어지고
여러 짐승들도 달아난다
신비할 치달리는 맹호앞에
천바람 휘몰아 치니
여러 짐승들은 두려움에 떤다
사방의 산아는
싸늘히 푸르르고
해질녘 찬바람은
댓보은 흔들리는데
어지러운 세파에 맹호의
웅대한 기상은
천만리에 위용을 떨친다
온은 사방을 진동한다지만
맹호는 구름과 같이 어울린다
호쫓이 한번 휘잣게 볼 때
천하의 사악한 무리들은
모두 놀라 쥐 구멍을 찾는다

옹 도 역자응
크 기 92㎝ × 61㎝
가 격 : ₩ 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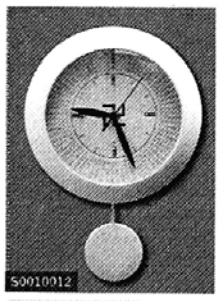
묘법연화경 (전7권)


S0100004

가격 : ₩ 140,000 (복장용)

육바라밀 벽시계

항상 보는 시계에서 정진의 힘을 얻는다!


S0010012

부처님의 말씀 육바라밀과 보왕삼매론을 시계에 접목시켜 디자인하였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가정에 두시고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수 있는 기회가 되실것입니다.

·육바라밀 : 생사의 고해를 건너 이상경의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 수행법인 육바라밀(六波羅蜜)은 보시(布施) · 지계(持戒) · 인욕(忍辱) · 정진(精進) · 선정(禪定) · 반야(般若)라고 하는여섯 가지 실천덕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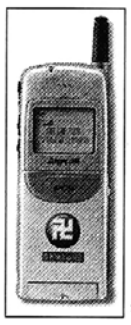
* 50개이상 주문시 원하는 경전문구 삽입 및 디자인 해 드립니다

색상 백색원판에 4도칼라
크기 200×260×60㎜
원판내용 육바라밀 보왕삼매론

가격 ₩ 15,000

강력한 신소재 전자파 제거장치

인체의 뇌파는 미세한 마이크로 웨이브 이지만 핸드폰은 900메가헤르츠의 전자파를 발신하여 뇌종양 유산등의 병을 유발합니다. 본 제품을 붙이기만 하면 인심! 핸드폰을 켤고, 붙이기 전에 오링테스트 해 보고 붙이고 나서 오링테스트 해 보시면 깜짝놀랄 정도로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S0090007

강력한 커릴리안(KIRILIAN)이 유해전자파를 흡수 융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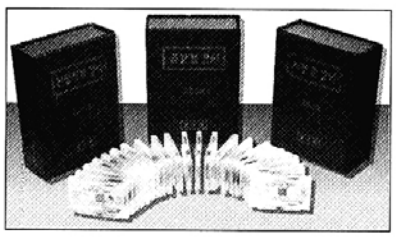

S0090004
S0090005
S0090006

모든 전자기기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용도 휴대폰, 헤어드라이기,컴퓨터, 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TV 믹서 등과 수력파
규격 2개 1세트

가 격 : ₩ 9,000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무비스님의 정진강의를 집에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짐시리도 시간을 넘수 있다면 혼잡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 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깊로우 같은 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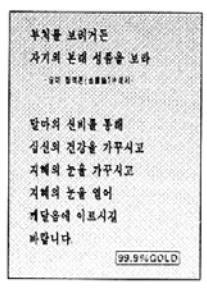
■ 금강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S0080001
■ 지장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S0080002
■ 진심직설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S0080003

화엄큰스님의 祖師西來意 달마도 보급

(순금 패스포트로 만들었습니다)

회엄큰스님 달마도를 항상 가까이 두고 공부한 덕으로 심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특 징 순금을 최대한 얇게 뽑이 주머니속, 지갑속에 넣어다닐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재 질 순금99.9% 크 기 5.2㎝ × 7㎝
가 격 : ₩ 20,000 S0090003

순금 99.9%

경전카드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원력이 항시 지켜드릴 것입니다 각 시찰이나 단체에 맞는 별도의 도안과 글씨도 가능 합니다

가격 : ₩ 15,000 순금 99.9%


S0090014
S0090015
S0090016
S0090017
S0090018
S0090019
S0090020

앞치마

연꽃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실용 앞치마


S0090008
S0090009

원안 내부그림

색상 자주색
재질 T/C (면 혼합)
(100장 이상 주문시 원책은 인쇄 가능)

가격 ₩ 5,000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지비로 중생의 재난을 구제하고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신앙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넓리 독송된데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는데, 이 경전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일곱 가지 모진 재난을 피하고, 탐, 진, 치의 삼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원이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비로 이런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32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하신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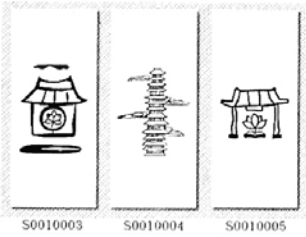
색상 진녹, 검정
바탕색에 금색 인쇄
크기 55㎝(가로) 140㎝(세로)
재질 후르킹
특징 번색이 없음

내부그림
S0030001 검정
S0030002 녹색

가격
₩ 30,000
(족자걸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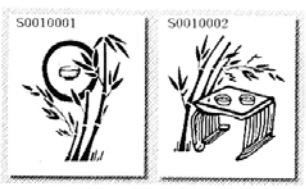
기도포


S0010003 S0010004 S0010005

다양한 불교적인 문양과 그림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기도하실때 한결 더 부처님과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대(大)
기장 84㎝ 폭 39㎝
가격 ₩ 1,600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S0010001 S0010002

다포

기장 50㎝ 폭 39㎝
재질 면
가격 ₩ 800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S0010006

반야심경 종 차걸이

맑은 종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제품입니다 (종에 반야심경 인쇄)

가격
낱개 ₩ 9,000

* 금색종

단주 열쇠고리

다양한 칼라 디자인


S0010020(검정돌)
S0010021(밤색돌)
S0010022(무명돌)

종 류 검정, 밤색, 투명
가격 : 낱개 ₩ 3,000

반야심경 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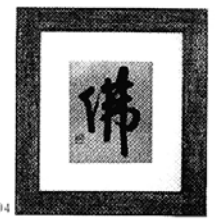

S0010007

청동제품으로 향로 주위에 반야심경 경전 문구 인쇄

가격 : ₩ 25,000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서옹 큰스님의 불(佛)지를 공예작가 범오선생이 동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소장하시면 큰스님의 맑은 기운을 느낄실 수 있습니다


S0030004

재질 동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 50,000

"7년 묵은 병에 3년 묵은 쑥을 먹어라" (중국 침학자 명지)

-해풍에 3년 말린 사자발 약쑥 액기스-



·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으며, 술 담배 많이하는 남성은 더욱 좋습니다.
· 팩으로 쑥탕의 느낌을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기술제휴 한의학 박사 한대천(韓醫學博士)

가격 : ₩ 50,000
(100g×60개입) S0090011

50원으로 사찰·사무실·자택을 지키는 방법!

KTI 2000 자동호출 경보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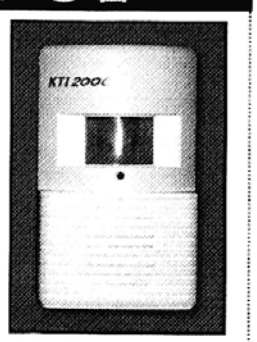
삐삐, 핸드폰만 있으면 집안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제, 도난사고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이제, 바가지 경보장치가 사라집니다.
·자동호출 경보장치, KTI 2000-첨단센서로 외부침입을 감지, 즉시 지정된 전화기, 핸드폰, PCS, 호출기의 번호로 통보해드립니다.
·누구라도 손쉽게 설치할 정도로 사용이 편리하며, 설치가 없어 다른 경보장치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실속있고 간편한 첨단 경보장치, KTI 2000

IMF시대, 내집은 내가 지킬 때입니다!

KTI 2000의 다양한 용도
-사찰, 가정 및 점포의 무단침입, 강·절도 방지
-어린이, 노약자의 긴급호출 기능
-재산, 장비, 시설 보호 및 기밀보안
-아파트 경비원과 연계 가능
-공장단지의 완벽한 경비시스템
-현장음을 일반전화, 핸드폰, PCS, 호출기와 연계, 직접 저장청취기능
-사찰, 일반주택, 아파트, 사무실, 점포, 공장, 관공서 등

특허출원번호 : 국내 98-23050, 중국 981167950
일본 1998-230146, 대만 97113017



가격 ₩ 138,000

한국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1998년 판


S0100002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가격 ₩ 120,000

1) 한국불교의 현황 : 최근의 한국불교계 흐름을 약술
2) 종단 : 불교종단 50여곳의 현황을 수록
3) 법인 : 불교관련 법인 150여곳의 현황을 수록
4) 불교단체 / 기관 : 불교단체 및 기관 4,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5) 불교관련업체 : 불교관련 업체 1,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6) 사찰 : 국내외 사찰, 포교당 13,000여곳의 목록을 수록
7) 인명 : 승가 및 재가불자 여명의 개인 인명지로를 수록
8) 불교문화재 : 초판 이후 추가 지정된 200여건의 불교관련 문화재 목록을 수록
9) 불교도서논문 : 초판 이후 추가 간행된 3,200여건의 불교관련 단행본 및 박사학위논문 목록을 수록.
10) 한국불교연표 : 초판 이후 한국불교 관련 사건을 수록.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S0090001

· 독특한 향+부드러운 촉감 +미용과 면역기능
· 피부미용에서 이백호크는 물론 자연면역기능까지
· 한방 재료 추출물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99.9% 천연 소재 사용

■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금패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 경희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련비누는 이중입구몸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이미지에 상품이다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법회안내



각성스님 (삼일불교 교육원 원장) 25일 오전 10시 통도사 화엄산림 법회. (051)635-7001



종범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23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 12월 다보법회. (02)703-0108



자우스님 (금강사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30분 초하루기도법회. 매월 음력 7일~9일 오전 10시 30분 화엄성중기도법회. 매월 음력 16일 오전 10시 30분 산신특별기도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30분 지장기도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30분 관음기도법회. (02)993-3744



재연스님 (광주 무량선원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보름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가족법회. (062)971-8626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12월23일 (수)

■삼광사 어린이 겨울불교학교=부산 삼광사는 25일까지 제22차 어린이 겨울불교학교를 개최한다. (051)808-7111

■어린이법회 활성화 위한 간담회=오후 7시 서울 하림각 신관 1층 수정실에서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 법사스님 간담회가 개최된다. (02)725-2201

■화성 신흥사 어린이 불교학교=25일까지 신흥사 수련원에서 겨울 방학을 맞은 어린이불자들을 위한 어린이불교학교가 열린다. (0339)57-2695



◇새싹들의 불심은 겨울에 더 활짝 피어난다. 겨울불교학교에 참석중인 어린이불자.

12월25일 (금)

■천년고도 경주 역사기행=옛돌은 경주에서 출발해 분황사-불국사-석굴암-기림사지-골굴암-감은사지-문무대왕수중릉-구룡포-장기곶등 천년고도 역사기행을 27일까지 실시한다. (02)275-4333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회장단회의=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는 오후1시 타워호텔 장미홀에서 전체회장단 회의를 열고, 조계종 사태의 행동방침과 해결방안 수립을 논의한다. (02)232-6948

12월26일 (토)

■초발심자경문 강술=리제재 수원문화사 연구회장은 오후 3시 다보빌딩 15층에서 〈초발심자경문〉을 강술한다. (02)292-8502

■청교련 부여지회 봉사활동=청소년교화연합회 부여지회는 27일까지 부여 가정복지회관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청소년'을 주제로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0436)836-7373



◇수계식은 진정한 불자로서 태어나는 성스러운 의식이다. 수계법회에서 연비하는 불자들 모습.

■서울불교청년회 수계법회=서울불교청년회는 27일까지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철야정진 및 수계법회를 실시한다. (02)730-9180

■부산불교성지순례회 정기순례=부산불교성지순례회는 27일까지 부여 고란사, 칠갑산 장곡사 등으로 12월 정기순례를 떠난다. (051)644-5213

12월27일 (일)

■서산지역 불교문화 순례=옛돌은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서산마애삼존불과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개심사 등 서산지역 불교문화순례를 떠난다. (02)275-4333

■청소년 심성수련회=정토포교원은 31일까지 경북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제1회 청소년 심성수련회를 개최한다. (02)379-1653

12월28일 (월)

■개금사회복지관 관음 송년 잔치=개금사회복지관은 개금 3동 사무소 회의실에서 노인대학생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관음 송년잔치를 연다. (051)893-5034

12월29일 (화)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자원봉사자의 밤=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은 오후 5시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의 밤을 열고, 1년동안 자원활동에 동참해 온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및 자원봉사 사례발표, 다과회 및 장기자랑 등을 연다. (051)898-2672

■불자가수회 창립8주년 기념법회=대한불자가수회(회장 명국환)는 오후 6시 뉴월드호텔에서 창립 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13-2905

중단소식

조계종

백양사 참사람 수행결사

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주지 지선)는 30일부터 선불당에서 동계 참사람 수행결사를 실시한다.

이번 동계 참사람 수행결사는 30일~99년 1월3일, 99년 1월 29일~2월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참선실수, 묵언, 법문, 산내암자 답사, 운력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각 40명을 모집하는 이번 수행결사의 자격은 20세~60세의 남녀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마감은 27일이다. (0685)92-7502

태고종

98년 평가 종무회의

총무원(원장 인곡)은 9일 서울 종무처 회의실에서 종무회의를 열고 "IMF한파와 선암사사태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으나 대승교화 종단의 위상을 드높인 한해였다"고 자체평가했다. 또 99년도에는 종단적으로 태고총림 선암사 발전과 분규 해결, 승풍진작, 재정안정 등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종무행정 수수료인상

총무원(원장 인곡)은 승적입적을 비롯 종무행정과 관련한 업무 수수료를 내년 1월1일부터 조정할 방침이다.

승적입적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사찰등록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인상조정한다. 또 주지(교임)임명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신분증 재발급비도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동방대 동방인의 밤

동방대학교 총동문회(회장 도성스님)는 23일 오후 5시 타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회 동방인의 밤을 개최한다.

이번 모임은 동방대 동문간의 유대강화를 통한 동문회 발전과 모교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모색키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천태종

금강불교대 신입생모집

서울·부산 금강불교대학(학장 이재창)은 99학년도 천태학과, 불교학과 교법사 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불교학과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불교전문 강원에서 사교과 이상을 이수한 불자면 어느 누구나 응모가능하며, 교법사 과정은 금강불교대학과 불교전문교육과정을 2년이상 수료한 불자면 된다. 접수마감은 내년 2월4일까지. (02)576-6401 (051)808-0730

진각종

최정·관행유치원 개축

원생들의 수용인원 증가로 인한 최정유치원과 관행유치원 개축 헌공불사가 연이어 봉행된다. 대구 최정심인당(주교 경일)은 24일 오전 11시 최정유치원 개축 헌공불사를, 전북 익산 관행심인당(주교 경당)은 25일 오후 1시 관행유치원 개축 헌공불사를 갖는다.

총금강회 대의원 총회

총금강회(회장 박종태)는 24일 오후 2시 대구 진각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총회를 연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회장 선출과 신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한다.

보문종

명오스님 열반1주기 법회

재단법인 보문원 전 이사장 명오스님 열반 1주기 기념법회가 14일 보문사 보광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혜안스님, 총무원장 혜일스님을 비롯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동종

경북 종무원장 운학스님



총무원(원장 송정)은 11일 경주시 동대산 건봉사에서 경북교구 종무원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신임 종무원장으로 운학스님(건봉사 주지·사진)이 취임했으며, 경북교구 현관식도 있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시판

♣ 인사

고운사 총무 무착스님

♣ 알림

△수지침 서비스=능인선원 복지관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복지관 204호에서 수지침 서비스를 실시한다. (02)571-2988

♣ 모집

△범음 범패 학인=해동불교의식교육원은 제30기 범음 범패 학인을 모집한다. 기본과정과 중급과정, 작법반 등이 운영된다. (02)741-0495

△인력공급 구인업체=송광종합사회복지관은 실직자들의 생산, 사무, 일일노동, 파출, 가사노동 등을 원하는 구인업체와 인력공급업체를 모집한다. (062)941-8248

△자원봉사자=대구 남구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시설 및 가정방문 자원봉사자를 모집중이다. 목욕시키기, 외출보조, 물리치료, 상담 등의 활용을 하게된다. (053)476-7700

△수화교실 수강생=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제2기 수화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초급수화과정 수료후 수료증도 발급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02)421-6077

△노인후원결연사업=연꽃마을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송파구내 무의탁독거노인과 결연을 맺을 후원자를 모집한다. 매월 정기적으로 1구좌 1만원 이상을 기탁할 수 있으면 된다. (02)203-3677

△발지압 수강생=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발지압맛사지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지도한다. (02)282-1100

△청소년동아리 회원=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내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위한 모임에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 동아리 회원을 모집한다. (0443)652-0900

△방학특강 수강생=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이색박물관 기행, 눈썰매, 꾸러기요리교실, 어린이컴퓨터교실 등 어린이를 위한 방학특강을 개설, 수강생을 모집한다. (02)852-0525

△미용자격증반 수강생=신도림복지관은 미용자격증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4개월과정으로 매주 월, 수, 금, 토요일 오전 10시에 강의한다. (02)631-9792

△경전연구반=능인선원은 99년 1월 6일 개강하는 경전연구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6개월간 〈금강경〉 〈능엄경〉 〈아함경〉 등을 지도한다. (02)577-5800

△컴퓨터교실 수강생=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이색박물관 기행, 눈썰매, 꾸러기요리교실, 어린이컴퓨터교실 등 어린이를 위한 방학특강을 개설, 수강생을 모집한다. (02)852-0525

△미용자격증반 수강생=신도림복지관은 미용자격증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4개월과정으로 매주 월, 수, 금, 토요일 오전 10시에 강의한다. (02)631-9792

△경전연구반=능인선원은 99년 1월 6일 개강하는 경전연구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6개월간 〈금강경〉 〈능엄경〉 〈아함경〉 등을 지도한다. (02)577-5800

△칼라믹스 자격증대비반=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칼라믹스 자격증대비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4개월 코스로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1시에 지도한다. (02)852-0525

△양재의류수선반=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양재의류수선반 중급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매주 월,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며 수시접수한다. (02)985-0161

△자비의 벽돌쌓기 후원자=소쩍새마을은 강원도 횡성에 건립중인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후원해 줄 자비의 벽돌쌓기 후원자를 모집한다. (0371)762-9870

△겨울방학 특강 수강생=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컴퓨터교실, 미술교실, 동화발표력교실, 영어교실, 서예교실 등의 특강 수강생을 모집한다. 99년 1월 4일 개강한다. (02)806-1377

△쌀보내기 후원자=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무의탁노인과 장애인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기쁨의 쌀 보내기 운동 후원자를 모집한다. (051)265-9471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개금사회복지관은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60세 이상의 경증 치매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 (051)893-5034

△손뜨개 교실=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손뜨개 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주 월, 수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한다. (02)282-1100

△부산BBS 합창단원=부산불교방송합창단은 신규단원을 모집한다. 찬불가에 관심있는 신심돈독한 여성불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051)644-5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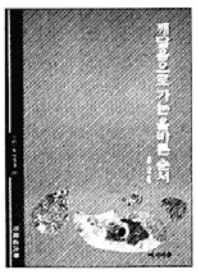
여시아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20C의 창조자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기반은 '불교'였다는데…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101-교리 입문편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20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라 불리우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에게서 전해 듣는 붓다의 가르침, 그 핵심을 모았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일리시아 후라도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성전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201-생활불교편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초펠스님 편역 / B6 변형/ 176쪽/ 값 4000원

황폐한 우리의 교육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502-문화 학술편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그릇대로 베풀어 주셨던 부처님의 대기설법. 바로 '인간존중의 교육관'이 오늘날에는 더욱 소중하게 여겨진다.
김종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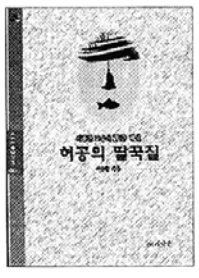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102-교리 입문편
법수로 배우는 불교
불교의 법수는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에서 중생과 세계의 모습에 대해 내린 분석 그리고….
이제열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모든 중생에겐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501-문화 학술편
불성이란 무엇인가
불교의 근본 교리인 무아설(無我說)에 의하면 영혼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모든 중생에 불성이 있다는 여래장 사상은 무아설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책은 이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401-문학편
허공의 딸꾹질
이 책의 특징 한 가지를 꼽는다면 이종찬 교수의 유려한 해설이다. 20년 가까이 선시연구에 전념해 온 이교수의 선시 해설은 그 자체로 완벽한 시어를 다시 창출하고 있다.
이종찬 지음/ B6변형 282쪽/ 값5,000원

원효·설총·일연 세 성현 탄생지

경산에 숭모공원 세운다



◇경산시는 14일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삼성현 현창사업 시민 공청회를 갖고 삼성현 숭모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까지 14만평 부지 성역화
박물관 · 유적공원 · 국궁장 건립
청소년 역사교육장 활용 효과도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선사와 대승기신론소 등을 저술한 원효성사, 이두문자를 발명한 설총유후(儒侯) 등 세 성현을 기리는 현창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진다.

일연·원효스님과 설총의 탄생지로 알려지고 있는 경산시(시장 최희욱)는 14일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삼성현 현창사업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삼성현 숭모공원 조성을 위한 입지선정 및 마스터플랜(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경산시 남산면 인흥리 일대 14만여평을 2006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총5백92억2천여만원을 투자 성역화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일대를 추모시설지구, 문화전시시설지구, 연구관리시설지구, 공원휴식시설지구 등 6개 시설지구로 나누어 개발하되 인근관광지역과의 관광벨트화를 통한 21세기형 다기능 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시설지구에는 삼성현의 영정을 모신 숭모관과 유품, 저서 등을 전시할 박물관 기타 연구센터 야외유적공원 국궁장 유스호스텔 광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지금까지 원효스님은 경산 제석사와 경주 분황사 등에서, 일연스님은 군위 인각사, 설총은 경산 도동재능에서 각각 추모다례재나 향사를 봉행해왔다. 최근에는 삼성현의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회의가 개최되는 등 삼성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성역화사업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

삼성현 숭모공원이 조성되면 청소년들을 위한 역사교육장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불교사상이 일반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될 수 있은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성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뤄져 그동안 학설이 분분했던 탄생지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경산시는 12월말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년부터 기본조사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희욱 경산시장은 "삼성현은 외래문화를 우리의 전통문화와 조화시켜 우수한 한국문화를 창조한 분들"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현창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환경운동 · 복지사업 주력

태고종 새해사업 확정…경제회복운동 전개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99년 '노인의 해'를 맞아 3~4월 지구환경가꾸기 및 도덕성회복을 위한 불교자비사상 실천 대법회를 봉행한다. 또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해 무의탁노인을 비롯한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불우한 이웃을 위한 사회복지 구호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일우)는 15일 순천 선암사에서 제76회 정기 중앙종회를 열고 신년 주요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태고종은 종단 조직정비 및 종승연구, 종전편찬 등을 통한 종단중흥 기반을 조성한다. 또 노인의 해를 맞아 도덕성회복대법회 및 사회복지구호 등의 사회화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태고종도를 중심으로 호화사치생활 추방, 건전한 소비문화창조 등 연중 국가경제회복운동도 전개한다. 또 6월과 10월 대승계(구족계) 수계법회 및 합동득도 산림, 종조탄신 기념행사와 사상강연회를 각각 실시해 종단의 역사성과 정통성, 승려상을 정립하고 조·태분규 종식을 위한 소송제기와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은 총무원을 비롯 전문 종무기관인 불교사, 동방불교대학을 포함해 총 2백8억5천5백여만원이 책정됐다.

한편 태고종 중앙종회는 제16세 종정에 덕암스님을 추대하고 또 호계위원장에 종회의원 동호스님을 인준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우일스님 불화 260점 통도사 박물관에 기증

한국불교의 맥을 이어온 근대불화의 거성 우일스님의 불화초본 기증식이 16일 통도사 정변전서 있었다.

월하 통도사 방장 스님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님의 불화초본 2백60점 기증식을 가졌다. 우일스님 문도인 조기환, 허길용, 김광열씨가 스님의 작품을 잘 보존하고 기리기 위해 마련한 이번 기증식에서 괘불초, 나한 독성초, 동진보살초, 사천왕초 등 스님의 생전 불화 초본 대다수가 기증됐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초본들을 한자리에 모아 특별전시회를 마련하고 우일스님 작품 도록을 발간해 스님의 작품세계와 뜻을 기릴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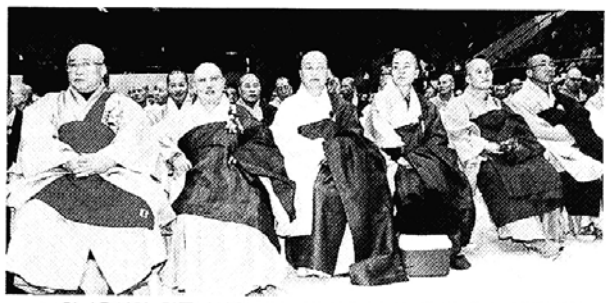
부산 내원 청소년단 함지골 수련원 위탁

부산 내원청소년단(이사장 정련·내원정사 주지)이 청소년 수련시설인 함지골 수련원을 위탁 운영하게 됐다.

11월 14일 부산시로부터 함지골 수련원 위탁 운영자로 결정된 내원청소년단은 99년 1월 1일부터 2년간 위탁운영하게 된다.

함지골 수련원은 부산지역 대표적 청소년 수련시설로 대지 6천8백여평, 연건평 1천5백50평의 지상 4층 규모이다. 3백명 수용규모로 합숙시설, 강당, 수영장, 도서관, 어학실, 청소년극장, 취미교실, 클럽활동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천미희 기자


◇한마음선원 청주지원은 13일 개원및 국난극복을 위한 대행스님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한마음선원 청주지원 개원

대행스님 초청법회 사부대중 5천명 참석

한마음선원 청주지원(지원장 청종)은 13일 올림픽국민생활관에서 개원및 국난극복을 위한 대행큰스님 초청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대행 한마음선원 장스님, 원봉 청주청원불교연합회 장스님, 이원종 충북도지사, 나기정 청주시부지장 등을 비롯 한마음선원 각 지원장스님과 신도 5천여명이 참석했다. 개원법회에 이어 '한마음의 인생살이에는 고(苦)가 없다'는 주제로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의 법문이 진행됐다.

대행스님은 법문을 통해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자기불성의 뿌리, 주인공을 믿고 다가오는 경계를 모두 거기에 놓는다면 IMF 경제국난은 물론 어떤 고통도 극복될 수 있다"고 설법했다.

김중근 기자

우산복지관 무료진료 인기

7차례 진료 7백명 이용 의류보시 · 급식사업도

광주 우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천운스님)이 지난 9월부터 펼치고 있는 무료진료사업이 주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17일 동광주병원(원장 신현호)에서 실시한 제7차 무료진료에 이르기까지 매번 1백여명의 주민들이 진료를 받아 7백여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치료를 받거나 약을 무료로 받아갔다. 지난날까지 매달 2번 복지관에서 내·외·치과 전문의와 X-레이기사, 간호사 5명 등이 진료차를 동원해 무료진료를 실시해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자 동광주병원측은 무료진료사업을 상설화하기로 결정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찰옆 러브모텔 물의

울산시의원 추진…주민 반대 탄원서

울산 시의원이 사찰옆에 숙박시설 및 대형 근린생활시설 건립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현직 시의원인 송모씨가 부인명의로 울산 동구 방어동 관음사(주지 혜원)와 인접한 곳에 지하 1층 지상3층의 여관 및 근린생활시설 건립허가를 2일 동구청에 신청했다.

이와관련 관음사 신도회와 지역주민들은 '사찰앞 여관건립은 절대 불가하다'며 15일 울산시청에 건립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고 16일에는 건축예정지에서 건립 반대를 위한 규탄대회를 갖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이 건물은 일반상업지구로 건축법상 하자는 없으나 건물 뒷편 6m 소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관음사가 위치해 있어 관음사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관음사 주지 혜원스님은 "시민들의 정신적 귀의처인 사찰 바로 옆에 러브모텔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히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우리절 불사 청송대승마을


◇경북 청송에 납골당, 복지관, 수행관 등을 갖춘 장애인 복지도량 대승마을이 건립되고 있다. 원내는 원장 정각스님.

수행 · 거주 겸용 장애인 복지타운

내년부터 불사착수 납골당 · 복지관등 건립 무공해 과일 · 메주 생산

장애인 전문 복지도량인 '대승마을'이 경북 청송군 부동면에 들어서고 있다.

대승마을은 10년전 교통사고로 두 눈을 실명한 정각스님(일산포교당 주지)의 발원으로 시작됐다.

스님이 장애인들을 위해 보살행을 결심한 것은 3년전. 교계에는 장애인들이 수행과 거주를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다는 점이 안타까워 원력을 세웠다.

97년 2월 1만2천여평의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로 인해 후원금이 뚝 떨어졌다. 스님은 종단의 무관심 속에 버려져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메주를 쑤고 된장과 고추장을 담그기 시작했다.

순수한 우리콩으로 담근 된장과 호박을 달여 넣은 고추장에는 옛고향의 맛이 배어있다. 자비심으로 담그는 장이 옹기 속에서 숙성해 감에 따라 불사의 꿈도 영글어 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높이 4m의 약사여래입상 봉불점안식을 가졌다.

대승마을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불사에 착수한다. 1차로 2000년 10월까지 본관과 과수원, 증각을 건립하고, 2차로 2005년까지 납골당과 복지관, 수행관과 수영장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이 들어서는 셈. 본관은 법당겸 강당으로 사용되며 여름불교학교를 개설해 지역불교발전에도 이바지 하게된다. 1백20여명을 수용하는 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8백평규모로 후천적 장애인과 선천적 장애인으로서 교육이 필요치 않은 자 그리고 무의탁노인 등을 수용하게 된다.

청정지역에서 노인과 장애인이 손을 맞잡고 무공해 과일과 메주를 생산하며 수행을 하는 공동체 마을. 정각스님이 꿈꾸는 대승마을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았다.

정각스님은 "사고를 당한 후 육신의 허망함에 주저 앉아 부처님의 은혜만 축내고 있을 수는 없었다"며 "어둡고 그늘진 곳에 있는 이웃에게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닿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0575)872-3650

이윤호 기자

낙산사 의상기념관 건립 자료전시실 다래헌도

양양 낙산사(주지 지홍)에 의상대사 자료전시관인 의상기념관과 각종 불교자료 전시관인 다래헌이 건립된다.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이루어 짐에 따라 내년 3월부터 51평규모의 의상기념관과 70평규모의 다래헌 건립공사에 착수해 2000년 10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낙산사는 의상기념관에 의상대사와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고 다래헌에는 낙산사를 비롯 불교와 관련된 자료를 전시할 계획이다.

김중근 기자

결식아동돕기 걷기대회

대구 관음사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은 19일 결식아동 및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위한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걷기대회는 영남불교대학을 출발 명덕네거리, 반월당, 중앙로, 시민회관을 잇는 구간에서 모금활동이 펼쳐졌다.

김중근 기자

초의선사 성상

조성 불사 동참 안내

한국의 다성이신 초의선사의 성상을 목불로 조성하여 선사께서 출생하신 전라남도 무안군 생가터에 봉안하고자 합니다. 이 뜻깊은 불사에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을 기원합니다. 점안식은 내년('99년)음력 4월 5일 선사께서 출생하신 날에 봉안하고자 합니다. 불사에 동참해주시는 분들께는 선사께서 생전에 애용하시던 초의다기와 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艸衣禪院長 稗龍雲 合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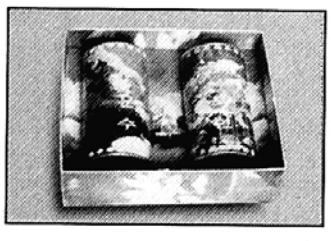
주최 : 초의문화재단
전화: 02-732-2317
팩스: 02-732-2319
인터넷 : http:\\www.teancha.co.kr\
국민은행 006-01-0452-791
농협 053-01-193314
우체국 010579-0026125
예금주 : 전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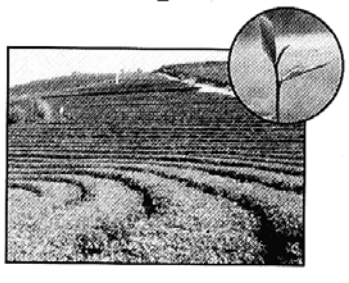
초의문화재단 에서는
무안군에서 주최하는현창사업
에서 복원되는 생가에 모실
불사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께는



초의선사께서
생전에 애용하시던
초의다기와
동참금 200,000 이상



특별한 제다공법으로 완성시킨
[100g × 2통(5~6만원 상당)]
문수차 · 보현차를
동참금 30,000 이상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초의선사 생가복원을 위한 현창사업 소개

1. 초의선사 께서는

대각등계보제존자초의대선사(大覺登階普濟尊者艸衣大禪師)의 사상과 업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차(茶)에 관한 것과, 선(禪)에 관한 것과, 시(詩)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 초의스님을 가리켜 시서화(詩書畵) 삼절(三絶)이라고 하니 이에 대한 연구가 없이는 초의선사를 말할 수 없으리라.(석용운 스님의 '초의선사의 생애와 사상' 중에서....)

2. 5월의 문화인물 초의선사(지난해 1997년)

선사의 탄신 211주년이던 지난해 5월, 문화인물로 선정 되셨습니다.

3. 선사께서 수행정진 하시던 일지암

선사께서 옛 인연의 터에 몇 칸 집을 짓고, 못을 파서 달이 비치게 하셨던 일지암, 그 후 소실되어 그 터만 남아있는 것을 용운스님께서 1975부터 복원사업에 진력 하셨습니다.

4. 초의선사 생가복원을 위한 현창사업

초의선사께서 탄생하신 전라남도 무안군(삼향면)에서는 초의 의순 선사에 대한 현창사업을 실시하여 그 정신을 기리고자, '97.4.19(토) 72명으로 현창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생가 복원(무안군 삼향면 황산리에 7,143) 유허비 건립 (생애, 업적등 기록), 추모각 건립 : 20평(초상화, 유품등 전시) 등의 현창사업을 실시 합니다.

5. 선사의 법손인 용운스님께서는

초의선사 현창사업에 참여하여 생가 복원시 초의선사 성상을 조성하여 봉안 하고자 합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茶山, 秋史, 海居, 申緯등 많은 명사들과 교유하며 그들에게 禪사상을 가르치시고 한국의 차문화 중흥을 도모했던 정신을 계승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정신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고자 합니다.

"선암사부지 수용 무효" 판결

부산고법 "장관허가 규정 무시"… 전통사찰 무분별 개발 제지

전통사찰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에 제지를 가하는 부산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고법 특별 1부(재판장 김○기 부장판사)는 4일 대한주택공사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선암사(주지 원타) 사찰 부지(부산시 당감동 623) 1만5백평의 강제수용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한주택공사측이 선암사측에 내린 사찰부지 수용재결처분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부산고등법원의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신라시대 원효대사에 의해 창건되어 88년 전통사찰로 지정된 선암사 주변의 환경이 법적 보호를 받아 지켜지게 된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사찰보존지구와 같은 유적지나 경승지의 환경권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는 중요한 의미로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고등법원의 강제수용 무효 판결은 95년 주택공사가 선암사 사찰부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통사찰의 사찰부지 매매나 담보 제공때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전통사찰보존법의 절차를 무시한데 따른 것이다.

주택공사가 선암사 부지를 강제수용해 당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자 선암사측은 전통사찰보존과 수행환경권 침해를 들어 수용불가입장과 아파트 건립 반대를 주장해 왔다. 선암사측은 곧바로 도량수호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신도들의 반대 집회와 주택공사 항의 방문등으로 꾸준히 대응하는 한편 부산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범어사, 통도사 앞 아파트 건립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립된 점과 선암사 주변 또한 소송과정 동안 계속된 공사로 자연림이 심하게 훼손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보다 근본적인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암사 총무 세정스님은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라 낙관하기는 이르며 주공측의 대응에 계속 준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선암사의 개별적 입장뿐 아니라 불교 전체적인 수행환경권이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크고 소중하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주택공사가 선암사 부지를 강제수용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전통사찰 보존과 수행환경권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선암사부지 수용 무효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소쩍새 후원금 올 20% 감소

자원봉사자도 줄어

소쩍새마을(원장 보각스님)의 후원자수는 올해 11월 기준 6만5천5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6만9천8백38명 보다 4천8백여명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4월부터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던 후원자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7천5백97명의 후원자가 탈퇴했다. 11월 신규후원자도 1백34명에 그치는 등 후원자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2월과 3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별 후원금은 전년도(총후원금 24억5천1백여만원) 대비 평균 20% 선에서 감소율을 보였다. 이에따라 내년에도 소쩍새마을이 비인가 시설이라 순수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마을의 가족 생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자원봉사자들 역시 방학을 이용해 마을을 찾은 일회성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11월현재 1백19개 단체, 8천3백여명)이어서 마을 살림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소쩍새마을 관계자에 따르면 "IMF 경제한파로 인해 후원자가 감소세를 보이더니 설상가상으로 도박승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 종단혼란이 거듭되자 사회전반적으로 불교에 대한 혐오감이 팽배해져 후원금과 자원봉사자 지원 감소로 마을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소쩍새마을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마을살림의 어려움을 알리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울 장기기증신청 1300건

생명나눔실천회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는 15일 타워호텔에서 제10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손양호법사(전 동국대의료원 감사과장)와 김성호 후원회장(불교미술전시관 관장, 이원기 후원회 부회장(한국스트레칭협회장)을 각각 상임이사와 이사로 선임했다. 이날 보고된 98년 11월말 현재 장기기증 신청은 1천3백명으로 지난해 6백64명에서 95% 늘어났다.

김재경 기자

결식아동 지원금 전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6일 '맑고 향기롭게'와 25개 산하 복지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식아동 돕기 지원금 5천5백20만원을 각 복지관에 전달했다.

이 기금은 '사랑의 친구들'(총재 박영숙)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다. 겨울방학이 끝나는 내년 2월 10일까지 모두 9백20명의 결식아동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이 사업은 학습지도 및 심성교육, 특활교육 등의 방학중 과외교실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김재경 기자

남한산성주변 폐사지 훼손 심각

남한산성이 훼손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동림사지 등 폐사지들도 훼손이 가중되고 있다.

여름 수해 때 무너진 성곽 일부를 보수하지 않아 위험하게 방치되고 있는 남한산성에는 동림사지 외에도 한흥사지 옥정사지가 억새풀에 덮혀 사지인지 구분이 어려을 정도로 훼손돼 있다. 옥정사 뒷편으로 난 성곽 4백여m와 제3남옹성 양쪽 2백여m는 무너진지 수년이 지나 원형이 거의 사라졌지만 복원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수년동안 복원한 성곽은 틈새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군과 경기문화재단은 남한산성 및 사지 훼손 실태 조사와 함께 대책마련에 나섰다.

강지연 기자

"회암사지 국찰가능성 높다"

경기도박물관 봉황새긴 기와등 발견

회암사지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 7개가 확인되었고 소조 나한상, 청기와, 도자, 철기, 석제품 등 수백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출토품중 청기와 백자, 봉황이 그려진 막새기와 같은 유물은 당시 회암사가 국찰로서 높은 위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8월부터 발굴을 하고 있는 경기도박물관 발굴조사단(단장 장경호)은 11일 회암사지(사적 128호)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현장 설명회에서 발표했다.

이번에 확인된 건물지 가운데 2곳은 발굴조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건물지 5개소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담장지 외곽지역에서 다른 담장시설이 확인됐는데 이 담장지는 북쪽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어 담장시설과 관련된 건물지 또는 다른 시설물이 있을 것이란 추정도 나왔다.

출토된 유물 가운데 막새기와류에는 천순경진(天順庚辰), 정통병진(正統丙辰) 등의 중국연호명이 새겨진 것들이 있어 건물의 축조 및 보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편년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에서도 전총병진 명문이 새겨진 기와에는 '효령'대군의 명칭도 새겨져 있어 조선 세종 18년(1436년) 회암사 중창불사에 효령대군이 시주한 사실을 알리고 있다.

경기도 박물관 발굴조사단은 회암사지는 고려말 조선초에 걸쳐 2백여년간 국가 및 왕실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당시 불교건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연꽃마을 대구동구병원 24일 개원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은 대구시 동구 서호동 14-1번지에 동구청의 협조로 노인 및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무료병원과 무료식당을 설립, 24일 오전 11시 개원식을 갖는다.

동구의료복지센터는 대지 4백평, 건평 1백75평 규모로서 1층 병원에는 내과 일반외과 가정의학과 등의 진료과목을 개설한다. 23개의 침대를 갖춘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X-레이실 등 1차진료기관으로 손색이 없는 시설을 갖추어 신경통,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뿐 아니라 장애인의 재활의료기관으로도 활용된다. 2층은 무료식당으로 활용되며 30여평의 공간을 따로 확보, 다양한 재가복지사업도 펼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복지전문법인인 연꽃마을은 연간 1백여명의 노인들에게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053)963-3674

김재경 기자

btn사장 정우스님 17일 사의표명

불교TV 대표이사 정우스님이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불교TV 10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3회 정기 이사회'에서 정우스님은 "지난 1년간 경영난 극복을 위해 힘써왔지만 한계를 느낀다"며 "경영 전반에 걸친 합리적 타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23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정우스님의 대표이사직 사의 표명과 관련, '경영 현안에 대한 대책 수립의 건'과 '대표이사 선임' 등의 안건으로 28일 재소집키로 결의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목탁소리

불교청소년지도자 양성

오 종 욱 〈취재 1부 기자〉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최근 실시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서 1·2·3급 593명이 합격했다. 교계에서 이 시험 결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청소년과 관련해 국가에서 공인하는 유일한 자격증이며, 교계 청소년단체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자격시험 응시자 가운데 대학에서 청소년지도사 관련 학과를 수료한 졸업생을 제외하면, 대부분 청소년단체·시설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다. 이번 시험에 합격한 현장 근무자들은 총 2백50여명. 이 가운데 교계 단체나 시설 근무자는 30여명으로 파악됐다. 겨우 12%를 웃도는 수준이다. 교계 단체·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의 비(非)전문화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크다. 그들은 기존의 주입식 교리학습 프로그램보다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다. 또 교계 밖의 청소년 단체에서 활동하며 불교적 내용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포교의 첨병이기도 하다.

교계 일선 청소년지도사 사이에서는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정운스님(청소년교화연합회 보령지부장)은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전문화시대인 21세기를 맞아 전문적인 청소년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법에 따르면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을 채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련 시설에서는 강제조항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교계에서는 자격시험 응시자를 위해 한국청소년개발원이 마련한 연수에 참여할 시간도 할애하기 어렵다", "근무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속 단체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등 교계 청소년 단체·시설의 내부 문제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gobaoou@buddhapia.com)

뉴스 & 뉴스

보리수마을 대표 김영주씨

노인 유료요양시설인 보리수마을 이사회는 이달 초 명신스님에 이은 새 대표이사에 김영주씨를 임명했다.

이사회는 기존 이사 9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상임이사에 명신스님, 감사에 조창래 권순남씨, 이사에 정복순 김기철 박새순씨를 새로 임명했다.

김재경 기자

대원회 이사장 김용직씨

대원회는 16일 제 60차 정기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에 김용직이사장 직대를 선출하고, 17일 대원회 사무국장에 권오성법사를 새로 임명하는 등 조직 정비를 시작했다.

대원회는 당초 11월 30일 박윤흔 전 이사장으로부터 이사장 권한을 위임받아 이사장 권한대행 김용직이사를 위원장으로 대원발전위원회를 구성, 그동안의 혼란을 수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원회 신도회와 재학생들이 발전위원회 구성에 문제를 제기, 5인 위원회를 결성하고 대원회 살림의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키로 논의했으나 일부이사들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동국대교수회 총장후보선출

동국대 교수회(회장 유덕기)는 14일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개표를 실시하고, 1·2위로 선출된 홍치유 교수(물리·104표 득표)와 조희영 교수(경영·89표 득표)를 차기 총장후보로 재단이사회에 추천하기로 했다. 통신투표로 실시된 이번 선거에는 총 유권자 4백93명중 2백28명이 투표, 50.3%의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나 학교측은 교수회가 내년 2월 정년퇴임교수 해외파견교수 등을 유권자 수에 산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총 유권자 5백10여명중 과반수 투표가 이뤄지지 않아 무효라고 밝혔다.

재단이사회는 송석구 총장 연임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교수회의 투표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 기자(jekim@buddhapia.com)

훈할머니 손녀 교육 후원

훈할머니돕기불교후원회(공동회장 장적스님 등 3인)는 훈할머니의 손녀인 잔니(21)와 시누원(17) 양의 교육을 후원하기로 했다.

후원회 강인성 부회장(대구경불련 회장)은 14일 "잔니 양의 영남대 인문사회학과 입학을 학교의 도움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강북복지관 '겨울나기캠프'

서울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혜창스님)은 12일 복지관 3층강당에서 장애인 및 노인 1백여명을 초청, '겨울나기 건강잔치'를 열었다. 강북복지관은 이날 위로잔치를 베푼 뒤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및 보장구를 전달했다.

김재경 기자

화엄학림 제5기 학인 모집 공고

실상사 화엄학림은 화엄경을 중심 경전으로 하여 강의, 연구, 토론 위주로 공부하는 종단 교육법에 의거한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신심과 원력이 충만한 스님들이 많이 입학하기를 바랍니다.

- 교 수 진 : 연관스님, 도법스님, 법성스님, 현응스님
- 교 과 목 : 화엄현담, 화엄경(80화엄), 유식학, 화엄학개론, 화엄사상사, 일승십현문, 망진환원관, 법계관문, 화엄약책, 삼성원융관 등
  · 특강 : 필요할 경우 무시로 강의함
- 응시자격 : 비구로서 기본교육기관 졸업자 및 예정자(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학부)이며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비구 사미
- 원서교부 및 접수 : 1999년 12월 1일~1999년 3월 5일(음력 10월 13일 ~ 1월 18일)
- 전형일시 : 1999년 3월 9일 (음력 1월 22일) 오후 1시 실상사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입학일시 : 1999년 3월 15일 (음력 1월 28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기본교육기관 졸업증서(예정)1부
  사진 5매(반명함판)
  승려증 주민등록증 복사본 각 1매
- 문의전화 : 0671)634--3860, 3861 (화엄학림)
  634-3031 (사 무 실)
  634-3757 (주 지 실)

◐ 입학을 원하는 스님들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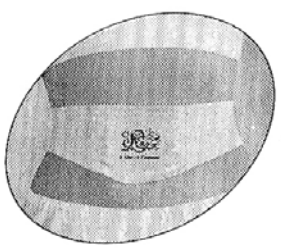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번지 지리산 **실상사** (우:590-850)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연관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거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입 문



■신심명/
대원 문재현 역저

신심명 본문에서 삼조 승찬 대사께서는 45대치법을 양끝을 들어 양끝을 쓸어버리고 있다. 그리하여 한결같이 양끝이라 할 것이 본래 없는 본연(本然)의 경지를 이르고 있는 것이다.
역저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는 이러한 신심명을 주해의 한 줄로 회통하고 본연을 누리는 송으로 농(弄)하셨다. 지극한 도라는 얼굴에 몇 겹 두꺼운 철관을 깔지 않고는 이를 수 없다 하였으니 이러할 때 무어라 해야 할꼬.
최상승법이란 이름조차 설 수 없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가.
금강경의 부처님께서 자리 펴 앉으신 입상과 붉어(不二)의 도리를 묻는 문수의 물음에 답한 유마의 묵언, 그리고 신심명 마지막 장, 대원 선사의 통쾌한 웃음이 잇다. 이 웃음을 보라!
바로보인, 10,000원 (02)597-2460

부처님 제자들의 행장



■부처님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열두 직제자/정인스님 지음

'소욕지족(小欲知足) 두타(頭陀)제일'의 제자로 대승불교에서 부처님 법을 첫번째로 받은 마하가섭,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보필했다는 아난다와 부처님의 아들인 '밀행(密行)제일'의 제자 라훌라 등 12인의 부처님 직계제자들. 불자들의 대부분은 부처님의 직계제자가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그들이 왜 출가했으며, 그들이 끔찍한 이상은 무엇이었을까.
이 책은 이같은 궁금증을 시원스레 풀어준다. 이들 제자들의 행장을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 재현해 놓은 책. 한역 〈아함경〉과 〈율장〉을 기초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남방 팔리어 〈아함경〉을 비롯한 전설·설화 자료들을 참조해 단순히 제자들의 일대기적 서술에 그치지 않고 불교적 신앙심을 드러내는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여래, 9,000원 (02)730-8976

에 세 이

참회와 발원의 본질-기도



■영험도량에서 소원 성취한 이야기/
진현종 지음

기도를 무작정 현세의 복을 비는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기도는 참회와 발원을 본질로 한다.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자신을 가꿔가는 적극적인 수행방법이다. 간절히 기도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신심이 깊어져 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팔공산 갓바위, 강릉 등명락가사, 여수 향일암, 영천 거조암 등 전국의 스물 다섯 곳 기도도량에서 기도를 통해 겪은 갖가지 영험담을 소개한다. 고전적 이야기가 아닌 현대적 영험담이라 더욱 공감할 수 있다. 저자는 '기도는 근기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참불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수행의 기본'이라고 말한다.
대원미디어, 5,000원 (02)318-0482

법화경의 설명, 이해하기



■양약을 먹지 않는 지구 촌놈들/
혜성스님 지음

사람은 아프면 약을 먹는다. 저자는 나라가 어지럽고 사람들이 갖가지 고통을 받고 괴로워 할 때도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약은 다름아닌 〈묘법연화경〉. 묘법의 양약을 먹으면 낫지 않는 병이 없고, 소멸되지 않는 업장이 없고, 오지 않는 복이 없으며, 빛이지 않는 공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법화경은 받아 지니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 책은 그런 법화경을 쉽게 설명한 책. 법화경의 구조와 묘법연화경의 대의를 간단히 설명하고 저자가 나름대로 법화경을 수행해 오면서 얻은 이해와 법의 가피력을 담았다. 재미있는 글귀가 많다.
위음왕 12,000원 (051)625-9085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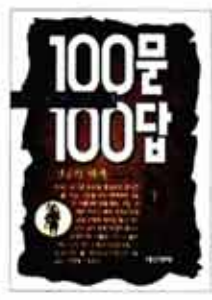
피라미드 에너지 - 의문 풀기



■신과학으로 풀어보는 피라미드 에너지/
허창욱 지음

현직 과학자의 시각에서 피라미드 에너지의 신비를 풀어낸 책. 피라미드 에너지를 소개하는 해외 자료들 중에서 충분한 검증과 실험을 거친 것이 전무한 실정. 그러나 이 책은 막연하게 피라미드의 신비한 현상만 강조하고 있지 않다. 피라미드 에너지의 현상과 근원을 신과학의 시각으로 추적하면서 국내외의 관련자료와 주장을 충실하게 비교·비판하고, 아울러 공간 에너지와의 연관성 속에서 과학 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현직에서 신과학의 이론과 가능을 연구하고 있는 저자가 수년간 수집하고, 연구하고 또 직접 실험 과정까지 거치면서 쓴 이 책은 피라미드 에너지에 대한 독자들의 의문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모색, 9,000원 (02)765-7438

불교이해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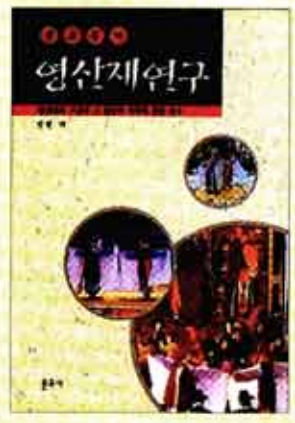


■100문 100답-불보살·신중 편/
고명석·고광영 지음

불·보살·신중을 모두 망라해 그들의 이름과 탄생 배경 등에 관한 역사, 역할, 간직된 이야기, 신앙상의 특징과 문화적 양상 등을 일목요연하고 알기쉽게 정리한 최초의 책. 상·하 두 권. 대원정사가 펴내고 있는 '100문 100답 시리즈'의 하나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불·보살·신중을 설명하면서 인도의 신들 및 중국과 한국의 토속신들이 불교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그 문화적 양상과 신앙의 특징까지 소개하고 있다는 점. 인도 신화의 체계적 이해는 물론 우리 문화 속에 들어 온 많은 신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불교를 이해하는데 사전과 같은 자료로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책.
대원정사 각권 8,500원 (02)754-1614

금주의 추천도서

중생의 화두 '나'에 대한 풀이



■영산재 연구/법현스님 지음

불교의 의례의식인 영산재의 진행은 범패(梵唄)로 불리운다. 불교음악인 범패는 주로 재(齋)를 올릴 때 부르는 노래로써, 장단과 화성이 없는 독특한 음악이다. 그러나 배움에 어려움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이가 줄어들어 그 맥이 끊어져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불교음악을 널리 알리고 그 맥을 잇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산재의 구성과 범패의 기능, 작법절차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영산재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불교방송과 불교음악의 세계 두 곳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알차다.
불교음악을 공부하는 학인스님들뿐만 아니라 영산재에 관심있는 일반 불자들에게도 길잡이 충분한 길잡이가 될만한 책이다.

운주사 15,000원 (02)720-9372

우리 시대의 큰스님을 만난다!

산승의 향기

큰스님 25인의 살아온 이야기

현대 한국불교를 지탱하고 있는 큰스님들의 삶이 압축되어 있는 이 책은 그분들의 출가이야기, 수행이야기 그리고 후학들과 대중들에게 주는 격려와 채찍의 말들이 담겨있다.



우리곁엔 언제나 큰스님이 있었네

청정한 삶,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오직 한 길로 정진하는 고집스런 삶,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무한한 애정 등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신적 가치들로, 그분들의 삶이 발산하는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관응 큰스님 · 구암 큰스님 · 덕암 큰스님 · 문성 큰스님
· 범룡 큰스님 · 비룡 큰스님 · 서암 큰스님 · 서옹 큰스님
· 석주 큰스님 · 성수 큰스님 · 수산 큰스님 · 숭산 큰스님
· 승찬 큰스님 · 운경 큰스님 · 운문 큰스님 · 원담 큰스님
· 월산 큰스님 · 월하 큰스님 · 응담 큰스님 · 일타 큰스님
· 진제 큰스님 · 청하 큰스님 · 해암 큰스님 · 화산 큰스님
· 달라이라마

이학종 저/신국판/255쪽/값 7,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 TEL:720-9372~3 FAX:723-0646

본 지면은 출판사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간도서의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정리된 책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게 하여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획기사형 광고면입니다.

■참여문의 : 현대불교신문 영업부 ☎ 02)732-1522(직)

금주의 명저순례

역사에서 찾는 과학정신

■수렁속에 푸른꽃불/명현스님 지음



고해의 바다에서 업보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존재의 이유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참자아를 찾아 가는 길을 제시하는 구도소설. 이 소설은 실종된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은 업장의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덕의 갈림을 말한다.
수자의 삶과 진공의 끝없는 구도의 걸음을 통해 저자는 사람으로 태어나 나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여야 했던 수많은 관념들,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생으로부터 지고 온 업이란 관념의 덩어리를 부수어 버리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펼쳐지는 하얀 여백. 그 마음의 여백에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유, 이 소설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동남기획, 7,000원 (02)465-5128

금강경 - 현대적 풀이

■금강경/정용수 지음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도 읽는 이가 많지 않거나 읽어도 그 참맛을 알기 어렵다면 가치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최근 경전을 쉽게 설명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다. 경전의 본뜻을 그대로 전하면서도 그 의미를 재미있게 엮어 낸다면 읽는 사람에게는 분명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책이다. 원문과 주해를 제시하고 그 뜻을 마치 이야기하듯 풀이해 놓았다. 책 제목 앞에 '신역(新譯)'이라는 말을 붙인 것도 짧은 문장과 소박한 비유를 통해 〈금강경〉의 참맛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번역에 있어 과감히 현대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
우리출판사, 12,000원 (02)313-5047

불교미술의 교과서

■한국의 불교 공예·탑파/황수영 지음



미술사 각 부분의 중요 작품에 대한 총 101편에 달하는 방대한 개별 논문들을 주제에 따라 탑·사리장엄구·석등·부도·불교공예·도자기·금속제품·사경·불화 등을 5부로 나누어 실은 학술서. 각 유물에 대한 2백4장의 도판사진을 함께 수록해 놓았다. 양식사에 치중하고 있는 미술사 관련 책들과는 달리 문화재 자체의 유래와 조성 배경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독특하다.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탑파의 특징과 탑 속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를 다룬 것이 눈여겨 볼만하다. 고대의 사경 중 특히 금은자경(金銀字經) 가운데 특기되어야 할 고려시대의 금은자대장경 사업의 진행과정을 설명해 놓은 것이 특기할 만하다.
혜안, 50,000원 (02)511-8651

과거의 거울 - 현재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종본스님 지음



버지니아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이언 스티븐슨 박사 연구팀은 윤회설에 대한 연구끝에 놀랍게도 전생을 기억하는 20여건의 사례를 밝혀내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바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고 했다. 복도 그렇고 업도 그렇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관한 갖가지 이야기들을 묶은 책.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에게 전생 이야기는 터무니없이 들릴지도 모른다. 과거사를 알고 싶으면 지금 현재를, 미래사를 알고 싶으면 현재 자기의 행동을 살피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이 책도 바로 현재를 바르고 선하게 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펴냈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솔과학 8,000원 (02)928-1871

역사에서 찾는 과학정신

■한국사에도 과학이 있는가/박성래 지음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물인 다라니경에는 우리의 과학정신이 얼마나 어떻게 깃들여져 있는가. 황룡사종과 에밀레종도 마찬가지. 그 속에 담긴 우리 선조들의 불심과 창조적 정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도선스님의 풍수지리는 과연 과학인가.
이 책은 우리 역사 속에서 '과학'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출발한다. 그리고 첨단과학에도 결코 주눅들지 않는 우리의 빼어난 과학정신과 그 유산들을 소개한다. 첨성대, 토목건축, 측우기 등 각종 유산들을 통해 과학에 있어서의 민족성도 언급한다. 시대의 어둠 속에서 과학기술을 놓치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의 노력이 느껴진다.
교보문고, 7,500원 (02)3973-500